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계획]

2040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계획]

Contents

I	제1장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개요	008 제1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범위와 위상 011 제2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유 및 특징
II	제2장 인천의 미래상과 목표	018 제1절 인천의 현황 및 변화 038 제2절 2040년 인천의 미래상 설정 040 제3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기본구상
III	제3장 부문별 전략	056 제1절 도심 및 주거 070 제2절 교통 및 물류 084 제3절 탄소중립 및 방재 092 제4절 산업 및 경제 098 제5절 문화 및 관광 105 제6절 건강 및 복지
IV	제4장 공간계획	112 제1절 도시공간구조 118 제2절 주요 발전축 설정
V	제5장 생활권 구상	138 제1절 생활권 구상의 개요 140 제2절 생활권 구분 및 설정 142 제3절 생활권역별 구상
VI	제6장 계획의 실현	152 제1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활용 153 제2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154 제3절 계획지표 설정 161 제4절 거버넌스 강화방안 161 제5절 단계별 실행전략

I

제1장

204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개요

- 008 제1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범위와 위상
- 011 제2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유 및 특징

제1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범위와 위상

『인천 도시기본계획』의 의미

-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공간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구조적 틀을 제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지침에 따라 인천의 대내·외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와 전략·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환경적·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의 공간적 이슈를 부각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탄소중립, 재해에 안전한 도시 등의 이슈를 포함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이란

-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법정 계획이다.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국토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 간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한다.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공간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1.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19년이므로 계획의 지표를 2019년 기준으로 하였고 변경을 수립하는 2023년 기준으로 일부를 갱신하였다. 인구, 산업,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등의 지표를 파악하고 계획과제를 분석하여 미래상을 수립하였다.
- 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이다. 도시지표 및 부문별 계획의 최종 실현 단계로서 4단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8개 구, 2개 군, 1개 읍, 19개 면, 135개 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136개 법정동, 122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8월말 현재)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공유수면 276.808㎢를 포함하여 총1,381.348㎢이며 도시기본계획 대상 면적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가장 크다.
-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현황 분석 및 공간구조 계획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주변 지역인 부천, 시흥, 김포 등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장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다.
- 부문별 전략계획은 각 실·국·본부에서 수립하는 개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 특히,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공간의 관리 방안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지역 간, 지역 내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권 구상은 권역별 구상을 기술하여 지역의 개략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수립할 생활권 계획의 기본이 된다.
- 계획의 실현과 대내·외 여건의 변화, 부문별 계획을 모니터링 하고, 지역 및 정부 간 거버넌스, 재정투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단계별 계획기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 기간	2021~ 2025년	2026~ 2030년	2031~ 2035년	2036~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2. 계획의 위상 및 역할

인천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며, 다양한 부문별 계획과 정책을 공간 구조와 토지이용을 통하여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도시기본계획은 인천 고유의 특성을 토대로 주택, 교통, 환경, 공원녹지 등 물리적인 분야와 사회, 경제, 복지 및 교육 등 비 물리적인 분야를 종합한다.
-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한다.
- 따라서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고 인천광역시 정책의 전 분야를 조정하여 각각의 계획을 공간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인구 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기후변화, 산업구조 등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였다.
-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도시지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정하여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한다.

공간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과제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이용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의 공간 구조를 구성한다.
- 대생활권인 권역생활권 단위의 발전 방향을 포함하고, 향후 생활권계획 등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각 분야가 공간차원에서 통합되고 조정 되도록 한다.
- 인구의 배분, 기반시설의 배치,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 방안을 유도하여 계획의 실현을 도모하고 입지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체계화하는 전략 계획이다.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저성장 기초, 재정투입 수요 증가, 시민 요구의 다양화 및 고도화 등 공공정책 수요는 계속 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조직 현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를 통합하고 시민, 전문가, 행정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전략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

제2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유 및 특징

1.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의 배경

인천도시기본계획 주요 변경 사유

-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연수, 구월, 계산, 만수, 부평 등 1기 신도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경인전철 지하화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 2023년 7월 7일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미래상과 내용에 따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외부적 여건 변화

- 지속되는 이슈인 글로벌 네트워크화, 신성장 산업 육성, 일상 생활에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계된 교통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응이 요구된다.
-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내항 재개발 등 노후 기반시설의 재구조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도시균형 발전 등 도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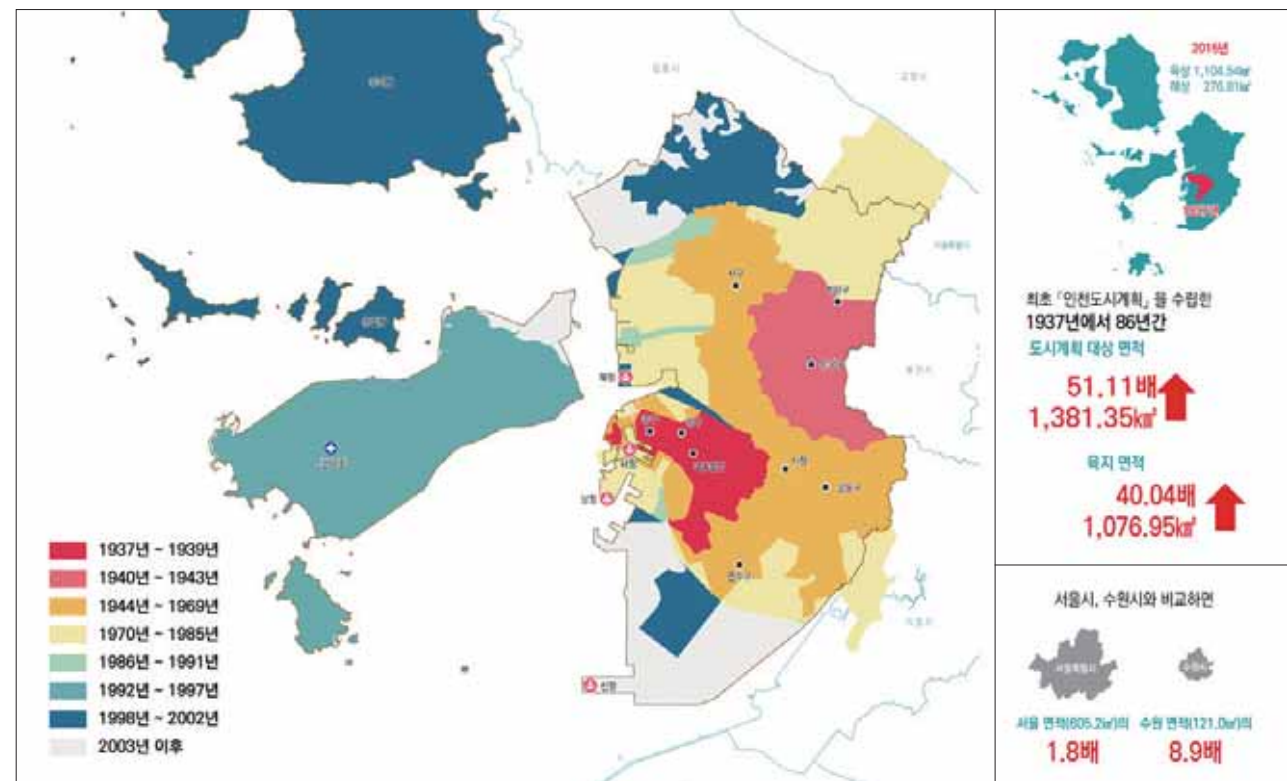
인천 내항 8부두 및 상상플랫폼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의 변화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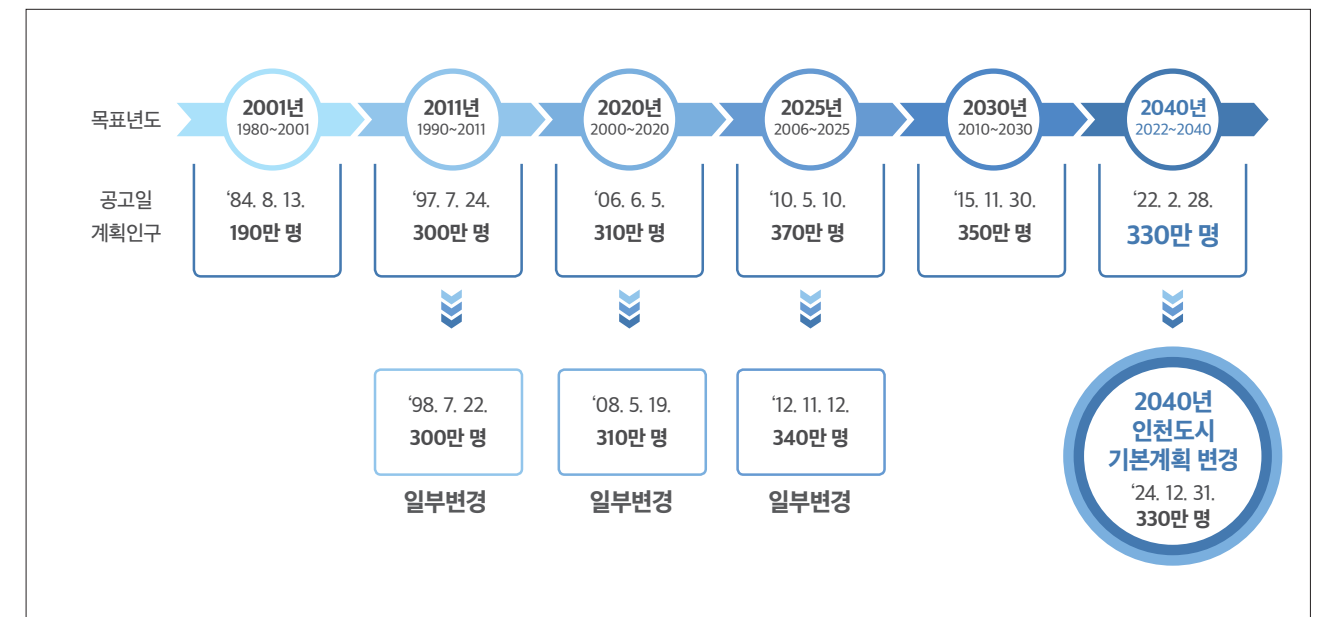
-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인천이 근대도시로서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면, 1962년부터 현재까지는 인천이 본격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였다.
 - 1910년부터 시구개정(市區改定)사업과 1913년 「시가지건축 취체규칙(市街地建築取締規則)」에 의해 도시계획 정비와 건축 용도와 밀도, 건축선 등을 규정하였다.
 - 근대적 도시계획의 제도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었으며, 최초 계획은 1937년 『인천시가지계획 구역결정(仁川市街地計劃區域決定)』(27.5km²)이었으며, 1944년 『경인시가지계획(京仁市街地計劃)』(220.7km²)으로 부천, 문학, 서곶 등이 계획 범위에 포함되었다.
 -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고 1963년 『제1차 인천도시계획재정비』된 이후 현재까지 인천은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도시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고, 현재 인구 300만 명의 수도권 거점도시로 성장하였다.

- 1981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총 10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였으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천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역할을 해 왔다.
- 앞으로의 인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합리적 계획과 개발·관리 수단의 역할을 넘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을 해석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모색하고, 다양한 도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적·정책적 전략을 제시하며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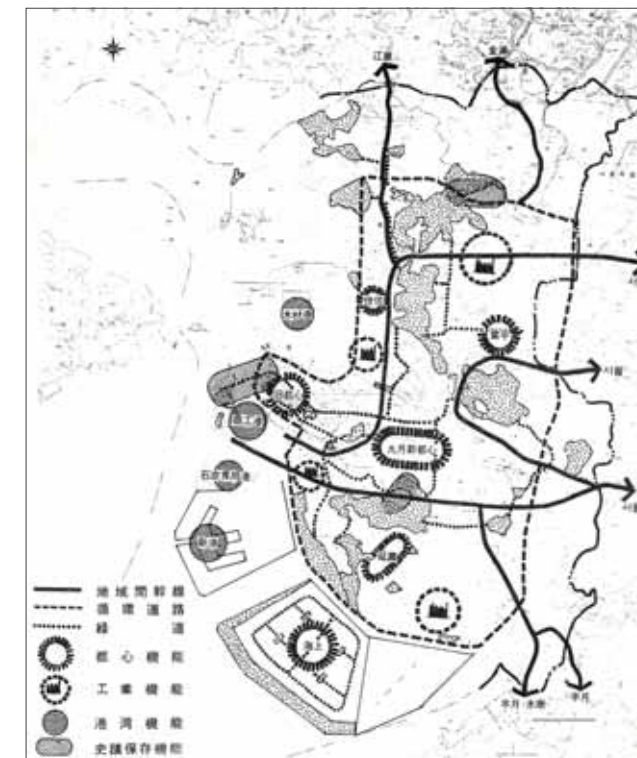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공간적 영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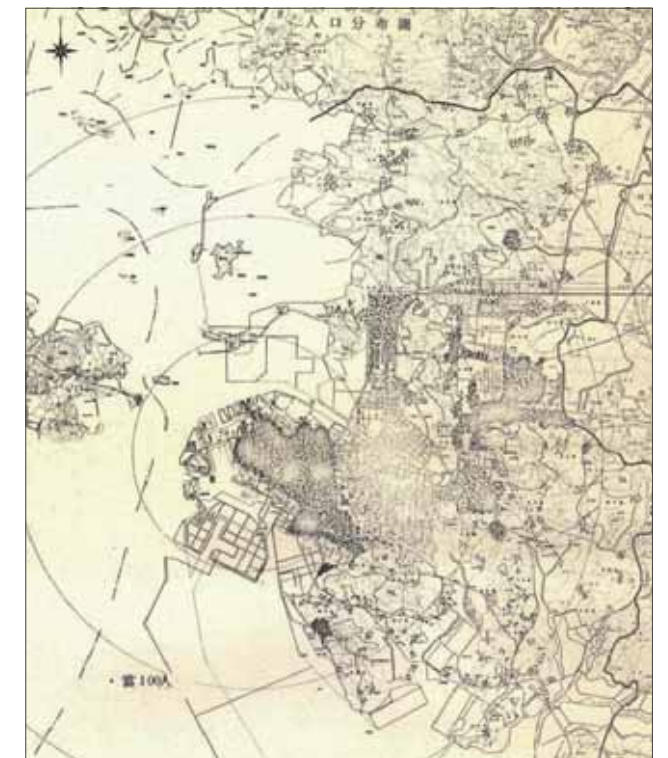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연혁



200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 기능 배분도



1978년 인구분포도



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의 특징

전략계획 형식의 병용

-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 기존 종합계획 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은 12개 부문별 계획이 각각 수립되어 계획 간 연계와 정합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전략계획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목표와 전략체계에 대한 가독성과 명료성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고
- 기존 종합계획 형태의 보고서와 함께 활용하되, 향후 논의를 거쳐 차기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종 작성 형식을 결정한다.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문별 전략계획을 본부·국단위로 통합하였다.
- 이를 통해 정책의 인천광역시 내부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토대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계획의 기본 토대 제시

-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신도시, 농·어촌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경제자유구역 등 신개발지, 강화와 옹진 등 농산어촌 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 토지면적으로 강화군(411.4km²), 옹진군(172.9km²), 중구(140.4km²), 서구(119.1km²), 남동구(57.5km²), 연수구(56.2km²) 순이며,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변 도(道)내 기초자치단체인 시흥시(139.9km²), 부천시(53.5km²)를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간단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이에 권역별 계획은 2024년 8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권 계획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 이를 위해 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내실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구와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 참여가 요구된다.

실천력 강화를 위한 지침 및 모니터링, 환류 체계 마련

- 각 부문별 정책과 계획을 도시의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하고 조정하여 계획과제를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현한다.
- 부문별 전략과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위계획과 관련 정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계획을 환류(feed-back)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필요시 전략과 실행방안이 즉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변경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과정

단계	일정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모집 운영	2019. 6.13. ~ 2023.10.23.
전문가 자문회의	2021. 3.31. ~ 2021. 4.29.
관계기관 협의	2021. 7.23. ~ 2021. 8.23.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2021. 8.19. ~ 2021. 8.23.
시의회 의견 청취	2021. 9.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협의회	2021. 9.28. ~ 2021.10.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12. 2.
국토계획평가 완료	2022. 1. 13.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2022. 1.2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2022. 2.2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기본계획 반영 의견 수렴 및 부문별계획 실무회의 (시 관련 부서, 유관 기관, 군·구)	2023. 3. 6. ~ 2024. 3.30.
관계 공무원 사전 자문	2024. 4. 5. ~ 4.17.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3회)	2024. 5. 3. ~ 11.30.
국토계획평가 완료	2024. 8. 8.
전략계획안 협의(관련부서 및 군·구)	2024. 9.12. ~ 9.27.
시민공청회	2024. 9.30.
의회 의견청취	2024.10.16.
관계기관 협의(3회)	2024.10.10. ~ 11.26.
도시기본계획협의회의 및 방재계획 협의	2024.10.25. ~ 11.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12.24.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확정 및 공고	2024.12.31.



인천항

II

제2장

인천의 미래상과 목표

- 018 제1절 인천의 현황 및 변화
- 038 제2절 2040년 인천의 미래상 설정
- 040 제3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기본구상

제1절 인천의 현황 및 변화

1. 일반현황

위치

- 인천은 동경 126° 37′ , 북위 37° 28′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며,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워싱턴 DC, 마드리드, 리스본, 테헤란, 북경 등과 유사한 위도에 있다.
- 한강 하류, 서해와 맞닿아 있으며 서울시청에서 인천광역시청까지 약 28km,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22km 거리에 있다.

기후

-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양적 특성과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내륙지역보다 연간 기온 변동이 작으며, 평균 연간 기온은 12.5℃이며, 최고기온은 1949년 8월 16일의 38.9℃ , 최저기온은 1931년 1월 11일의 -21.0℃다.
- 연간 강수량은 1,134.4mm로, 유사한 위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낮다. 주된 풍향은 북북서이며, 평균 풍속은 3.06m/s다. 강한 바람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하고, 9월에는 가장 낮은 풍속을 보인다.
-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황사와 안개 발생 빈도가 높다. 안개는 주로 5월과 6월에 자주 발생하며, 2021년에는 50일의 안개가 기록되었다.



인천대교 및 영종국제도시

면적

- 인천은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 당시 인천의 면적은 201.21km²였으며,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30.9km²)과 옹진군 영종·용유면(72km²)이 편입되어 310.83km²가 되었다.
-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 강화군(401.3km²), 옹진군(163.6km²), 김포군 검단면(42.2km²)가 통합되어 955km²가 되었다.
- 200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2005년에는 994.12km²로 전 국토 면적의 1%로 확장되었으며, 2024년 기준으로 1,076.95km²에 이르고 있다.

인천의 지형

- 인천은 대부분 300m 이하의 능선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남정맥에 해당하는 가현산,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철마산, 만월산, 만수산과 강화군에는 마니산, 고려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마니산(472m)과 계양산(395m)이 대표적이다.
- 한강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굴포천, 청천천, 계산천 등이 있고,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으로는 북쪽의 시천천, 공촌천과 남쪽의 승기천, 만수천, 장수천, 운연천 등이 있으며, 굴포천(11.5km)을 제외하면 승기천(6.2km), 검단천(6.74km) 등 대부분 하천연장이 10km 미만이다.
- 인천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으로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며 섬이 많다. 인천에는 모두 168개 섬이 있으며, 이중 128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도시의 발전

- 인천은 1974년 인천항의 확장, 1999년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 2001년 인천 국제공항 개장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가 건설되었다. 매립된 토지에는 다양한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주거 및 관광 등을 위한 복합용도의 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 2003년 경제자유구역과 2009년 인천대교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항만과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확장 등 인천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재해취약성

- 최근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도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다.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도시재해도 일상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대 대비 약 2.4배 증가하는 등 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 인천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화되는 재해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 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경관(자료: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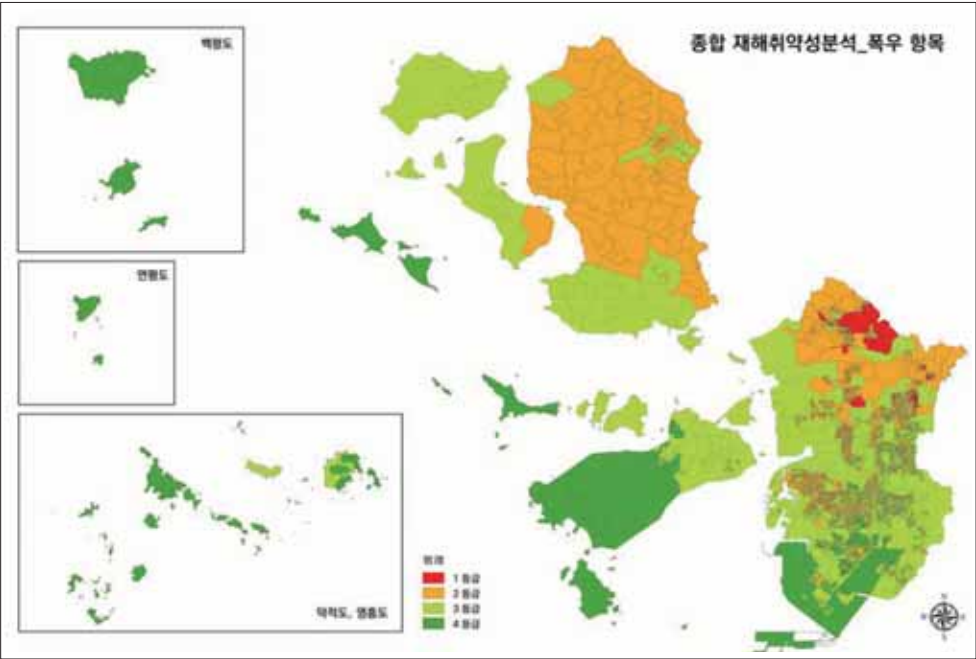
■ 분석 지표 설정

- 현재 취약성 분석에서는 기상 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온, 강수량 등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노출을 지표화한다. 또한 잠재 취약지역, 도시취약요소 등 위치 기반 지표를 통해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였다.
- 미래 취약성 분석에서는 향후 20~30년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의 기후노출 지표를 예측한다. 최근 10년간 토지피복 분류가 시가화 변경 지역, 지역별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자료 등을 활용한다.
- 종합 재해 취약성은 현재 취약성과 미래 취약성 중 취약 정도가 높은 등급을 선정하여 등급화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평가 등급은 총 1~4개 등급으로 설정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해당 유형의 재해취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폭우 재해취약성

- 폭우 재해는 현재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3, 4등급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는 폭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현재에 비해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폭우 재해 종합취약성 분석은 전체 면적 대비 1등급이 1.29%, 2등급 30.33%, 3등급 40.50%, 4등급 27.88%로 나타났으며, 폭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는 1, 2등급 지역은 총 31.62%, 폭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양호한 3, 4등급 지역은 68.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폭우 재해취약성



■ 폭염 재해취약성

- 폭염은 미래보다 현재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취약한 1, 2등급이 많았다. 면적 비율로 전체 면적 대비 1등급이 0.62%, 2등급 7.89%, 3등급 23.74%, 4등급 67.75%로 분석되었다.
- 폭염 재해 종합취약성 분석은 전체 면적 대비 8.51% 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 2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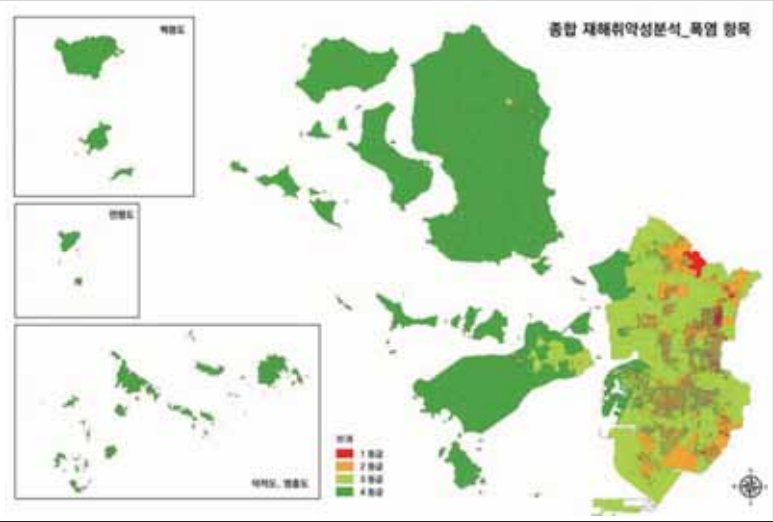
■ 강풍 재해취약성

- 강풍 재해취약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체 면적 대비 20.94% 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 2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 집계구별로 강풍 재해 취약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이 14개, 2등급이 1,156개, 3등급이 4,421개, 4등급이 316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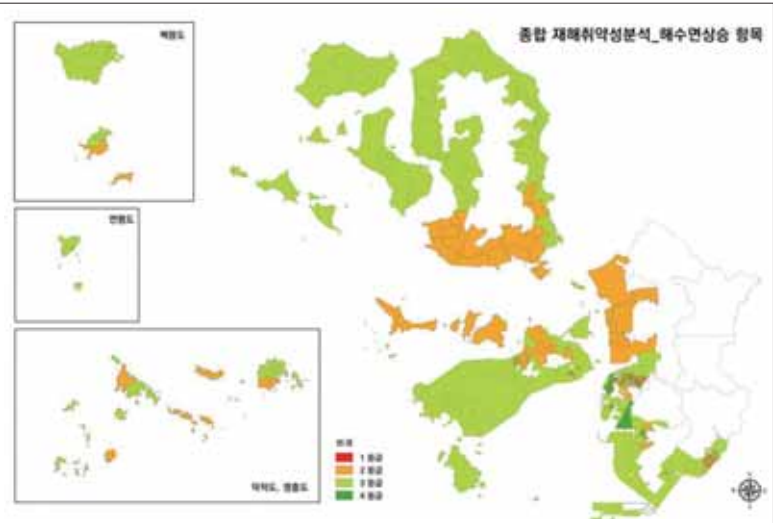
■ 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 집계구 수를 기준으로 해수면상승 재해취약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이 1개, 2등급이 249개, 3등급이 345개, 4등급이 13개로 분석되었다.
- 전체 면적 대비 1등급이 0.002%, 2등급 25.757%, 3등급 73.662%, 4등급 0.579%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1, 2등급 지역은 25.76%, 양호한 3, 4등급 지역이 74.24%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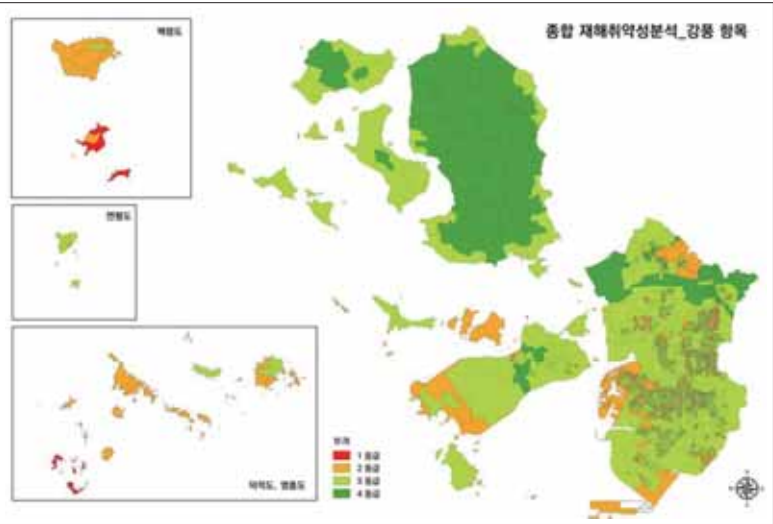
| 폭염 재해취약성



| 해수면상승 재해취약성



| 강풍 재해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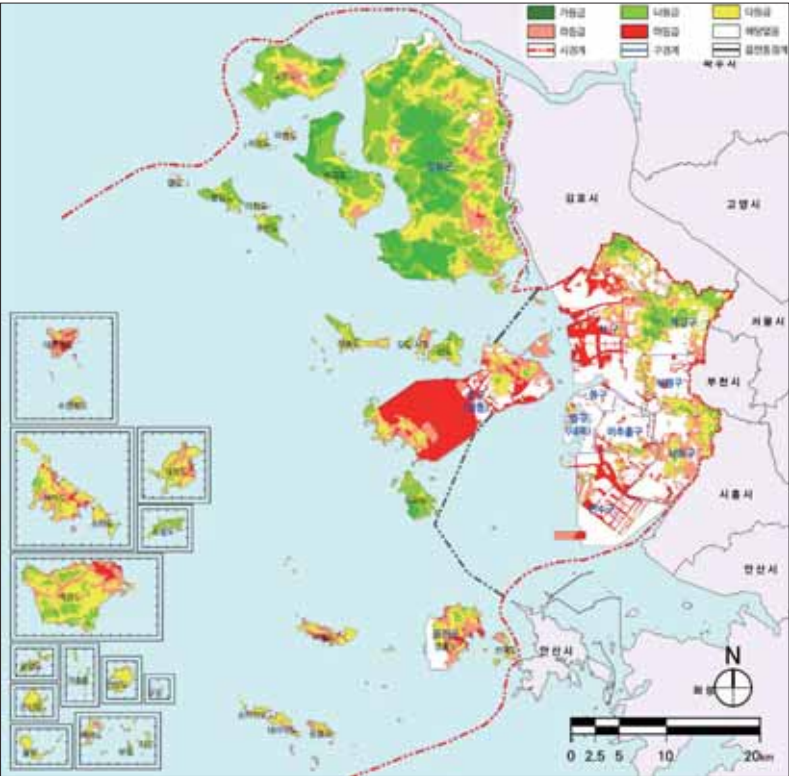


토지적성평가 결과

-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745호)에 따라,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 토지적성평가는 인천시의 강화, 옹진, 북부권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기개발지와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평가한다.
- 인천시 토지적성평가 범위는 2022년 기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민간인 통제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 등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 415,289필지, 면적 849.79㎢의 지역이 토지적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 토지적성평가는 보전 및 개발등급을 가~마 등급으로 구분하며, 보전등급은 가, 나등급, 개발등급은 다, 라, 마등급으로 분류한다.
 - 다등급 토지의 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등급이 38.71%, 개발등급이 61.29%로 분석되었다.

토지적성평가 분석결과

적성등급	필지 수	필지 비율(%)	면적(㎢)	면적 비율(%)	기준 표준화값(Zi)
가등급	23,989	23,989	91.76	10.8	$Z_i < -1.5$
나등급	112,478	112,478	237.16	27.91	$-1.5 \leq Z_i < -0.5$
다등급	147,209	147,209	270.86	31.88	$-0.5 \leq Z_i < 0.5$
라등급	101,973	101,973	140.37	16.52	$0.5 \leq Z_i < 1.5$
마등급	29,640	29,640	109.64	12.89	$Z_i \geq 1.5$
계	415,289	415,289	849.79	100	



2. 인천의 변화진단

인구 추이

- 2024년 7월 현재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3,012,997명이며, 2023년 집계된 외국인 8.1만 명을 포함하여 인천시 전체인구는 309만 명을 넘는다.
- 2024년 7월 기준, 인천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631,165명), 부평구(493,857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옹진군(20,192명), 동구(58,666명)이다.
- 인천시는 193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통계청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서 정점인구는 2037년에 312만 6천 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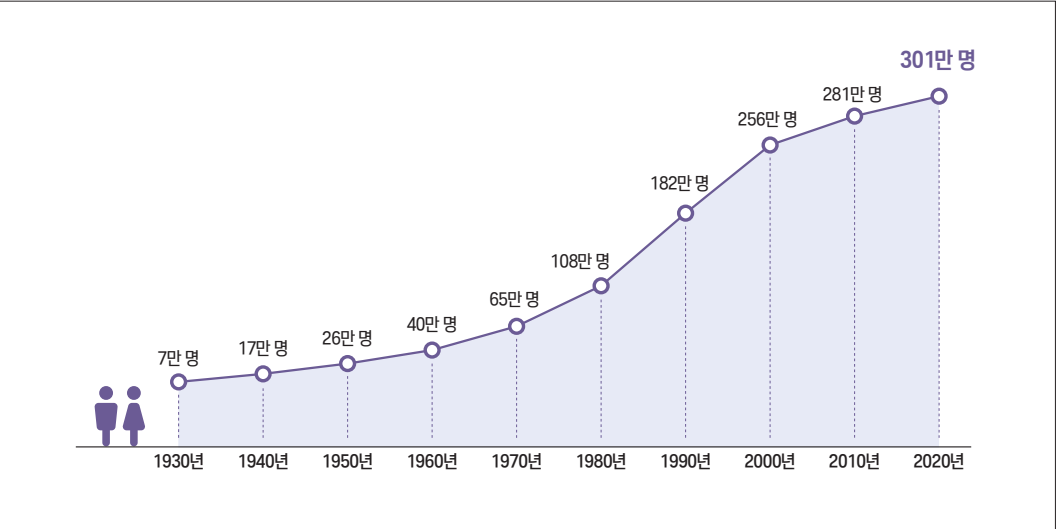
절대인구 감소

-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는 출산율을 중위값으로 예측했을 때 전국의 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도권은 2032년에 2,649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원도심 인구감소

- 인천시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특정 생활권 인구 편중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아라뱃길 북부 등 신도시 지역은 인구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인 원도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천광역시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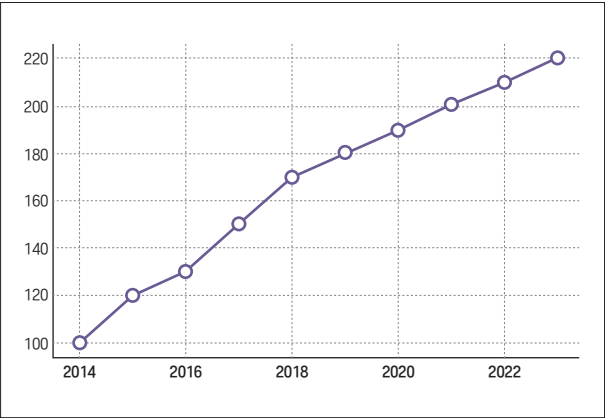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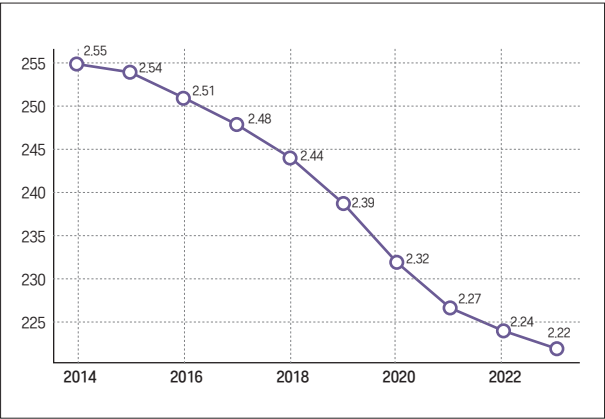
가구 수 및 가구 당 인구

- 2023년 인천의 가구수는 1,350,912가구로, 2014년 1,136,280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 가구 당 인구는 2014년 2.55명에서 2023년 2.22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총 가구수 변화 트렌드(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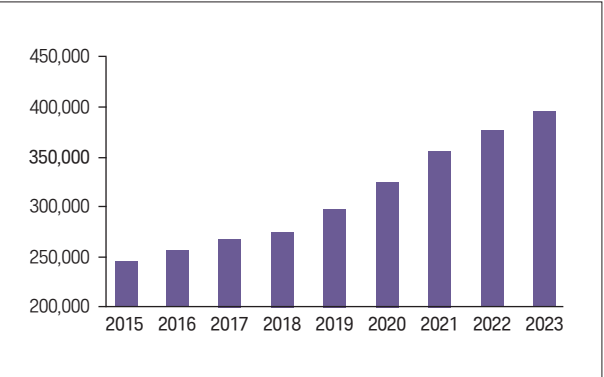
세대당 인구 변화 트렌드(2014-2023)



1인 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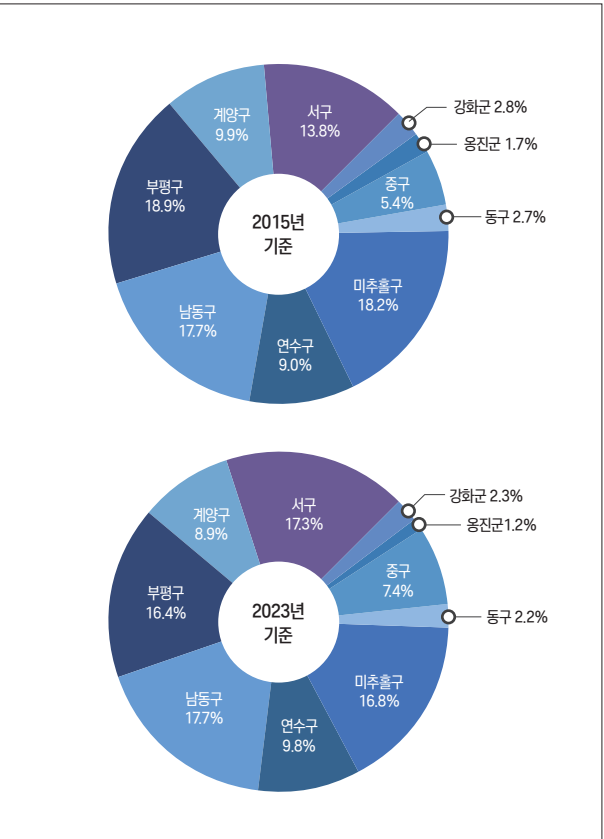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하였다.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1인 가구 변화



자료 : 통계청, 시군구별 연령별 1인 가구(2024.7.29.자료)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자료 : 통계연보,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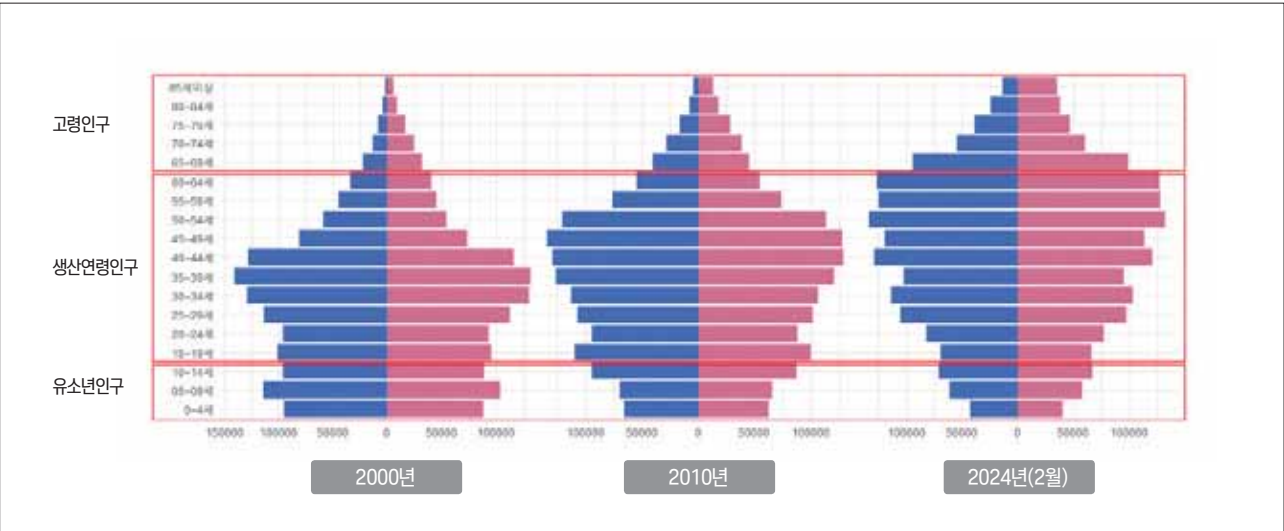
서북권 인구 증가

- 청라 경제자유구역, 검단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주택 건설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증가하는 서북권에 서는 각종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서북권의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 서북권인 서구는 2015년 인구 50만을 돌파한 이래 8년 만인 2023년 4월에 내국인 인구 약 60만 명,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면 약 61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국 자치구 중 인구 규모로는 2위이다. 확장하는 도시의 개발밀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 변화 추이

- (유소년 인구¹⁾) : 2010년과 비교하여 2024년 피라미드의 하단 부분이 좁아지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인천시 출산율은 2024년 통계청 합계출산율 기준, 0.69명으로 전국평균인 0.72보다 낮은 수준이다.
- (생산연령인구²⁾) : 2024년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인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두꺼워져 고용률 상승과 경제적 안정을 반영하고 있다.
- (고령 인구³⁾) : 2024년 피라미드의 상단이 2010년에 비해 넓어져,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를 보여준다.
- (인구 증가 추세) 인천의 인구는 2024년 기준 3,012,9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와 노동 연령층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 보급률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고령화 경향) 인구피라미드에서 상단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 (유아·청소년 인구의 감소) 피라미드의 하단부가 좁아져 유아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사회복지,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인구구조 변화



1) 유소년 인구란, 0세에서 14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함
2) 생산연령 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함
3) 고령 인구란, 65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함

- (생산연령 인구의 활용) : 인구피라미드의 중심을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경제 및 고용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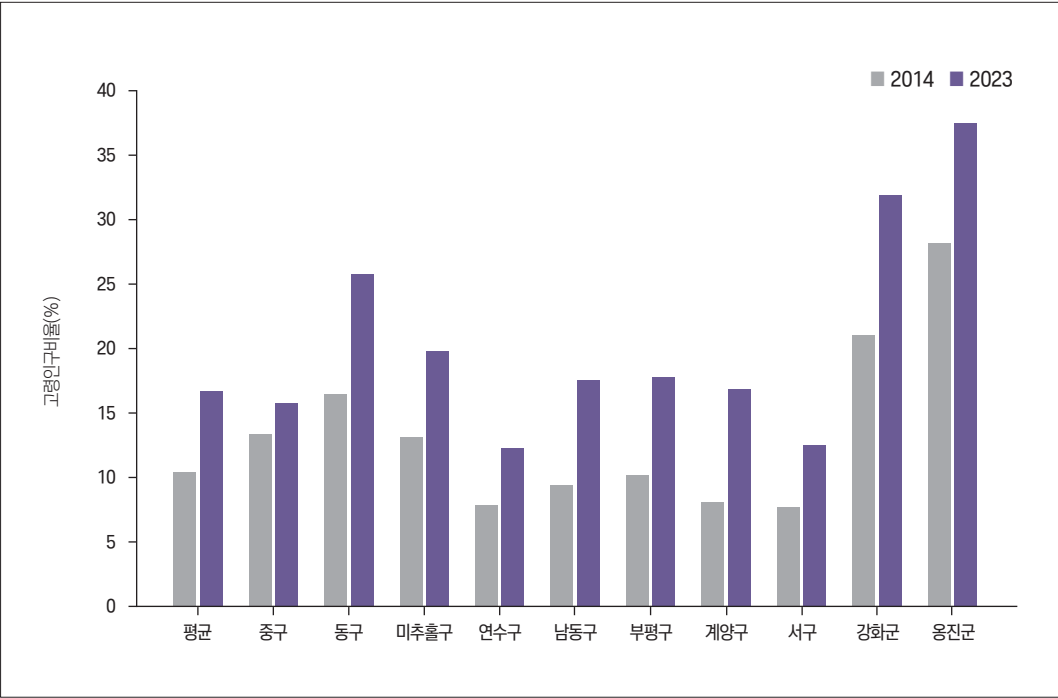
고령 인구 비율 증가

- 2023년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고령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은 강화군(37.2%), 옹진군(31.6%) 등 도서지역이 가장 높으며, 내륙지역은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 인천광역시 고령인구 비율 현황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총 인구(인)	65세 이상 인구(인)	비율(%)
인천광역시	2,997,410	497,057	16.6
중구	158,958	24,912	15.7
동구	59,482	15,240	25.6
미추홀구	405,995	79,880	19.7
연수구	392,416	47,731	12.2
남동구	492,415	85,478	17.4
부평구	494,138	87,260	17.7
계양구	280,266	47,042	16.8
서구	624,358	77,384	12.4
강화군	69,005	25,691	37.2
옹진군	20,377	6,439	31.6

| 인천광역시 군구별 고령인구 비율(2014년 vs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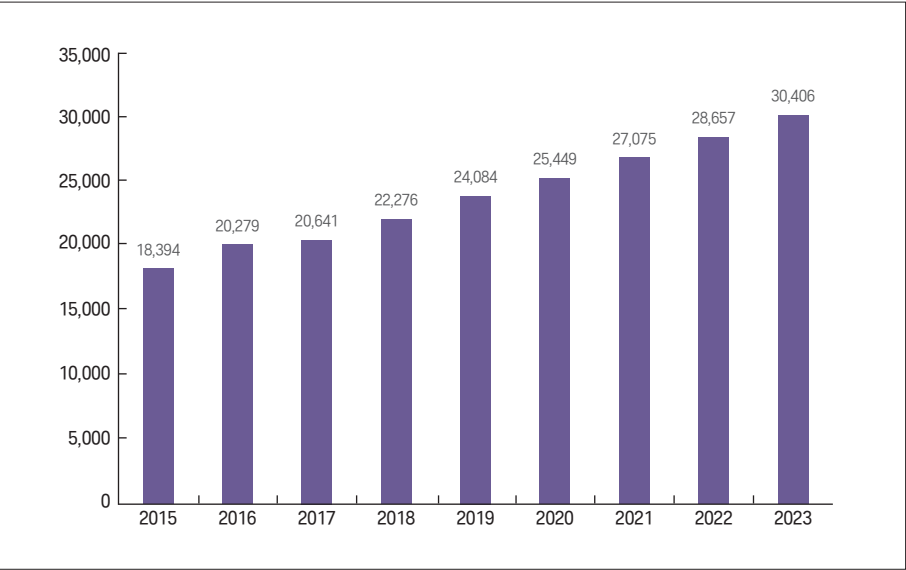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시군구별 연령별 인구 통계자료 활용

다문화 가구 비율

- 2024년 기준 현재 인천의 다문화 가구 수는 30,406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 군·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23.8%), 서구(18.9%), 남동구(16.1%) 순으로 다문화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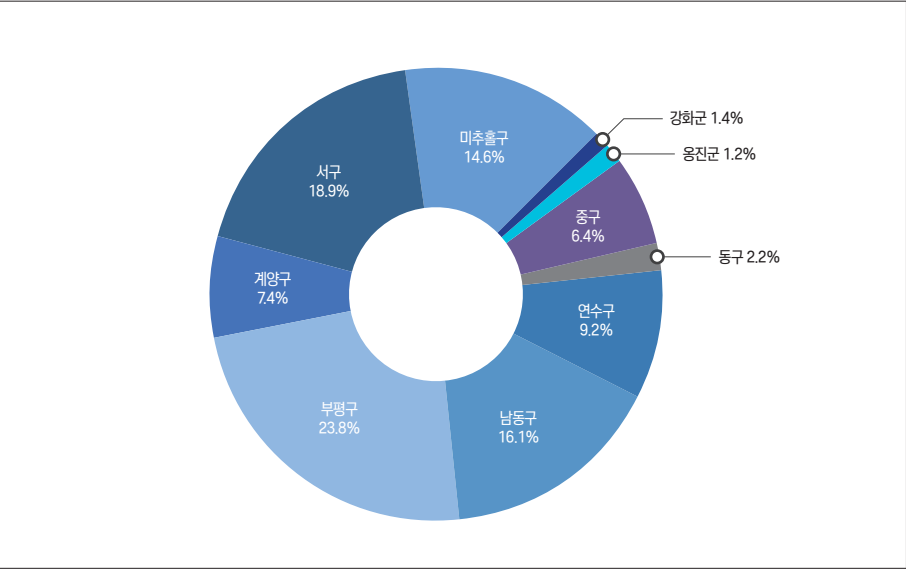
| 다문화 가구 변화



출처 : 통계청,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통계자료 활용

| 시·군·구별 다문화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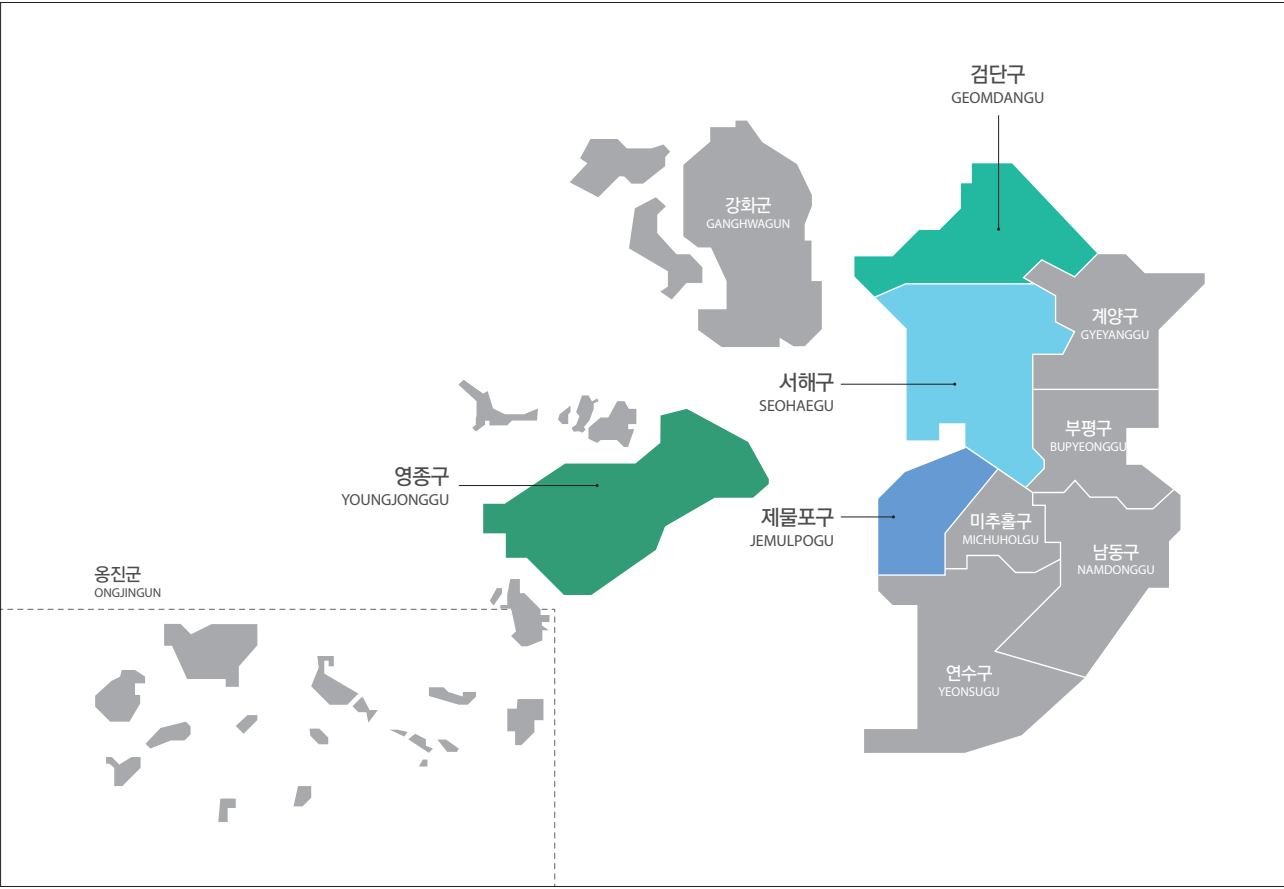
2023년 기준



행정체제 개편

-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다.
- 2026년 7월부터 중구의 원도심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중구에서 영종지역이 영종구로 분구된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이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구되어 향후 인천시의 행정체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시설로의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리적 동질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생활권별 핵심거점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신규로 출범하는 검단구와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 행정체제 개편(2026. 7.)



주택 보급률

- 인천시의 주택보급은 최신통계 시점인 2022년을 기준으로 가구수 1,212.7천호, 주택수 1,187.8천호로 주택보급률은 97.9%로 나타난다.
- 군·구별 주택 보급률은 서구 89.4%, 남동구 89.8%, 중구 91.0%, 계양구 92.3%, 부평구 94.2%, 연수구 95.1%, 미추홀구 100%, 동구 113.3%로 나타났으며, 강화군은 104.7%, 옹진군 105.1%로 나타났다.
- 내륙지역은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 고령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내부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와 항만 등 특수 목적 통행이 발생하는 지역에 철도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한다.

-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유형에 따라 교통 영향권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교통시설의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원도심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철도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확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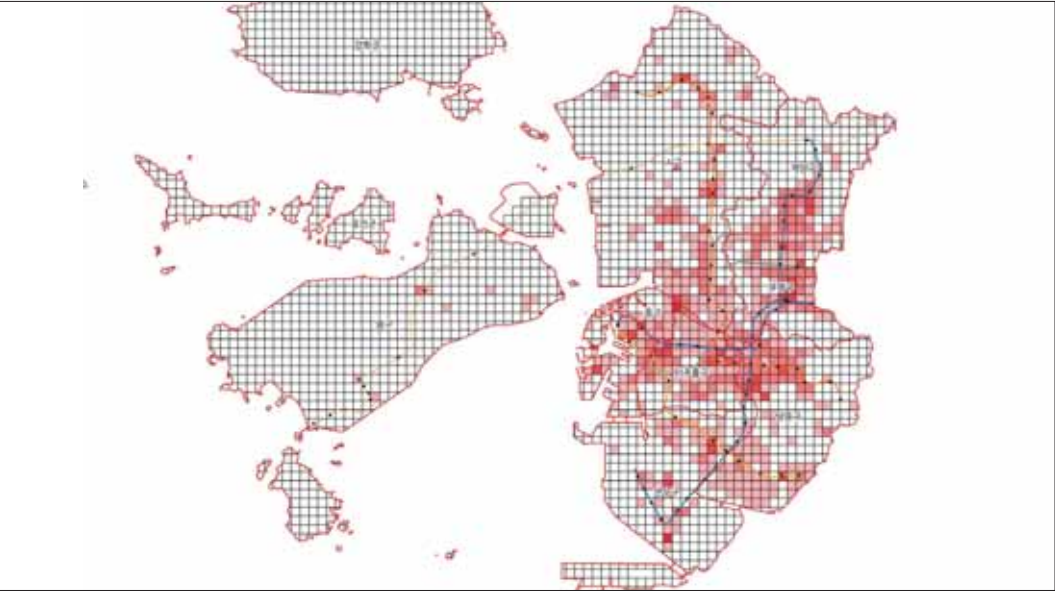
경제 및 고용

- 2021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9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조 원 증가했다. 지역총소득(GRNI)은 10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조 8천억 원 증가했다.
- 2022년 기준, 인천의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3.3%로 나타난다.

| 인천시 종사자 수 (격자500m*500m)



| 인천시 사업체 수 (격자500m*500m)



경제 기반 분석

-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측면에서 도시성장에 기여하는 기반산업(basic industries)과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ies)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기반 산업 : 주로 지역 외부로 수출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은 외부 지역에 판매해 새로운 자금을 지역 경제로 유입시키며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반 산업의 성장은 지역 고용, 소득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비기반 산업 : 지역 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의 수요를 충족한다. 이 산업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수출보다는 지역 수요에 의해 주도된다.
- 경제 기반 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는 입지상계수(Location Quotient, LQ)로, 특정 지역에서의 산업 집중도를 국가 평균과 같은 더 넓은 기준과 비교해 측정한다. LQ가 1보다 높다면 그 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국가 평균보다 더 많이 집중된 것으로 기반산업을 의미한다. 반면, LQ가 1보다 낮다면 비기반 산업을 나타낸다.

순위	산업별	LQ2011	LQ2020	비고
1	운수 및 창고업	1.44	1.52	기반산업
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7	1.26	기반산업
3	제조업	1.30	1.22	기반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7	1.18	기반산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98	1.14	기반산업
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5	1.02	기반산업
7	숙박 및 음식점업	0.98	1.00	기반산업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2	1.00	기반산업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6	0.98	
10	교육 서비스업	0.96	0.96	
11	부동산업	0.99	0.94	
12	도매 및 소매업	0.93	0.92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91	0.87	
14	건설업	0.73	0.83	
15	광업	0.74	0.81	
16	금융 및 보험업	0.74	0.70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8	0.63	
18	정보통신업	0.29	0.34	
19	농업, 임업 및 어업	0.09	0.15	

3. 대·내외 여건 변화

광역권의 확장 지속

-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50% 이하 수준에서 소폭 증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통근권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 간 경쟁과 협력의 가속화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요국 간의 수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동북아 국가 간, 도시 간 경쟁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구와 산업 시설 및 인프라와 황해축을 통한 동북아 교역 및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따른 복합물류 혁신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여 물류와 산업을 특화하는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보전과 개발에 관한 정책계획으로서 도시와 환경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 제5조)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고 각종 정보를 구축·공유하며 상호보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과 관련 계획의 점검, 평가 및 정책조정 등에 환류(feedback)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별 개발 및 정비사업

-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생활권별 개발사업에 대한 실행단계를 설정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시성장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향후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과 구체적인 개발이 지연되는 시가화예정용지 등의 운영 및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 역세권, 근린지구, 항만 및 군부대 이전적지, 역사문화지구, 항·포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비방안과 등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전환

- 도시철도 확충, KTX 및 GTX 등 광역환승체계 구축,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중심지 체계의 위계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등 지하화가 추진되는 광역간선 시설 상부는 원칙적으로 녹지와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결절점을 중심으로 거점개발을 진행한다.
-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성시가지 고도화 등 압축적 도시성장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체계 확충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등 단절된 생활권 간 연결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를 고려한 대중교통체계의 전환 및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제안된 광역거버넌스의 구축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하여 한강, 아라뱃길, 도서지역을 연계하는 지역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하는 도시철도 확장 등 다양한 광역사업에 대한 협력적 모델의 제시가 요구된다.

4. 인천의 미래 여건분석 및 진단

대내 환경 분석

- 목표 설정의 첫 단계는 대상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 변화를 분석하고 목표 설정을 위한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다.
- 내부적 여건과 외부적 여건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분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류	내용
강점 S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 교통 및 물류 허브 등 수도권 대외 거점의 역할 수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산업기반 확대 • 해양 및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레저 산업의 잠재력 •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 근·현대 역사 문화자산 보유
약점 W	•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발전, 원도심 대중교통의 비효율 •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오염 피해, 발전소 및 주변 지자체 등과 시설운영 및 축소에 대한 갈등 • 폭우재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취약성 • 반도체, 항공정비 등 신산업 부분에서의 기술 부족
기회 O	• 경제자유구역 확장 가능성, 인천글로벌캠퍼스와 혁신 허브를 통한 교육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국제기구와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 바다와 인접하여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 가능성 • 인천내항 주변재개발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원도심 거점 프로젝트 진행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군·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기대
위협 T	• 수도권 매립지와 주변지역 오염 등 환경적 이슈, 기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비수도권 낙후지역 대비 차별적 기준 부여, 지역발전 제한 • 글로벌 경제 변동성 및 국제 무역 갈등에 따른 인근 항만과의 경쟁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심화 • 남북 간 정치적 긴장 고조시 서해5도서 등 리스크 확대

분류	내용
SO 전략	•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천의 물류 허브 통합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기존의 국제 연결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 및 관광 부문을 강화 • 혁신 클러스터 촉진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바이오기술, 시스템반도체, 로봇산업 등 비교우위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 촉진하여 많은 국제 기업과 인재 유치 • 문화 및 관광 개발 : 인천공항 및 인천내항 인근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을 국제 관광객 및 문화 행사의 최상위 목적지로 전환 모색
ST 전략	• 지역 연결성 강화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국가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개선하여 서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성장을 균형 있게 조정 • 환경 리더십 : 인천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델로 전환하여, 인천신항 등에 스마트 클린 항만 기술을 사용하여 지역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완화
WO 전략	• 도시 재생 활동 : 원도심과 신개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점 추진 • 교육 및 문화 증진 : 풍부한 혁신 환경과 글로벌 캠퍼스를 활용하고 교육 시설 및 문화 기관에 투자하여 관련 분야에서 도시의 입지를 강화
WT 전략	• 인프라 회복력 강화 :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여 홍수와 폭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통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에 대응 • 경제 기회 다각화 : 제조업 및 물류산업을 넘어 서비스 및 기술으로 확장하여 산업 쇠퇴에 대한 영향을 대비

대외 환경 분석

- 대외환경 분석은 도시가 직면한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 PEST 분석은 이러한 대외 환경을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여 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적 위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분류	핵심 내용
P 정치적 환경	•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2024. 1.30.)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2024.1.1. 시행)
E 경제적 환경	• 인천국제공항 확장 : 항공기 운항횟수 역대 최대 갱신(2024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의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 부동산 시장 변동성 : 서울에서 인천으로 연평균 15,000명 유입,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미분양 위험 상존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첨단산업 집중 육성(바이오 관련 산업)
S 사회적 환경	• 고령화 및 인구 구조 변화 :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1인 가구 수 2022년 750만 가구 도달(국내) • 교육 및 문화 활성화 :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을 통한 교육 및 문화 기능 마련 • 사회적 안전 강화 :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및 종합대책의 시행
T 기술적 환경	• 교통 인프라 개선 : 인천도시철도1호선,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및 철도망 확장 • 환경 기술 발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40% 감축 목표설정, 친환경 기술 도입 강화 •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서비스 및 교통환경 조성 추진

인천형 생활권 계획 준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2024.8.7.)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중간 단계인 생활권 계획에 대한 별도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 생활권 계획을 통하여 기반시설 및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다.
-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 체육, 여가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에 대한 생활권별 적정한 공급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권역생활권 내 주거지에서 철도역, 공공시설 등의 주요 거점까지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도달거리를 기준으로 일상생활권 계획을 마련하고, 인구변동 추세에 맞게 생활권의 위계에 따라 공공시설의 적정입지를 제안하여 일상생활에서 주거와 일, 여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 근거리에서 쉽게 대중교통, 문화 및 생활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시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일상생활권 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할 수 있다.
-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거점형 생활SOC, 공공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정책과 연계하는 등 일상생활권에서 시민 중심의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확보하여야 한다.



중구 원도심

5.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국토의 발전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한다.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의 3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6가지 전략 중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 지역별 혁신적인 성장 공간 확장
 -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
- 원도심 중심의 도시성장관리 방향으로 도시를 성장 관리하고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와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 교통 및 인프라 확장의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네트워크 확장으로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개선한다.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KTX 및 GTX, 도시철도 노선 확대를 통해 환승 등의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 산업인프라 및 재생을 도모하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바이오헬스 및 로봇 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촉진한다.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항공 및 해상 운송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촉진하여 산업 인프라 및 재생을 도모한다.
- 국제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국제 크루즈산업, 인천내항 재개발, 원도심과 개항장 지역의 관광 자원화 등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 지역 협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도시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목표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중점으로 둔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관리하고 적절한 분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을 기본방향으로, 주요 목표는 균형 발전 도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의 혁신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 이에 따라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국제 물류 및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 지역을 국제 물류 허브로 확대하고 현대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산업을 촉진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 및 첨단 혁신 산업을 유치하며, 청라국제도시에서 로봇 및 소재 부품 산업을 지원한다.
- 평화 경제 벨트를 설정하여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지역의 종합 개발을 지원하여 평화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 하도록 종합적 발전을 지원한다.
-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및 검단 연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주요 도로망을 개선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항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 환경 보존을 위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비전은 “살기 좋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생과 통합의 수도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광역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개발을 강조하였다.
-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은 인천국제공항을 확장하고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를 공항복합도시로의 개발을 도모하며, 항공 MRO(정비, 수리, 운영)와 같은 산업 육성 및 호텔 및 문화 인프라 개발을 연계 추진한다.
- 강화, 김포, 시흥, 안산, 평택을 국제 물류 및 첨단 산업 벨트로 조성한다.
- 한남정맥 녹지축을 보존하여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고 여가 공간을 마련한다.
-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압축적 도시 개발을 지향하고,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인천도시철도 확장을 추진한다.
- 인천내항 주변의 개항장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오래된 항만과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개발한다.
- ICT 기반 교통, 탄소 감축, 복합·환승센터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대중교통 네트워크 등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한다.



인천내항 7부두 사일로

6. 시민계획단 의견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 도출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시민계획단에서 도출한 인천광역시의 미래상은 “시민 중심의 국제 문화 해양도시 인천”이다.
- 미래상은 다양한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인천을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 있는 해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합의된 미래상의 의미

- 인천이 가진 독특한 지리적 이점과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와 해양 도시로의 변모를 목표로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 시민계획단은 앞으로 인천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① 시민 중심의 도시 개발
모든 도시 개발 및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거, 교육,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②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인천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 ③ 해양 관련 산업 및 관광 활성화
인천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해양 관련 산업 발전과 해양 관광을 촉진하여,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항과 같은 기존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양 레저 및 관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제2절 2040년 인천의 미래상 설정

미래상 변경

-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시민,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인천광역시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꿈꾸는 미래상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였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바탕이 되었다.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는 기존의 시민계획단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미래상에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을 일부 수용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정책내용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과 연계하고 시민계획단에서 도출된 2040년 인천 미래비전을 토대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변경하였다.

Ⅰ 2040년 인천의 미래상 변경

“**시민중심의 국제·문화·해양도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합의된 시민계획단의 미래상 제안 (2019.10.)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미래상 및 발전목표 (2023. 7.공청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
‘어디서나’ 고르게 균형발전 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항만, 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도시’

미래상의 의미

- 균형 발전 (“어디서나”)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 중점을 두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강조한다. 도서지역 및 노후 지역과 신규 개발지, 도시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 등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 삶의 질 (“살기 좋은”) : 공공 안전, 문화 시설, 교육,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시민의 전반적인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도시경쟁력 (“글로벌 도시”) : 일자리 창출, 산업 다각화,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활기차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한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변화

구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미래상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
핵심가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국제도시 위상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지역 간 원활한 연결과 균형적 발전 삶의 질·지속 가능성 향상 좋은 일자리, 활기찬 경제 발전
수립과정	시민계획단 미래상 제안, 시정정책방향 등을 고려	시민계획단 미래상, 국가 정책방향 상위계획 검토에 따른 수정·보완



제3절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기본구상

- 미래상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 국내·외 도시 비교,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해 3대 목표 및 9대 핵심전략과 30개 실행계획을 설정하였다.

목표1 “어디서나” – 지역 간 원활한 연결과 균형있는 발전

-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동일한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연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목표2 “살기 좋은” –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 향상

-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기반시설, 교통, 환경, 주거, 교육, 방재·안전,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3 “글로벌 도시” – 활기찬 경제 발전(Vibrant Economic Development)

- 경제 성장과 혁신 육성에 중점을 두고 특화산업 개발과 인천의 전략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미래상(목표)	핵심 전략		주요 내용
어디서나 (균형 발전)	1	편리한 일상생활권과 유연한 토지이용 제도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지구, 신개발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핵형 공간구조 등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창출한다.
	2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등 신개발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향상한다.
	3	도서지역 강화·웅진 특화 및 발전 증진	서해5도서 등 접근성 개선과 비도시 지역의 개발 촉진을 통한 도서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	4	빠르고 편리한 인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서울, 경기 수도권 등 광역적 연결성을 높이고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5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도시환경 개선	종합적인 자원순환 시스템과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한다.
	6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체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글로벌 도시 (도시경쟁력 확대)	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구조 조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을 집중 개발하고 창업을 지원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와 혁신을 추진한다.
	8	스마트 공항과 항만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해 국제 무역을 강화하고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한다.
	9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 구축	인천만의 풍부한 해양·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과 문화에 집중하여 방문객과 시민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핵심전략 1

편리한 일상생활권과 유연한 토지이용제도 운영

■ 배경

- 인천은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중 면적이 가장 큼 (1,381.348㎢)에도 불구하고 도(道) 내 시·군과 같이 2단계 도시계획 체계로 운영하여 일상 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불가능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411.42㎢, 옹진군 170.95㎢, 중구 140.37㎢, 서구 119.06㎢, 남동구 57.45㎢, 연수구 56.19㎢
 - 경기도 시흥시 139.94㎢, 수원시 121.10㎢, 부천시 53.46㎢
- 2024년 2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원도심, 신도시, 강화·웅진 비도시지역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삶의 다양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었다.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인 생활권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권역생활권 단위의 기본 구상과 일상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등 도시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 중심지 위계에 맞춘 역세권 거점 설정과 입체복합개발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혁신제도가 마련되었다.

- 따라서 집적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축과 원도심 도심기능 쇠퇴에 따른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해 도시 공간 다각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다.

- 다핵분산형 네트워크 공간구조와 경제자유구역 등 전략 지구를 활용하여 신개발, 원도심, 비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창출한다.

■ 전략 1-1. 거주-일-여가가 해결되는 일상생활권 계획을 구축하고, 거주, 업무, 생활서비스, 건강, 교육 등 필수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근거리 다핵네트워크 구조를 실현한다.

- 기존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2단계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계 체계로 개편하여 인천광역시의 권역별 특성에 부합한 계획체계

를 마련하고, 주민과 군·구의 참여 하에 도시정책의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인구증감 추세와 중심지를 감안하여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생활 편의시설의 입지를 적절히 배치하고, 권역별 생활권 체계를 보행·일상생활권, 근린생활권 등으로 위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 분산된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역세권 등 주요 거점에 집중하고, 대중교통망을 강화하여 거점 간 원활한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일상생활권의 기반을 마련한다.

■ 전략 1-2. 다핵형 공간구조를 구축하여 각 중심지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어 도시 내 효율적인 기능 분담과 원활한 연결을 실현한다.

- 지역 간 기능의 충돌을 줄이고 광역적 차원에서 생활권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별 도시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생활권별 중심지를 조성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부여하여 자족성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성을 높이며, 이에 맞는 인구와 토지이용을 배분한다.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 등 공간혁신제도를 활용한 역세권과 중심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 전략 1-3. 신개발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용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원도심과 신도시 등 인구 분포와 개발밀도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권역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근린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을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 매립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토지는 우선적으로 보전용도를 부여하고, 투자유치나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 수립 시 이에 부합한 용도를 부여한다.

핵심전략 2

원도심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 배경

- 인천의 인구는 과거 5년(2018년~2023년) 간 연평균 1.21% 증가하였지만, 원도심인 동구(-9.7%), 남동구(-7.83%), 부평구(-7.01%), 계양구(-9.76%) 감소하여 지역별 발전의 차이가 크다.
- 원도심 쇠퇴로 인한 청년인구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심화, 산업 약화 및 상권 침체, 도시정비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심화하고 있어, 원도심 노후주택과 도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
-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 또한, 도시 외연 확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 성장과 비효율적 공간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대개조와 도시공간의 기능적·물리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 계획 수단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 그리고 노후 국가기반 시설 상부공간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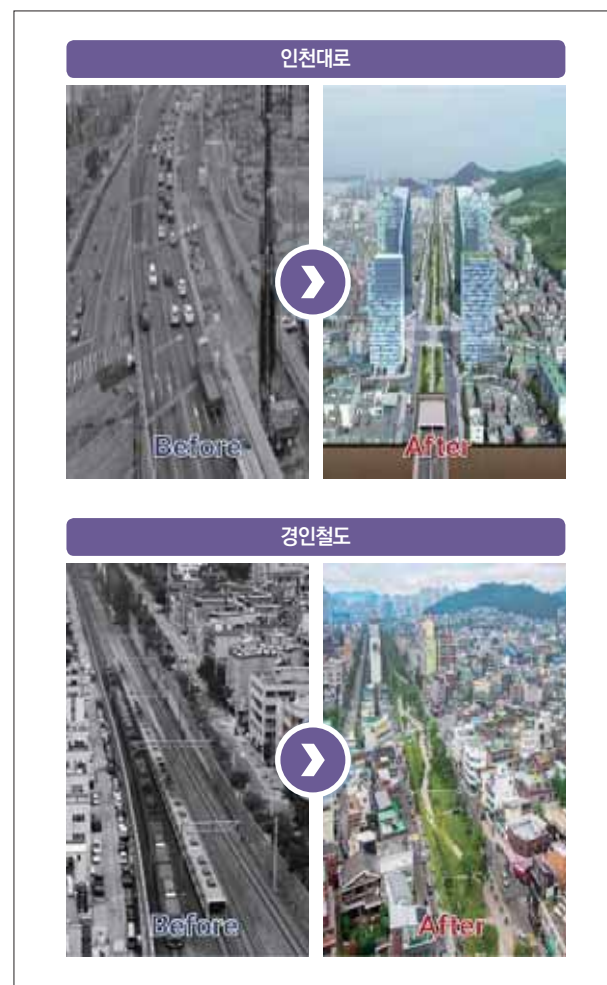
■ 전략 2-1. 경인전철 지하화와 인천대로 중심의 환승·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상부 입체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기반시설의 구조를 재편하고 현대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
- 인천대로 일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원도심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과 상업·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간 교류를 촉진한다.
- 동서로 가로지른 기반시설로 인해 남북간 교통 비효율을 해소하여 신도심과 원도심 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균형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도시철도와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한다.

■ 전략 2-2.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 기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 원도심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재구축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정비 및 개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빈집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완전가로(complete streets)를 구축하여 사회적 교류와 지역 중심의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대로개발과, 인천뉴스(2025.5.1.), 내 손안에 서울(경의선 숲길)

- 노후계획도시, 원도심 지역의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사업을 확대하여 IoT 기술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원도심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 전략 2-3. 원도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신도시와 원도심 간 불균형을 해소하되, 원도심 내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응집력 있고 활기찬 활동을 유도한다.
- 인천의 주력 산업인 항만·물류와 연계한 공업지역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주거지역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특별정비구역 내 상업·문화·주거 복합 개발 모델을 도입하여 원도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권체제와 기반 시설을 고려한 통합 정비를 유도한다.

핵심전략 3

강화, 옹진 등 섬지역 특화 개발과 지속가능성 강화

■ 배경

- 도서지역의 활력 있는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등 생활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2022.12. 백령공항 건설 확정으로 서해 5도서 지역에서 전국으로의 이동시간이 2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부터 모든 시민이 강화군과 옹진군 2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하고, 전 국민이 정규운임의 30%로 섬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 2023. 6. 9.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강화·옹진 인구감소지역의 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인천의 섬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일상적인 고립과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강화·옹진 도서지역의 자연환경,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전략 3-1. 백령공항 건설 등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한다.

- 백령공항 건설과 여객선 지역 주민 보조금 확대 등을 기반으로 서해5도서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기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서해5도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도서지역 항로 확충과 여객선 및 도로 기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도심-도서”, “도서-도서”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과 물류 이동을 활성화한다.
- 백령공항을 인천공항과 연계하여 UAM(도심항공교통) 노선을 구축하고,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연결하여 여객, 관광, 물류 이동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 전략 3-2. 강화남단 등 기회발전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의 연계를 통한 섬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

- 영종국제도시와 강화남단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과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성장 촉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 강화남단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남단의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며, 신산업공간(그린바이오), 웰니스(해양치유지구), 해양관광 기능 특화 등을 포함한 향후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 강화남단을 연결하는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간 경제적 협력 및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전략 3-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 섬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과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한다.
 - 지역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관광지, 생태 관광지, 휴양형 관광단지 등으로 특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생활권별 특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섬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핵심전략 4

빠르고 편리한 인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배경

- 대도시권 교통수단 간 연계와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승시간 단축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 대중교통 활용도가 낮아 자가용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은 개선되고 있으나[원도심 주차장 확보율 41.5%(‘22년) → 48.5%(‘24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원도심에서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편리한 균형 발전 도시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아라뱃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 체계를 도입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종합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 전략 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및 인천발 KTX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원도심 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물류 및 여객 교통망을 국가 간선교통망과 연결하여, 인천 중심의 교통망 체계를 확충한다.

- 부평, 인천시청, 인천대입구, 검암역 등 주요 환승 결절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 수단을 통합하여 통근과 통학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 도시철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버스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 생활권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 4-2. 복합환승거점과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지원하고 통학 및 통근 등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집력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인천 순환도로 확충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월(인천 터미널)과 서북부(검암역)를 중심으로 종합터미널 등 통합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도시권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조성하여 지역거점을 형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시설과 보행네트워크의 연계 배치 고려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 전략 4-3. 인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등 첨단 교통기술을 도입하여 철도-도로-항공교통의 3차원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및 혁신적인 교통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교통 시스템을 지원한다.
 - UAM이란, Urban Air Mobility의 약어로 도심 항공 교통을 의미하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도심 교통 체계를 말한다.
- 대중교통 결절점(철도역)과 연계한 복합환승체계 마련하여 환승편의 향상시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 첨단 교통 기술을 수용하고 인천이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UAM 시스템 구축, 전기 및 자율주행차의 보급, 혁신적 교통 기술을 통합한다.

■ 전략 4-4.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첨단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 주요 거점에 교통 환승 허브(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MaaS*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승 편의성 등을 향상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 최적의 경로 제공(환승 대기 시간 감소 등)과 단일 플랫폼을 통한 교통수단 통합 결제 등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예시] 이용자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한 후,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경우, 각 교통수단마다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대신, 단일 플랫폼을 통해 통합된 금액으로 이용료를 결제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첨단 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향상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여, 모의 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해 첨단 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핵심전략 5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도시환경 개선

■ 배경

- 폐기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한다.
- 종합적인 자원 순환 시스템과 녹지공간의 확장을 통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 도시의 자연 환경을 살리고, 바람길을 조성하여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전략 5-1. 자원순환센터 설립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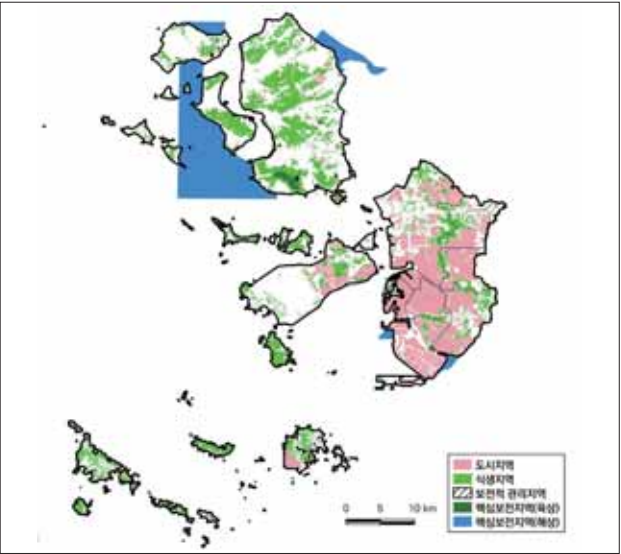
-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지원,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배출원 맞춤형 감량 정책 등을 통해 폐기물 사전 감량을 추진하고, 광역 자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 인천 녹색기후 관련 복합단지 및 클러스터(수도권매립지 및 환경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서북부를 세계적인 환경 산업 및 연구 중심지로 육성한다.
- 녹색기후 분야 국제기구와 연구·금융기관을 집적화하고, 국제회의장 및 교육·전시·교류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도시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 전략 5-2.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종합적인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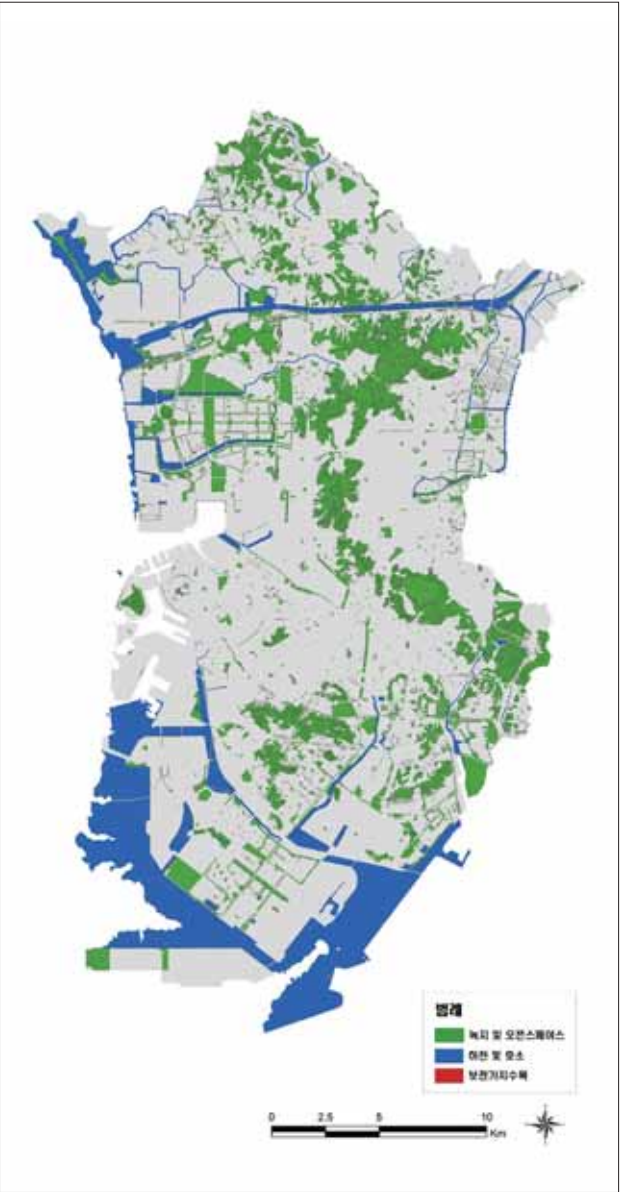
- 한남정맥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공원으로 연결하여 인천 전역에 종합적인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식생이 우수한 녹색공간을 이어 산림생태축을 형성하며, 서해연안, 갯벌,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연안·하천 생태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 인천의 녹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식생 지역, 자연녹지지역, 비오름 1등급지역, 육상 및 해양 핵심보전 지역, 보전적 관리지역(강화옹진) 등의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단절된 녹지를 이어 주고,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인천대로 상부와 같이 녹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인천시 생태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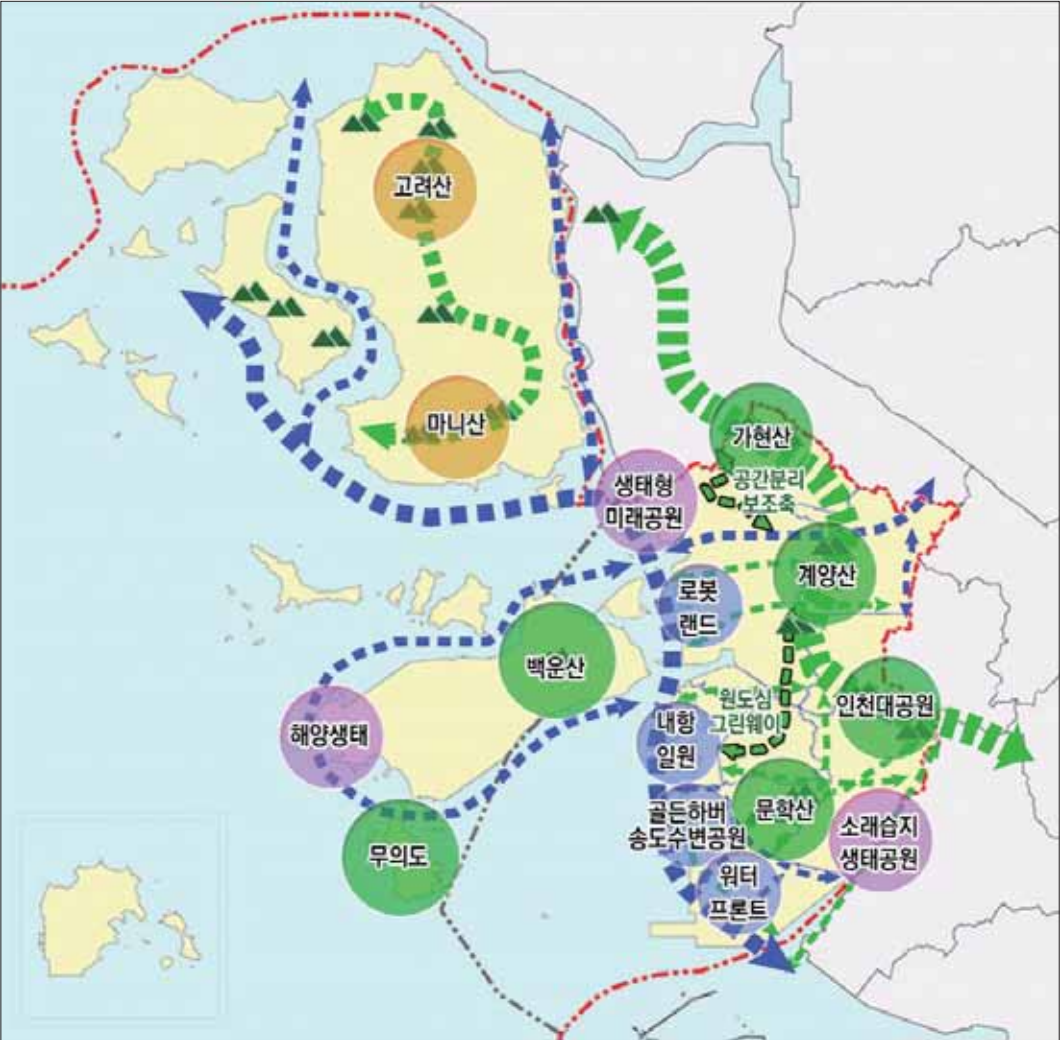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분포



인천시 녹지네트워크(산림생태축, 연안-하천생태축) 현황



인천시 공원·녹지 연계 네트워크 구성도



- 전략 5-3. 대기 및 소음 공해를 해결하고,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 최신 스마트 환경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음 저감 전략을 실행하여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 회복력 있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림 기능 회복력을 강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핵심전략 6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체계 강화

■ 배경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13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합의(제48차 IPCC 총회, 2023년)했으며, 정부는 중간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여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다.

-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온실가스 리스크를 반영하여 공간계획 측면에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도시 구축 및 재해대응 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탄소중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과 방재 안전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추진한다.

- 풍수해 대비 기후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남정맥 녹지축과 인천숲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확대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 전략 6-1.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통해 탄소중립 및 탄소저감 정책을 실현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석탄 화력발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감축을 이루도록 한다.
 - 2018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국 5위(74,813천톤 CO2-eq)로, 발전과 산업 분야에서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75.6%를 차지(2045 탄소중립 전략계획).
- 화석 발전 등 탄소배출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다.

-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촉진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여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 철도망, 환승센터,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정책(1패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한다.

■ 전략 6-2.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재난 예방 대응정책을 마련한다.

- 재난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훈련 및 비상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 대응력을 증진한다.

- 기반시설 재해 예방능력과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피난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하며 평상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

- 장애인, 고령자,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 전략 6-3. 환경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마트 항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주택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미래형 에너지 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스마트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항만 운영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며, 친환경 하역 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규제, 수소 항만 육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핵심전략 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구조 형성

■ 배경

- 인천은 기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시의 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로컬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지로, 인천은 이들 인프라를 통해 세계 도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프라적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과 미래산업을 결합하면, 경제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신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은 미래산업을 수용하고, 해당 산업에 맞는 인프라와 정책을 마련하여 입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전략 7-1.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헬스, 항공MRO, 로봇 등 고부가가치 산업지구로 육성한다.

-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헬스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관광서비스 산업과 스마트제조 산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첨단 항공 정비(MRO) 등 항공·복합물류 산업, 관광서비스 산업, 자유무역지역 등 국제적인 공항경제권 모델을 선도한다.

- 청라국제도시는 로봇 실증지원센터와 미래차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로봇 및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 전략 7-2. 원도심의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 남동, 부평, 주안 산업단지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 기계산업단지, 검단 뷰티풀 파크와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킨다.

■ 전략 7-3.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로봇 등 첨단미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업별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 및 학술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첨단 미래산업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로봇, 바이오, 반도체, UAM, SW융합, 지역 R&D 플랫폼, 창업벤처, 수소산업, 농촌융복합산업 및 미래차 산업을 융합하여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AI 혁신 생태계 트리플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테크노파크를 연계하여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W) 융합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AI 거점 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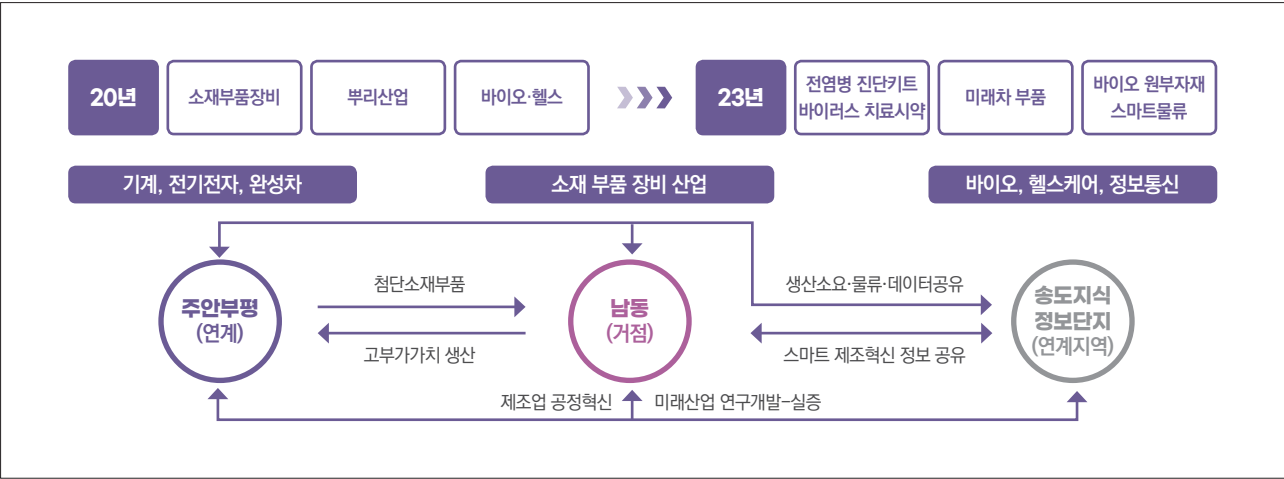
- 물리적인 창업 지원 센터의 설립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 전략 7-4.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분산하고, 경제 기반의 다변화를 촉진하여 균형 잡힌 성장 환경을 만든다.
-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총 7개소)를 기업이 일하기 좋고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정보공유, 기존 전통제조업과 지식기반(연구) 클러스터를 상호 연계한 지역 혁신형 산업 벨트 구축 등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지역의 상생형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동, 부평 등 국가산업단지와 검단 뷰티풀 파크를 중심으로 공원, 주차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는 지원공간, 산업인프라 업그레이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확대한다.

▶ 노후 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준공년도	경과년도
국가 산단	부평	1969년	54년
	주안	1974년	49년
	남동	1997년	26년
단지명		준공년도	경과년도
일반 산단	인천기계	1971년	52년
	인천지방	1973년	50년
	강화하점	1994년	29년
	인천서부	1995년	28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5. 7.) 일부 수정

핵심전략 8

스마트 공항과 항만 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배경

- 인천은 서울 근접성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네트워크 확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해 공항과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글로벌 물류 및 항공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천을 글로벌 항공 및 해상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로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및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스마트 항만과 공항의 구축에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및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전략 8-1.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한다.

-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확장, 항공 MRO 산업 확장, 자유 무역지대 단계별 확대 등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첨단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항만별 특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국제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 전략 8-2. 인천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여 효율
적인 물류와 글로벌 무역을 지원한다.

- 해상-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로 항만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항만 기술을 도입한다.
-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항만 운영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 항만운영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항만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인다.
-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항만별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공항·항만을 연계한 국제물류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전략 8-3. 해양-항공(Sea&Air) 물류를 구현하여
종합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 해상과 항공 물류를 결합하여 종합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망을 개선한다.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반의 통합·통관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하역절차 축소를 통해 환적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복합 운송 물류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항공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 인천공항-인천항과 연계한 Sea & Air 화물 물류의 지속적 증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확대조성하여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핵심전략 9

다양한 인프라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 구축

■ 배경

- 인천은 개항장, 역사, 문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각각의 고유 특성을 살려 발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 특히, 수도권 내 중요한 위치와 글로벌 교통망을 갖춘 인천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활기차게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지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I 중구 개항장



■ 전략 9-1. 수변 지역과 해양 친수 공간을 개발하여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인천 내항, 남항 등 항만의 기능 재편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수변공간을 재개발하고, 재개발 지역과 주변이 함께 성장하여 도시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의 크루즈 항로와 연계하여 웅진 연안권 마리나 및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 연안 도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서해-아라뱃길-한강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고, 섬 관광명소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한다.

■ 전략 9-2. 해양 역사문화 허브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해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관광과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국립 해양박물관 등 해양 관광과 문화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해양과 주변 지역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 전략 9-3. 수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발히 촉진하고, 워터프런트 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의 매력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 인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물환경 기반 레크레이션 공간과 워터프런트를 조성한다.
- 아라뱃길 등 시민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발굴한다.
- 지속 가능한 물환경을 고려한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인천대교(자료 : ChatGPT 생성)

III

제3장 부문별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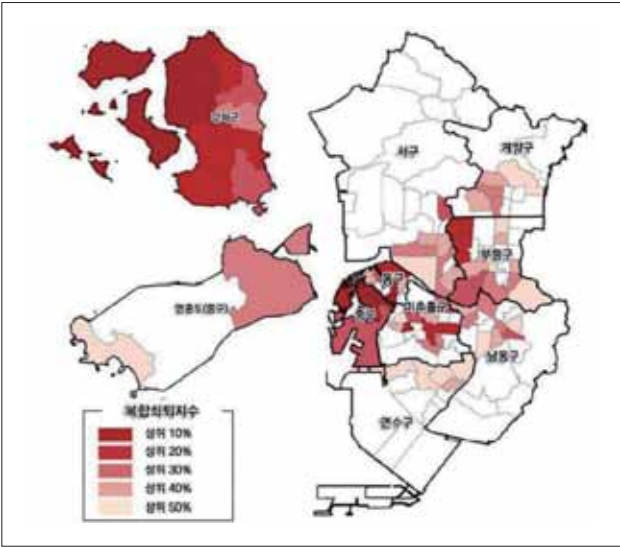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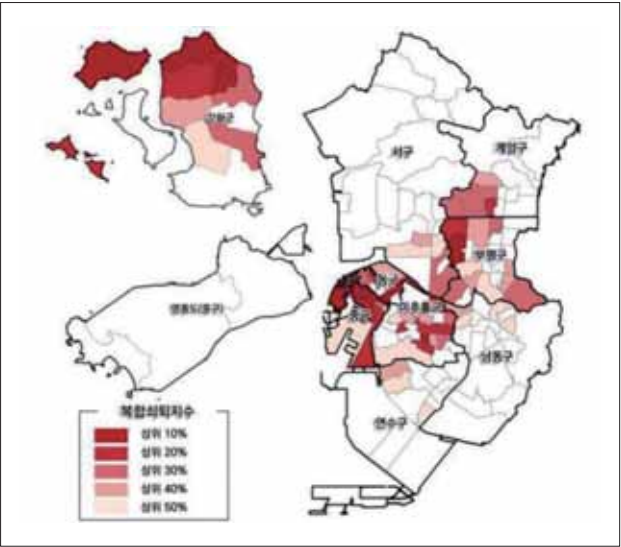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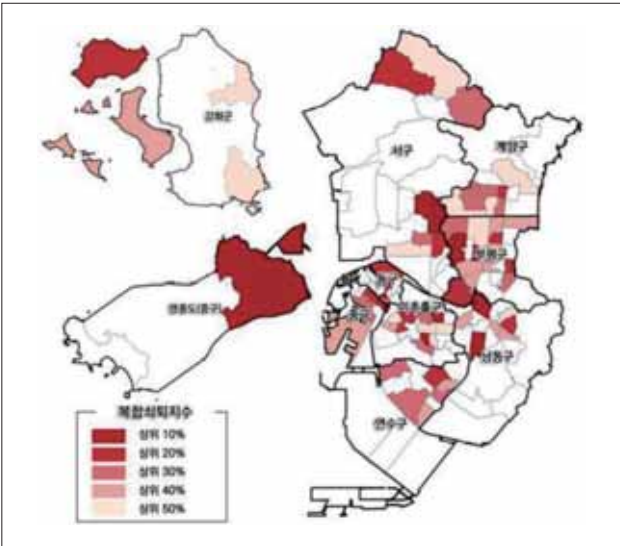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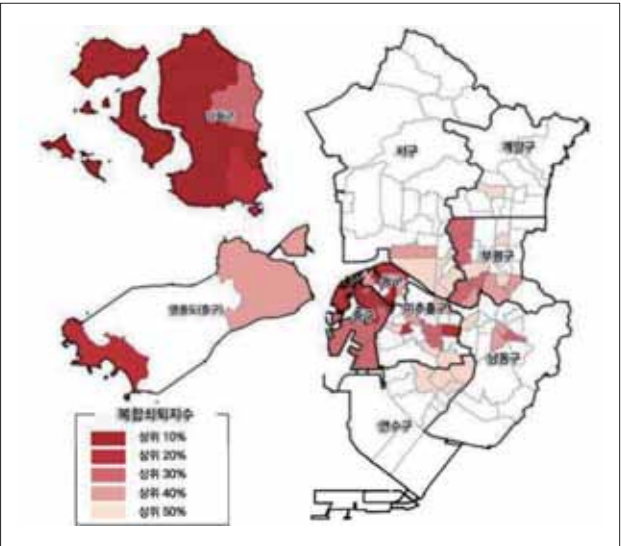
- 056 제1절 도심 및 주거
- 070 제2절 교통 및 물류
- 084 제3절 탄소중립 및 방재
- 092 제4절 산업 및 경제
- 098 제5절 문화 및 관광
- 105 제6절 건강 및 복지

제1절 도심 및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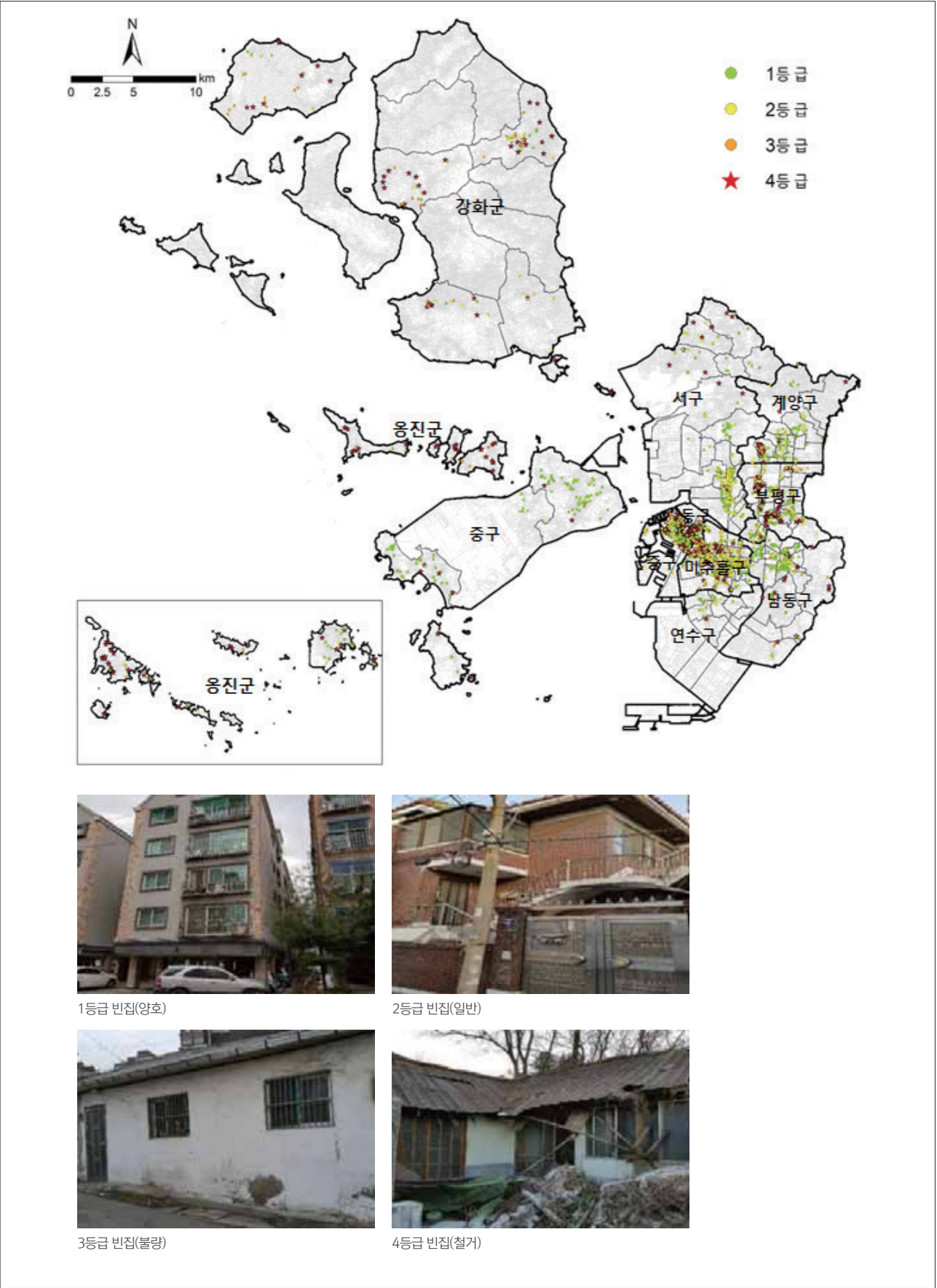
1) 개요

- 원도심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 등의 노후화가 높으며 점차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노후화, 빈집 증가, 기초 생활 인프라의 부족 등 도시쇠퇴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원도심과 신개발지의 균형적 발전과 연계성의 개선, 도서 지역의 활성화, 주거지정비 및 재생사업, 수변도시 조성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적인 전략, 실행 계획을 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한다.

쇠퇴진단



빈집 분포 현황



2) 주요 목표 설정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 프로젝트

- 인천내항과 중구·동구 원도심 활성화, 동인천역과 주변 지역 개발, 개항장 특화,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개발 사업 등을 통한 주거와 상업 복합개발, 제3보급단 및 캠프마켓 군부대 이전 등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인천대로, 경인전철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입체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공간혁신구역 등을 도입하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신개발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관리

- 생활권계획 및 권역별 개발 관리,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 주택용지 공급 확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신개발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 지하화를 통한 단절된 지역 연결

-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도시철도망 확충, 남북 도로망 강화 등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계를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강화한다.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자료 : 인천대로개발과

- 경인선 상부공간 중 부평, 주안, 동인천 등의 역세권을 현재의 역세권보다 넓게 설정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의 광역 역세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강화, 웅진 등 도서 지역 활성화

- 전략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도서 지역을 활성화한다.

주거지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노후화된 지역을 개선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인천형 주민참여 스마트 주거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임대 주택 공급과 포용적 주거 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 약자를 돕는다. 또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수변 및 친수도시 조성

- 아라뱃길과 주변 지역 활성화, 해양 친수 공간 조성, 해안가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및 대체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수변 도시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 인천시에서 실행 중인 도심 및 주거 관련 계획

전략적 목표	주요 프로젝트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 프로젝트 추진	• 인천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재생 • 동인천역 주변 전면 개발 및 개항장 특화 • 제물포 Station-J를 통한 주거와 상업 복합개발 • 제3보급단 및 캠프마켓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신개발지 성장 관리	• 생활권계획 및 권역별 개발 관리 • 공공 주택용지 공급 확대 • 인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활성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 지하화를 통한 단절지역 연결	•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 도시철도망 확충 • 남북 도로망 강화
강화, 웅진 등 도서 지역 활성화	• 전략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계획 마련
주거지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정비사업 활성화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 인천형 주민참여 스마트 주거 재생사업 •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및 포용적 주거 급여 지원 •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수변 및 친수도시 조성	• 아라뱃길 및 주변 지역 활성화 • 해양 친수 공간 조성 • 해안가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및 대체 시설 설치 확대



아라뱃길(아라천)

3)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1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 프로젝트 추진

■ 배경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거점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 전략 1-1. 인천내항을 거점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 인천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하여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주변 지역은 원도심인 중·동구 일대로, 2026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제물포 지역의 중요 거점으로 개발한다.
- 복합문화공간, 미디어 전시관, 문화행사장,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 재개발 과정에서 항만 기능을 재배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한다. 해양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K-컬처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한다.

■ 전략 1-2. 동인천역, 부평역 등 주요역 주변 복합개발 추진

- 인천대로 주변 또는 경인전철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혁신거점 조성 및 활력 증진을 통해 도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심기능을 육성한다.
- 동인천역 주변을 복합 전면 재개발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한다. 북광장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남광장은 북측과 연계한 개발 구상을 진행한다. 동인천역 일대를 복합적으로 정비하여 보행권 내 다양한 활동을 촉진한다.
- 선도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한다. 주변 상권, 중앙시장 등 원도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파급효과를 도모한다.

인천원도심



동인천 북광장



■ 전략 1-3. 개항장 특화 활성화

- 개항장과 개항광장, 제물포구락부 등 역사 문화 공간을 특화하여 관광 및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개항장 근대 건축자산을 활용하고, 동선을 연계하여 산책로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 ‘내항재생권’을 활용하여 해양역사 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하고, 개항장 내 “1883 개항살롱” 등 현장 운영센터 및 시민 소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유지한다.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에 특화된 관광플랫폼을 운영·관리한다.

■ 전략 1-4.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한 주거와 상업 복합개발

- 제물포역 주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주거와 상업에 복합 개발한다. 핵심 거점 시설로 ‘영스퀘어’와 ‘제물포담소’를 조성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진행한다.

- ‘영스퀘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의 SW진흥단지 앵커시설로 조성하고, “제물포담소”는 주민공동이용 시설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연도별 사업을 적시에 추진한다.

■ 전략 1-5. 제3보급단 및 캠프마켓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균형 발전

- 제3보급단, 캠프마켓 등 기능이 다한 원도심 내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한다. 캠프마켓은 원도심의 중요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토양 정화와 거점 경관 확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즐겨찾는 공원으로 발전시킨다.
- 507여단 등 과거 군사시설 부지를 개발하고 부개동과 일신동 군부대 이전 부지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캠프마켓



자료: 군부대이전개발과

목표 2 지속 가능한 신개발지 성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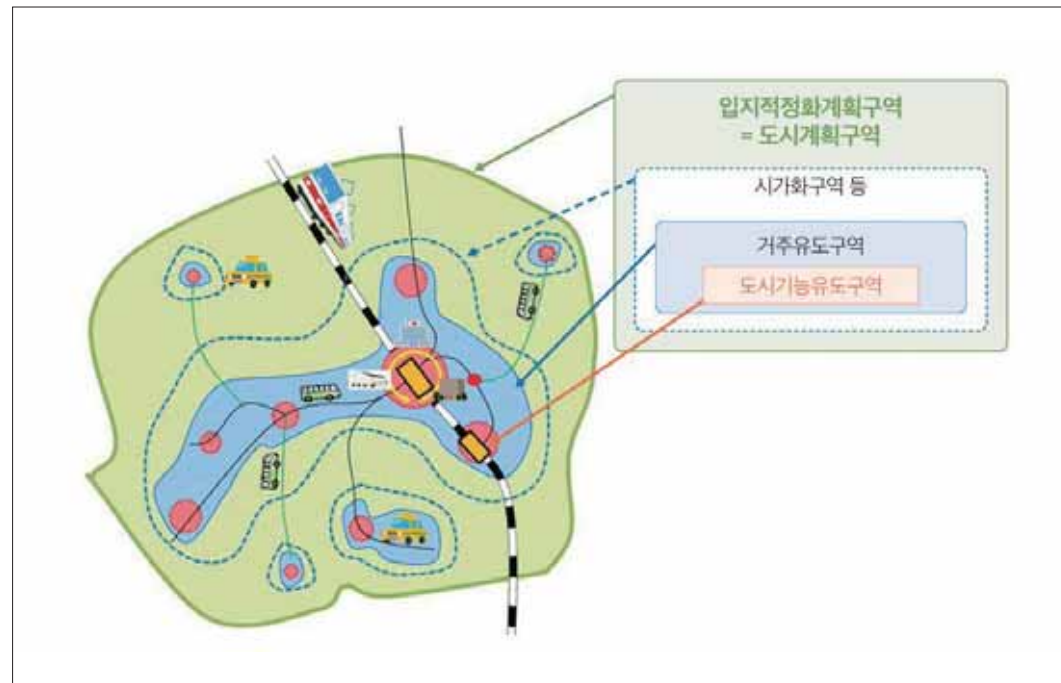
■ 배경

- 신개발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수행한다.

■ 전략 2-1. 권역별 균형발전 기본구상 및 개발 관리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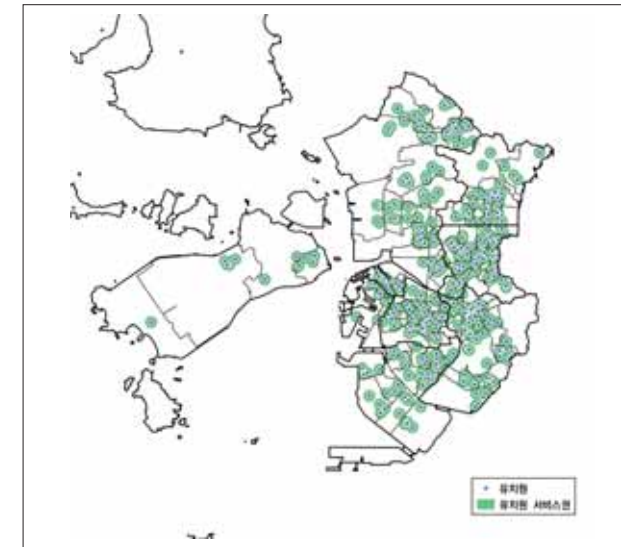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의 입지 밀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총밀도 200인/ha를 기준으로 생활권별로 관리한다. 오픈스페이스는 총량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도시 내·외부의 환경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도시 공간을 체계화한다.
- 보도로 15분 거리의 일상 생활권 내에 공공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생활권과 소생활권별 생활기반 시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 신개발지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 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 특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김단, 영종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 입지적정화계획 구역 예시



출처: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연구원(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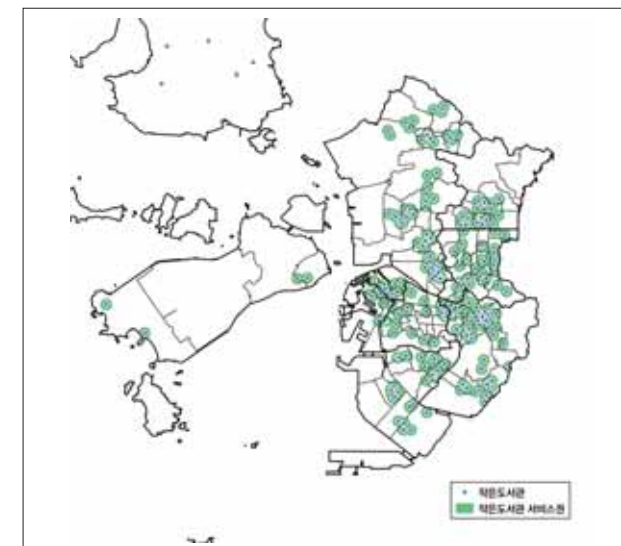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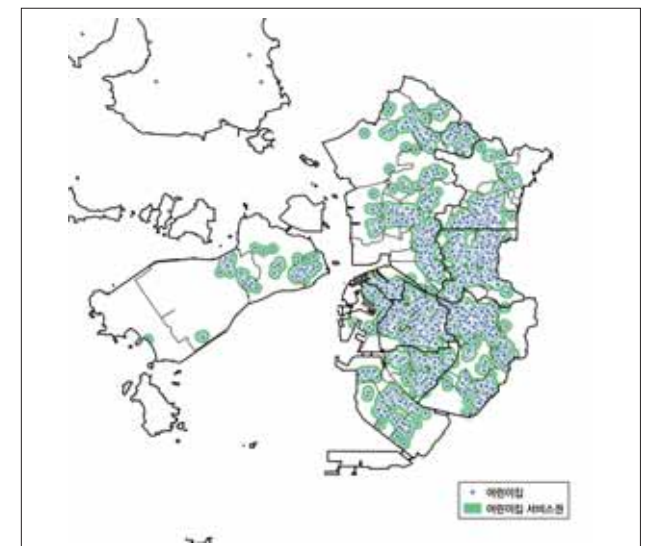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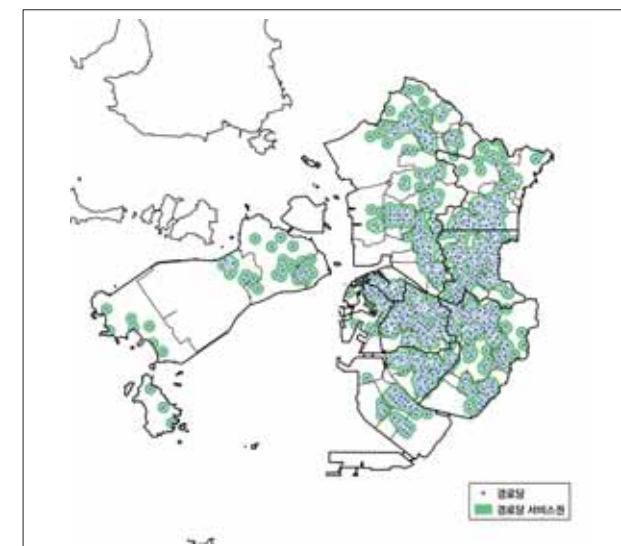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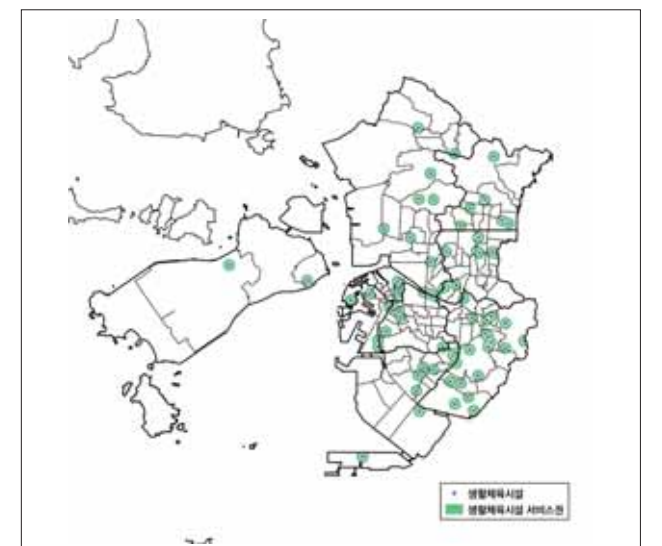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어린이집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경로당



■ 기초생활SOC 서비스권 - 생활체육시설



■ 전략 2-2.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 주택 용지 공급 확대

-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구월2 등 공공 주택 사업을 통해 신속한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동시성 원칙(concurrency)에 따라 토지 개발과 동시에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토지개발에 상응하는 기반 시설용량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구 감소 및 인구이동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 전략 2-3. 인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활성화

- 원·신도심 균형발전 기반의 최신 지능형 융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중장기 인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통합플랫폼, 데이터허브)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교통, 환경, 방범 등 도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인천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 원활한 스마트도시구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의 스마트인프라와 스마트서비스 등을 발굴 및 개발한다.

- 행정, 공공기관 역할분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성하여 분산되어 있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연계 및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 민·관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함께 참여하는 미래 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新성장 산업(스마트도시서비스)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 전략 2-4.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 강화 남단을 경제 활동과 투자 유치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영종에서 이어지는 평화고속도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 남단까지 교통망을 확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산업을 육성한다.
- 강화 남단은 광역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영종~강화 간 연결도로, 검단~강화 연결철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해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한다.

목표 3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 강화를 통한 단절된 지역 연결

■ 배경

-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심지역 간 단절을 해소한다

■ 전략 3-1.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여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인천대로를 지하화하여 상부를 도시 숲과 녹지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 지하화를 통해 도심 간의 혼잡을 개선하고, 원도심 내 녹지를 확보한다. ‘인천대로 상부 공원화’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근거리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단절된 지역을 연결한다.

■ 전략 3-2. 도시철도망 확충

-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장하고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도시철도망을 확충, 송도국제도시, 주안, 청학 등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도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요 역세권과 기성시가지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 광역교통과 연계된 순환형 도시교통을 구축하여 지역 간, 지역 내 이동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시켜 지역 간 연계성 제고하며, 철도서비스 취약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철도, 트램 등) 제공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Ⅰ 인천대로변 지역 간 단절 현황



송도육교(용마루지구 측)



용현통로박스(경인북길 측)



용현육교(육교 하부)



용오로(인천기점 방향)



용현통로박스(경인남길 측)



용현육교(경인남길 측)

■ 전략 3-3.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맞춘 남북 도로망 강화

- 중봉터널을 통해 중구, 동구 원도심과 서구 북부권 신도시를 잇는 중봉대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한다. 송림터널 등의 도로망을 개선하여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완성한다.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완성하여 인천-안산구간을 연결하고, 송도국제도시-중구-동구-서구를 잇는 남북축 광역·간선도로망을 완성한다.
- 인천내항-청라를 잇는 북항터널, 북항-인천내항 연계하는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계양-강화고속도로, 동서평화도로(강화-고성) 등 도서-도심 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역연계성을 강화하고, 장래 통일을 대비한 도로망 및 거점 구축한다.

목표 4 강화, 옹진 등 도서 지역 활성화

■ 배경

- 강화, 옹진 등 도서지역은 성장 촉진을 위한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강화 갑곶돈대



■ 전략 4-1. 전략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 유치

- 강화군과 옹진군을 전략지구로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규제 특례와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한다.
-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관광, 국방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인구에 대한 도시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계획적 관리를 유도한다.

■ 전략 4-2. 역사·문화·관광 자원 발굴

- 강화와 옹진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을 강화한다.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원 ‘각국 조계지 계단’ 보행 관광길 등을 정비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 인천내항 1·8부두 내 ‘개항광장’, ‘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해양역사 문화관광 연계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덕적-소야교



■ 전략 4-3.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도서 지역의 교통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편 개선을 통해 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인다.
- 도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옹진군 북도면을 거쳐 강화남단까지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 백령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도심항공교통(UAM) 순환 노선 구축을 통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도서지역 간 접근성 향상시키고 여객/관광/물류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전략 4-4.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계획 마련

- 도서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도서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 강화와 옹진생활권의 생활인구에 근거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중생활권과 소생활권별 특성에 맞도록 주민과 관광객, 군인 등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목표 5 주거지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 배경

-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전략 5-1.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정비사업 활성화추진

-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다각화한다.
-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생활권 별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전략 5-2.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공 주택을 지원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여 저층 주거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2차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빈집 철거 및 개량,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안전을 확보한다.

■ 전략 5-3. 인천형 주민참여 스마트 주거재생 사업

- 인천형 주민참여 주거재생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리빙랩 등)을 추진한다.
-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 리빙랩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스마트 행정·복자안전 : 노인 안심폰 서비스, 각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커뮤니티, 행정 지원, 주거지원), 스마트경로당 등
 - 스마트 교통 :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공유주차, 스마트 횡단 보도/가로등, 수요응답 대중교통(I-MOD), 공유 모빌리티 정거장 등
 - 스마트 환경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스마트 클린버스 정류장, 오염물질 방출 사업장 센서 부착 등
 - 스마트 산업·경제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UAM 플랫폼 조성, 주요 역세권(동인천역 등) 디지털 혁신거점(첨단기술 연구 시설, 업무공간, 지원시설, 관제센터, 데이터센터 등) 조성 등

-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 적정화 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전략 5-4.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및 포용적 주거 급여 지원

- 공공 임대 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주거 약자들을 지원한다. 주거 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 임대 주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약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주거환경이 부적절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략 5-5.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 주차와 공공 주차장을 확대한다. 부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및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장한다.
- 공공시설의 중복 입체화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공유 주차를 활성화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한다.

목표 6 수변 및 친수도시 조성

- 인천의 수변과 해양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

■ 전략 6-1. 아라뱃길 및 주변 지역 활성화

- 아라뱃길을 친수 및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킨다. 환경부의 운영 방안에 따라 주운 기능을 유지하면서 친수 및 문화 기능을 강화한다.
- 아라뱃길은 주운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인천터미널 등 주요 지점에 친수 레저시설을 조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략 6-2. 해양 친수 공간 조성

- 해양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군부대 철책을 철거하여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인천해양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 해양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는 열린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관련 친수 시설을 확대하고 친수 공간을 확장한다.

■ 전략 6-3. 해안가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및 대체 시설 설치 확대

- 해안가의 군부대 철책을 철거하고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해안가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인천시와 군부대 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철책 철거를 진행하고, 특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
- 군부대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대체 시설을 확대하여 해안가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며, 해안가 친수 공간을 확대한다



제2절 교통 및 물류

1) 개요

- 인천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 인천시 물류관련 계획은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인천시 관련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한다.

2) 주요 목표설정

인천 중심의 철도·도로망

-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인천의 주요 거점과 시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및 광역철도·도로망을 구축하여 인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철도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와 계층 간,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성한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편의 향상

- 수요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조정, 복합환승터미널 등 멀티모달 교통수단 연계,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Super-BRT) 도입하고, 도시철도를 확대 연장하여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해상교통(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킨다.

미래 교통물류 체계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첨단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수도권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스마트·그린 물류 모빌리티 도입 등 미래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한 교통체계

-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법정대수를 100% 확충 후 지속적으로 증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

- Sea & Air 복합운송 등 유기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도시첨단물류단지, 미래형 첨단물류시설 개발 및 조성, 전자상거래 단지 및 항공정비(MRO) 단지,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전통적 물류산업에서 도시·생활물류 지원체계로의 확대 등을 통해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 인천시에서 실행 중인 교통 및 물류 관련 계획

구분	비율(%)
인천 중심의 철도·도로망 구축	●인천발 KTX 및 제2공항철도 구축 ●GTX-B, -D, -E 광역철도 구축 ●인천 중심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 ●인천신항 물류 전용 철도 구축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편의 향상	●수요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교통비 지원 ●(복합)환승센터 구축(부평, 인천시청, 검암 등) ●S-BRT(Super BRT) 도입·확산 ●도시철도 확대 연장 ●해상교통(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
미래 교통물류 체계 구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및 운영 ●첨단 교통관리시스템(ITS) 구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스마트·그린 물류 모빌리티 도입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법정대수 100% 확충 후 지속증차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홍보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지속 모니터링 및 정비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	●Sea & Air 복합운송 등 유기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미래형 첨단물류시설 개발 및 조성 ●전자상거래 단지 및 항공정비(MRO) 단지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전통적 물류산업에서 도시·생활물류 지원체계로 확대



3) 추진전략

■ 목표 1 인천 중심의 철도·도로망 구축

■ 배경

- 인천이 국제적인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고속철도망과 광역철도망, 광역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개선한다.

| 광역철도망 계획



| 도시철도망 계획



| 광역도로망 계획



| 간선도로망 계획



■ 전략 1-1. 인천 중심의 광역철도망 확충(GTX, 인천발 KTX 및 제2공항철도)

- 광역급행철도(GTX-B, -D, -E) 구축하여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인천과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 인천발 KTX는 인천과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제2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여 인천 남부(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의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 개선하고, 인천 국제공항과 서울9호선 공항철도를 직결하여 환승 불편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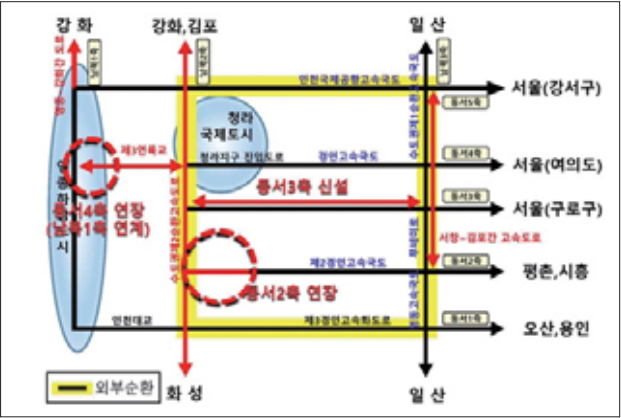
|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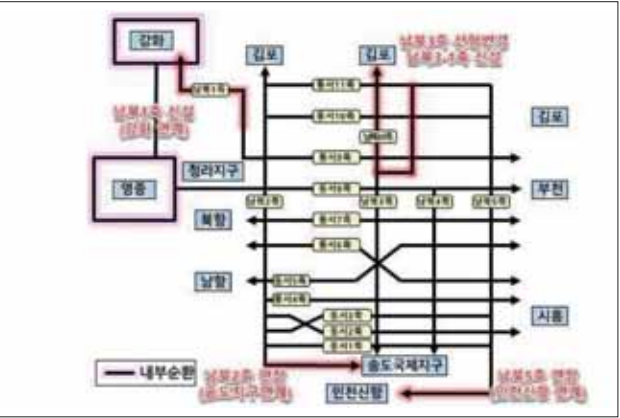
■ 전략 1-2. 인천 중심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

- ‘영종-강화 평화도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북도면을 거쳐 강화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인천의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특히, 검단, 검암, 송도, 논현, 서창 등 도시의 남북으로 도시개발에 대응한 남북 간 교통축 연결을 확대한다.
 - 인천대로와 서곶로 등 인천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축을 간선 대중교통 노선축으로 하고, 이와 연계되는 지선 교통축을 발굴한다.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의 동서축(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남북 축 간선교통축을 확보하여 수도권으로의 연계를 강화하며 중심지 간 이동편리성을 제고하고 서창-김포 고속도로(복층) 건설로 교통혼잡 해소 등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경기·강원의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초광역권 동서평화고속도로(강화~고성)를 건설하여 접경지역의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며, 광역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유기적 연결 노선 구축으로 지역간 소통하는 도로망체계를 구축한다.

광역도로망 개념도



간선도로망 개념도



※ 제2차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 '23.6

■ 전략 1-3.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거점 조성을 위한 환승센터 구축

- 주요거점과 GTX, UAM 등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거점을 조성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거점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GTX-B(부평역-부평구, 인천시청역-남동구, 인천대입구역-연수구)
- GTX-D, E(작전역-계양구)
- 인천발KTX(송도역-연수구, 인천역-중구, 동구)
- 공항철도(검암역-서구, 계양역-계양구)



-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하여 환승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도, 버스전용차로, BRT 등 연계가능한 주요 거점의 환승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 대중교통 이용의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시설과 보행네트워크의 연계 배치 고려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의 연계 구축을 통해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목표 2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편의 향상

- 인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킨다.

■ 전략 2-1. 수요 맞춤형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교통비 지원

- 시내버스 노선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줄인다.
-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모니터링하고 개편하여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최적의 통합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효율성을 높인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천I-패스, 인천 광역 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략 2-2.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부평역, 인천시청역 등 광역철도역(GTX-B, -D, -E, KTX 등)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시간 단축, 이용편의 증대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 주요 거점에 교통 환승 허브(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지원 및 환승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며,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으로 환승 편의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이동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미래 신교통수단과 스마트 인프라 등이 기존 대중교통, 모빌리티(자전거, PM 등) 보행환경과 안전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보행·대중교통을 연계하는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전략 2-3. 중앙버스(BRT) 전용차로 확충

- BRT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건설로 녹색교통체계 활성화 및 대중교통 연결체계를 강화하고 출퇴근시간의 정시성 확보, 통행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 S-BRT(계양-대장) 노선 구축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한다.
- 기존 BRT서비스의 고도화 및 고급화 추진한다.(강서-청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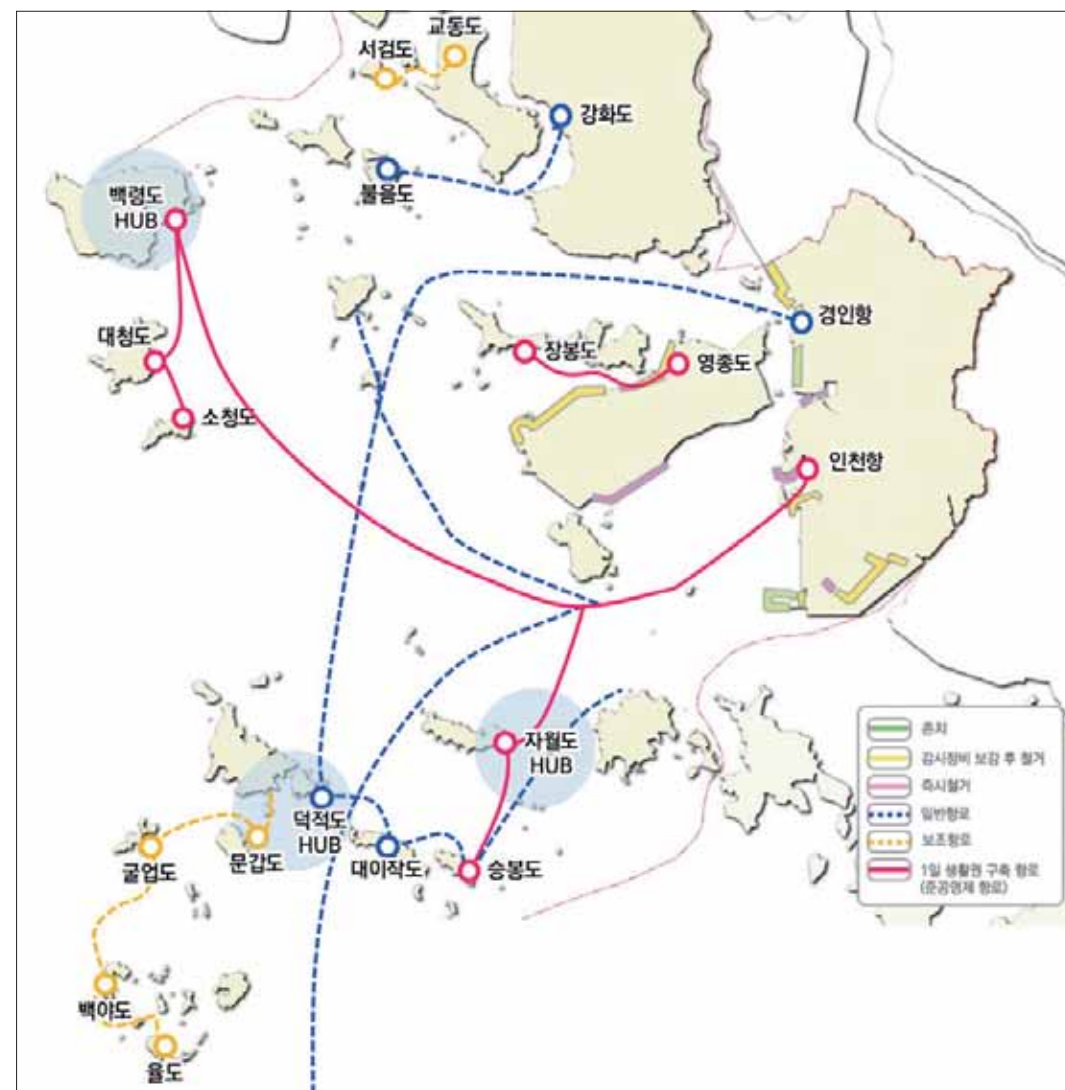
■ 전략 2-4. 도시철도 확대 연장을 통한 철도 사각지대 해소

- 도시철도망을 확대하고 연장하여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 간 이동을 개선한다.
- 트램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 어디서든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 확충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철도서비스 취약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도시철도 노선 계획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이동 간의 소요시간 감소를 통한 지역 간 교류증진에 기여하여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 전략 2-5.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한 도서지역 이용 편의 증진 및 접근성 강화

- 해상교통을 개선하여 도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객선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 옹진군 서해5도의 대형 여객선을 확대하고 도서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 백령도와 대·소청도의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군겸용 소형 공항 건설 및 백령~중국 간 항로 개설로 공항과 섬 연계 유도
- 백령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연결하는 UAM 도심항공교통 여객·관광·물류 순환노선 구축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항로 및 허브



출처: 섬해양정책과

목표 3 미래 교통물류 체계 구축

■ 배경

- 자율주행,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심항공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미래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 3-1.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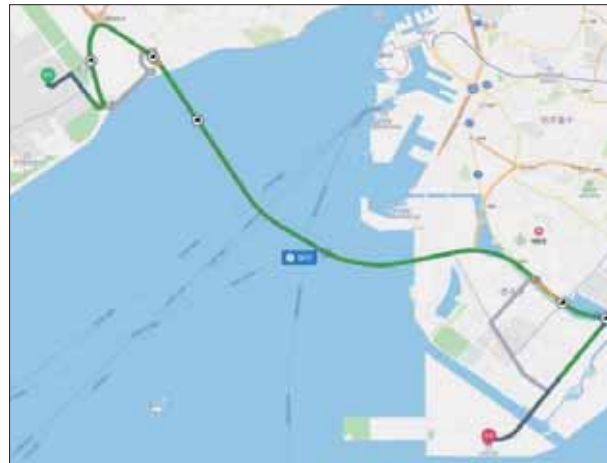
-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여 미래 교통 체계를 도입한다.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 인천공항-인천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 추진
 - 송도-인천대교-영종도 구간 자율운송 서비스 실증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 전략 3-2. 첨단 교통관리시스템(C-ITS) 구축

-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과 안전성을 개선한다.
- 다기능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교통 신호제어기를 고도화하여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통(UAM,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환경 조성하고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협업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최적의 통합교통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구역 검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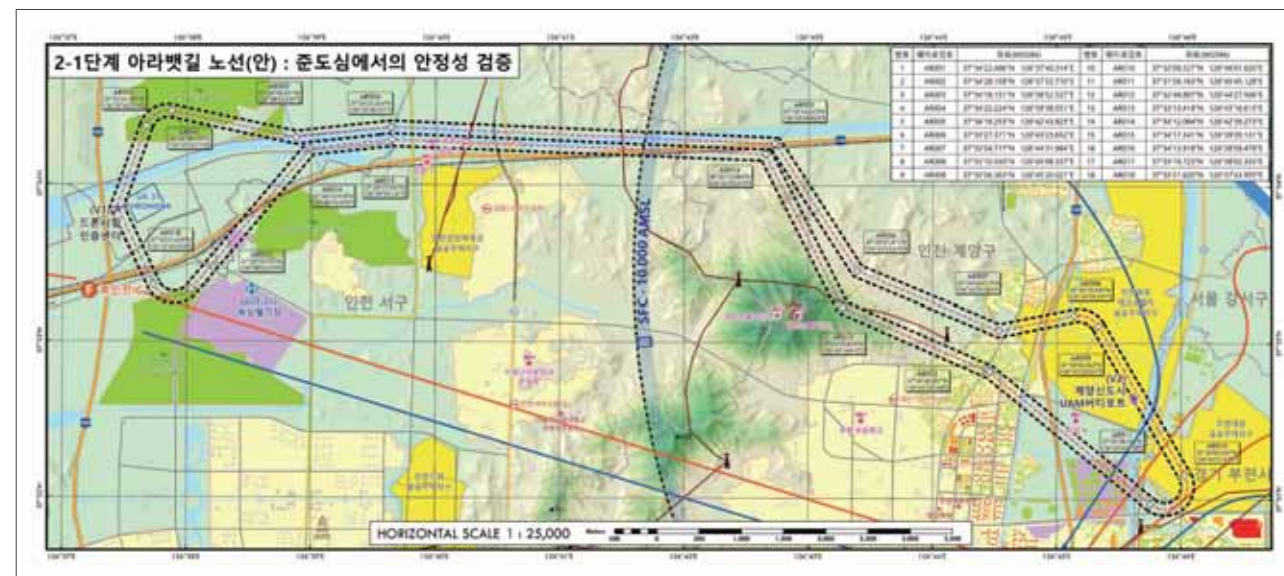


출처: 인천광역시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

-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통(UAM,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환경 조성하고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 신호현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협업 빅데이터 및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최적의 통합교통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제공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전략 3-3.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

- UAM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초고속 연계망을 마련하고, UAM 체계를 도입하여 교통 혁신을 이끈다.
- 미래 모빌리티 기반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로봇 등 무인 배송과 지하·공중 등 입체 배송을 위한 시스템 및 실용화 기틀을 마련하여 첨단운송수단의 활용을 강화한다.
-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UAM 터미널(Vertiport)을 조성하는 경우 도시계획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게이트 웨이와 주요 중심지 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구축하고, UAM과 주요 GTX역 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UAM-GTX 연계 미래형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9.13.)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 출시

■ 전략 3-4.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 친환경 자동차와 수소차량을 도입하여 첨단 모빌리티를 일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 수소·전기버스 및 전기저상버스 도입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신 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공유교통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 도시물류에 활용되는 운송 수단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고, 배송거점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보급하여 친환경 물류환경을 조성한다.
-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공공자전거 등의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전략 3-5. 스마트·그린 물류 모빌리티 도입

- 스마트·그린 물류 모빌리티를 도입하여 물류 체계를 혁신하고 지능형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교통 및 주변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규 물류 시설 설치 전 물류수요를 검증하여 물류수요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설치한다.

- 증가하는 생활물동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도시 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희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광역·급행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거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 물류 배송망을 마련한다.
- 송도, 영종, 검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버스노선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 조성하여 공차거리 감소, 연료비 절감 등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 전략 3-6. 인천신항 물류 전용 철도 구축

- 인천신항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는 물류 전용 철도를 구축하여 물류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며, 항만 물동량을 철도로 분산하여 도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인천신항의 물류 효율을 높인다.
- 철도와 항만의 연계수송 네트워크 구조개선을 통해 국가 물류비 절감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의 허브로 숨쉬기 위한 해운물류 거점항만을 조성한다.



인천신항(자료출처: 인천항만공사)

목표 4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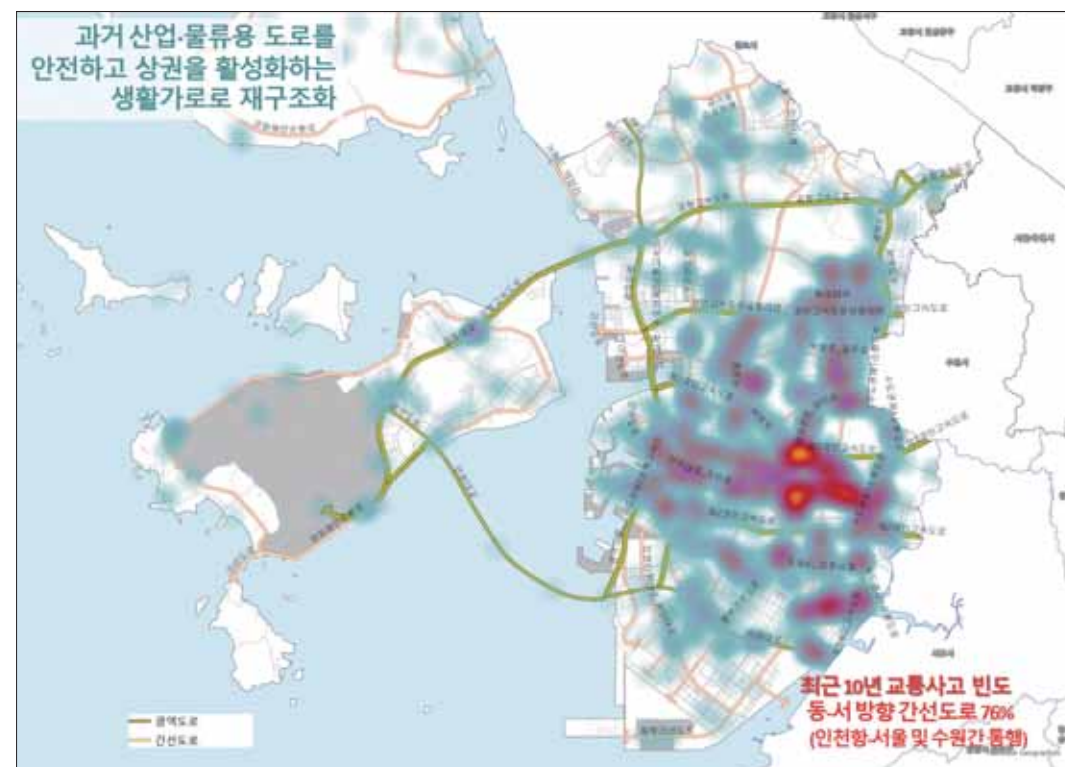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교통체계를 조성한다.

■ 전략 4-1. 물류·산업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체계 재구조화 도모

- 과거부터 산업·물류를 위한 산업도로 등을 안전하며,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로 재구조화 한다.

■ 전략 4-2. 누구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및 확보

-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법정대수를 100% 확충 후 지속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
-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강화한다.
- PM 거치구역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줄이고, PM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 이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보행자와 PM 간의 충돌을 예방한다.
-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행환경 위험요소 도출,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분석 등 과학적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교통체계의 이동성·안전성·편의성을 제고한다.
- 지역 내에서는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분을 통해 탄력적인 속도 정책 반영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하여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전략 4-3.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 모니터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인지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행 안전 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교통 정온화시설 확대 등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기반을 정비하며, 생활구역 및 도로구간의 안전개선을 위한 교통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키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전략 4-4.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 정비

-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을 정비하여 도심 교통의 안전을 개선한다.
- 기존 통행제한 지역을 재조정하여 현 교통량 수준에 맞게 제한구역을 설정한다.
 - 단기: 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통행제한지역 확대적용
 - 중장기: 구도심지역의 공업시설 입지 및 신규 개발지역 등 고려
- 도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도심 외곽지역으로 통행 유도한다.



목표 5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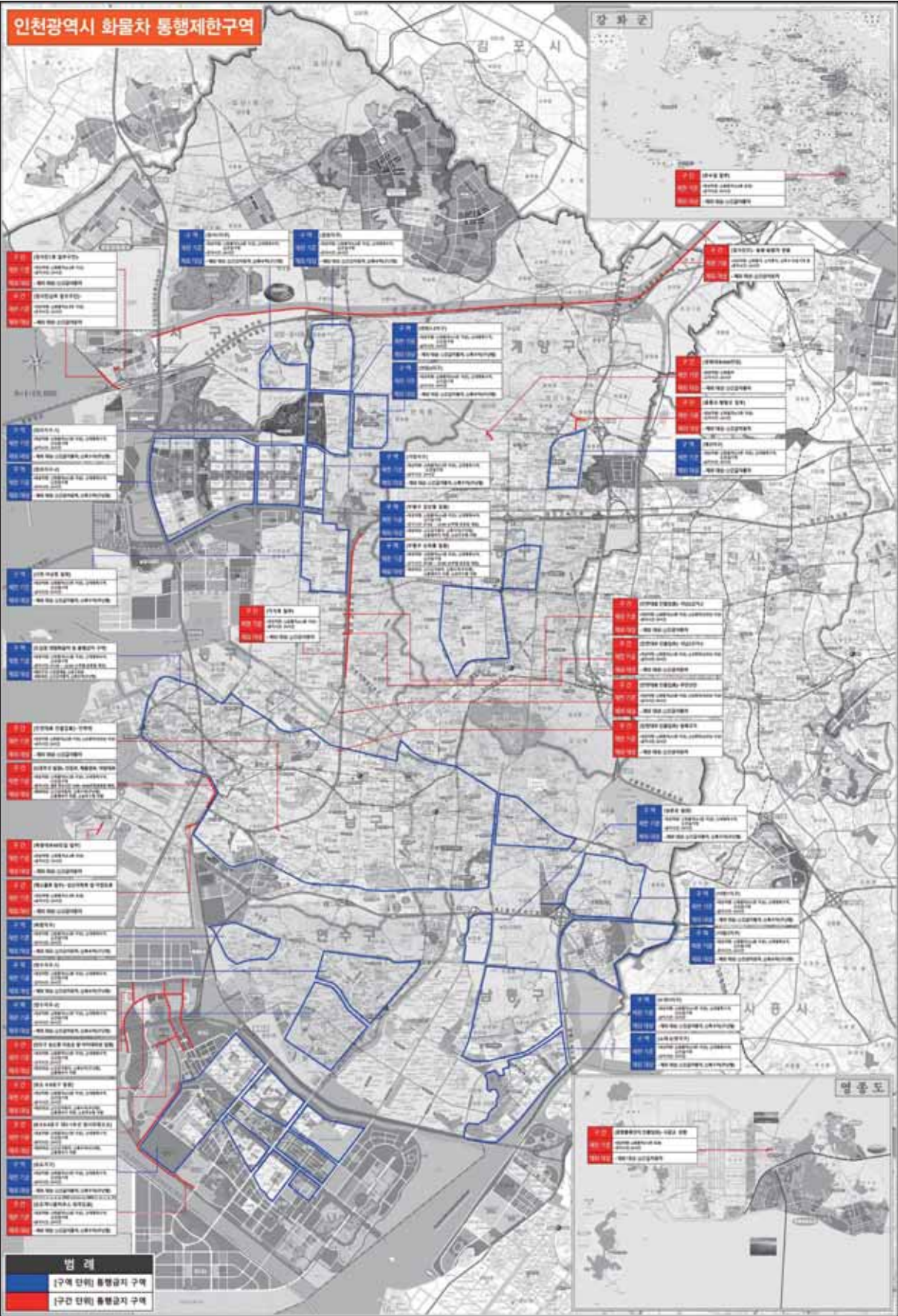
■ 배경

- 인천의 특화된 물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대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 전략 5-1. Sea & Air 복합운송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Sea & Air 복합운송'은 항공과 해운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역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적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환적 화물을 유지한다.
- 인천항은 2030년까지 Sea & Air 물동량 10만 톤을 달성한다.
- 국제 물류를 위해 수도권과 연결하는 물류·여객 네트워크 구축하고, 주요 공항·항만으로의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연계되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항만별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공항·항만을 연계한 국제물류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인천광역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현황(23.12.31기준)



■ 전략 5-2. 미래형 첨단물류시설 개발 및 조성

- 물류시설을 첨단화하여 물류 산업을 혁신하고 공공 무인 택배 표준 운영 시스템과 같은 공유경제형 물류시설을 도입한다. 자동화 및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첨단물류시설의 개발 및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센터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물류 인프라 전환을 통해 국제 수출입의 교두보 이자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전략 5-3. 전자상거래 단지 및 항공정비(MRO) 단지 구축

-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단지와 항공 정비(MRO) 단지를 구축하여 첨단 물류를 지원한다. 중고 자동차 수출 활성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인천신항은 LNG 냉열을 활용하여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정비(MRO)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인다.

■ 전략 5-4.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인천신항 1-2단계 준공 및 스마트 항만 개편을 통해 항만 기능을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확대한다.

공동물류센터 및 공동배송서비스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 인천신항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물류와 제조업이 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한다.

■ 전략 5-5. 전통적 물류산업에서 도시·생활물류 지원 체계로 확대

- 전통적 물류산업에서 도시·생활물류 지원체계로 확대하여 생활권 물류를 개선한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 : Micro-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도심 내 화물 차량 통행시간을 제한하여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 전자상거래 및 생활물류의 택배화물 증가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 수요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소규모 도시첨단물류단지 설치 필요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급성장으로 도심 내 화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생활물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류 공동화 및 라스트마일 배송 플랫폼을 도입한다.
- 지하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도시물류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물류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변 불법 주차, 대기오염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생활물류서비스 취약계층(섬지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생활물류 종사자를 사람중심의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생활밀착형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제3절 탄소중립 및 방재

1) 개요

- ‘재난대응과 안전관리’,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도시’ 등 4가지 주요 목표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한다.

2) 주요 목표설정

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 재해취약성 분석과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서 포용적 재난 예방과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재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포용적 복구 시스템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대전환

-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상풍력 및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 발전부분의 과도한 공급을 지양하며, 탈탄소 발전 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도시조성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인천중랑근린공원

지속가능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도시 조성

- 권역별 자원순환센터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대기질 개선과 하수 인프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도시 내 생태계 복원과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한남 정맥 등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천시에서 실행 중인 탄소중립, 환경 및 방재 관련 계획

전략적 목표	주요 프로젝트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도시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예방 기능 강화 ● 장애인, 고령자, 아동, 다문화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비상 대비 재난안전 훈련 및 인프라 강화 ● 완전가로(Complete Streets) 조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 지역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거버넌스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	●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내실화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수소산업 생산 클러스터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속가능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도시 조성	● 친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자연자원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 조성 ● 하수 인프라 정비를 통한 물순환 관리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숲 조성	● 기후대응 생활권 도시숲 조성 ● 국가도시공원 조성 ● 한남정맥 등 그린 네트워크 구축 ●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둘레길) 조성 및 관리

3) 추진전략

목표1 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 전략 1-1. 자연재난 예방 기능 강화

- 제1·2·3종 시설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자연재난 예방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적극 활용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과 산사태위험도를 참고하여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방재 계획을 확립한다.
- 기후재난, 도심 내 화재방지를 위해 방재공원 개념을 도입하고 노후주택 또는 빈집을 자투리공원으로 조성하여 방재기능을 확대한다.

■ 전략 1-2. 사회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강화 및 포용적 복구 시스템 마련

-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상습 침수구역의 조사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노후 건축물과 같은 재난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기성시까지 내 화재 및 지진 취약지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재난 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주거 및 심리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전략 1-3. 비상 대비 재난 안전훈련 및 인프라 강화

- 안전한국훈련과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기관별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를 높인다.
-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IoT센서, CCTV, 스마트 가로등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 위치기반 정보 시스템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재난 정보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

■ 전략 1-4. 완전가로(Complete Streets)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

- 과거 산업도로로 활용되던 간선도로 주요 상충지점의 완전가로화를 추진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설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 도로 속도를 제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 전략 1-5. 지역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거버넌스 확대

- 국제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포럼과 재난안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참여형 훈련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완전도로 조성 예시(신평역~동인천역, 우현로)



출처: 경인전철측 미래 도시공간 정비 구상, 인천연구원(2024)

통합가로 도입 시 교차로 형태 예시(답동사거리 일대)



출처: 경인전철측 미래 도시공간 정비 구상, 인천연구원(2024)

목표 3 지속가능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도시 조성

■ 전략 3-1. 친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권역별 광역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한다.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대방안으로 주민지원시설 설치 및 소각시설 지화화를 추진하며 유기성폐기물 통합 처리 등을 위해 처리시설의 다변화를 모색한다.

■ 전략 3-2. 자연자원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 이동성 물새, 저어새, 점박이 물범 등 생물종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환경 보건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보건 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에 힘쓴다.

■ 전략 3-3. 대기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 조성

- 수도권 대기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힘쓴다.
-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스열펌프 개조 지원 등으로 대기질 개선을 유도한다.
- 미세먼지·악취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인천 주요 깃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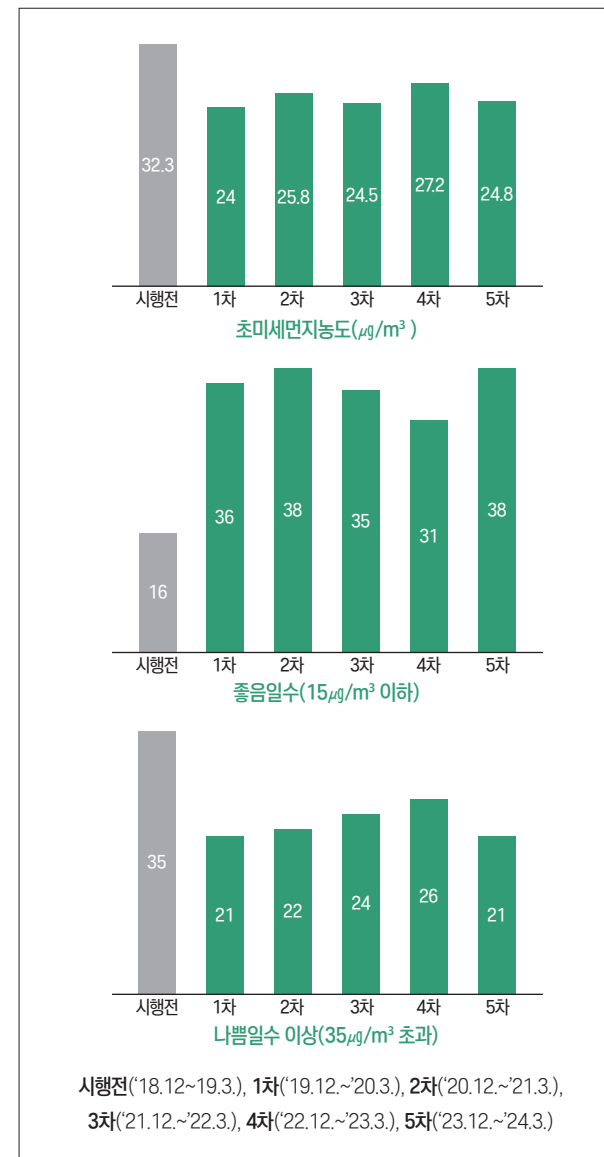


출처: 인천광역시 환경안전과

■ 전략 3-4. 하수 인프라 시스템 정비를 통한 물순환 관리

-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원천 차단하고, 상부공간을 공원 및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한다.
- 도시 및 건축물 계획과 연계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개발지역의 저영향개발(LID), 그린 인프라 조성 등 실효적 물순환 정책을 도입한다.
- 불투수면 개선을 위한 물순환 개선 인프라 도입 확대 및 기 설치된 도시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유지관리 및 강화하여 공촌천·장수천 권역 물순환률을 제고한다.

계절 관리기간 인천시 초미세먼지 현황



목표 4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숲 조성

■ 전략 4-1. 기후대응 생활권 도시숲 조성

-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바람길 숲 및 기후대응 도시숲을 지역 전체로 확대해 도시녹화를 적극 추진한다.
- 중앙분리화단과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

■ 전략 4-2. 국가도시공원 조성

-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숲 복원과 습지 확장을 통해 환경을 개선한다.

■ 전략 4-3. 한남정맥 등 그린 네트워크 구축

- 한남정맥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 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한다.
- 인천대로 및 경인전철 상부에 그린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장한다.

■ 전략 4-4.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둘레길) 조성 및 관리

- 보행 약자를 위해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림 이용문화를 확장한다.
- 계양산, 장수산, 가현산에 완만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산업 및 경제

1) 개요

-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조하고 다양한 산업 벨트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인천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주요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및 실행 계획으로 구성하고 도시의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한다.

2) 주요 목표설정

인천 미래 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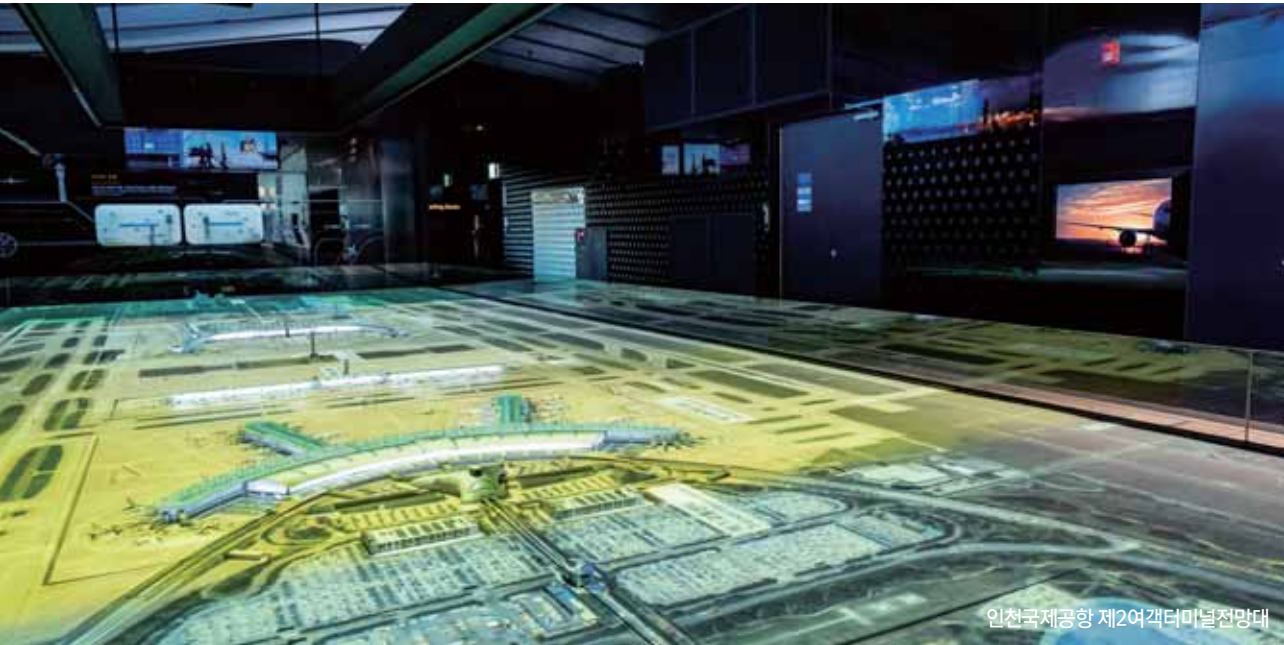
-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상호보완적 연계는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반도체-소부장 벨트, 로봇-모빌리티-첨단의료 거점, 친환경-미래에너지 거점, ICT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인천형 바이오·헬스·항공·로봇산업 확대

-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며 청라국제도시에 로봇 실증센터를 건립하여 인천형 항공·로봇산업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nd 혁신역량 강화

- 펀드 운용을 통한 투자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기술 기반 창업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전망대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촌·어촌 조성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수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어촌을 활성화한다. 기존산업의 위기극복과 스피노프 역량 강화 지원
- 산업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기업맞춤형 자금 지원,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으로 기존 산업의 위기극복과 스피노프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적 목표	주요 프로젝트
인천 미래 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호보완적 연계 ●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단,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여 “바이오-반도체-소부장 벨트” 구축 ● 청라국제도시에서 “로봇-모빌리티-첨단의료 거점” 조성 ● 주안, 부평, 계양을 ICT융복합 거점으로 조성 ● 지역주도형 관광 및 마이스(MICE) 융복합 산업 활성화
인천형 바이오·헬스·항공·로봇산업 전문화 및 성장모색	●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 영종국제도시에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유치 ● 청라국제도시에 로봇 실증센터 건립,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nd 혁신역량 강화	● 펀드운용을 통한 투자 창업생태계 활성화 ● 맞춤형 성장단계별 기술 기반 창업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발굴·육성 지원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촌·어촌 조성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생산기반 구축 ● 어촌 및 어항 재생사업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추진
기존산업의 위기극복 and 스피노프역량 강화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생산기반 구축 ● 어촌 및 어항 재생사업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추진

3) 추진전략

목표 1 인천 미래 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 전략 1-1.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호보완적 연계

- 전통산업과 핵심전략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산업성장에 요구되는 연구개발시설, 인재양성기관 및 금융체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 원도심에는 남동·부평·주안·인천산업단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및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다.
 -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기업이 일하기 좋고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을 갖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단, 영종국제도시를 연계하여 ‘바이오-반도체-소부장벨트’를 조성한다.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모빌리티-첨단의료 거점’을 조성하고, 검단과 영흥은 ‘친환경-미래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 주안과 부평, 계양을 ICT융복합 거점으로 만들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양 등 서울 인접 산업용지에 집적지를 조성한다.

■ 전략 1-2. 바이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벨트 조성

- 글로벌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고 바이오 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벨트를 구축한다.
-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 기업육성, 산업용지 공급,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전략 1-3. 로봇-mobility-첨단의료 산업 벨트 조성

-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차 기술전환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 발굴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UAM, PAV 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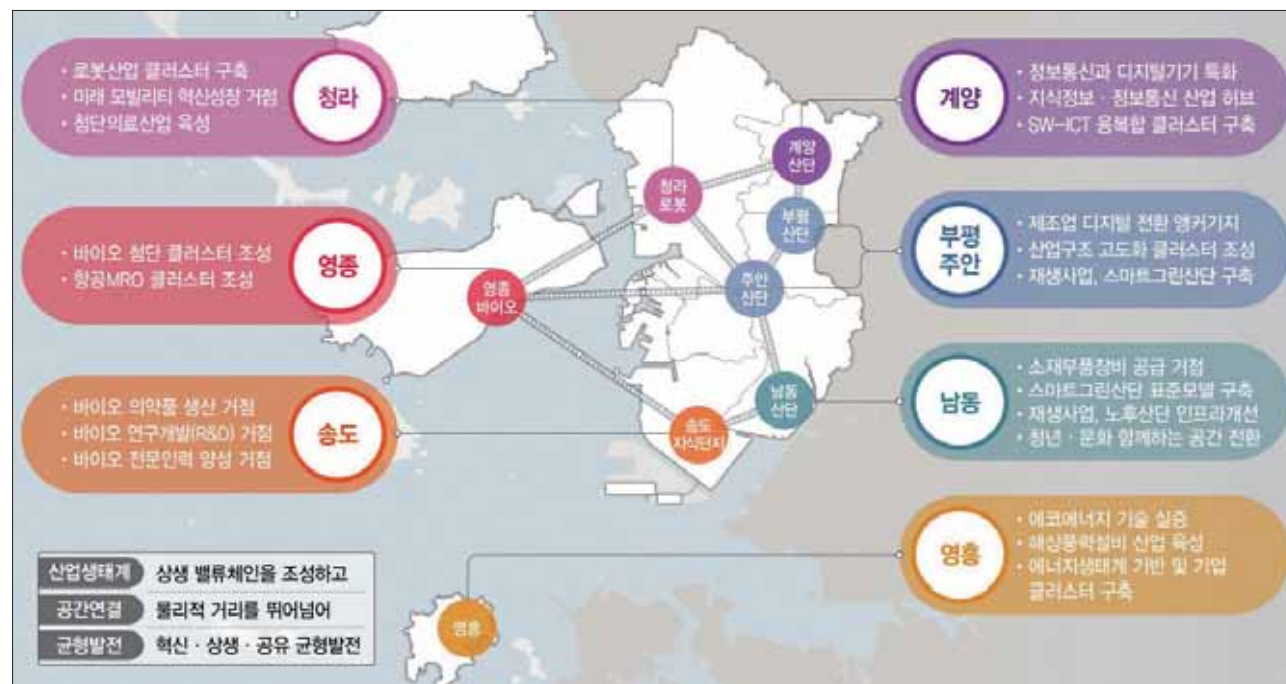
■ 전략 1-4. ICT 융복합 벨트 조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Software 및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조성하여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한다.

■ 전략 1-5. 지역주도형 관광 및 마이스(MICE) 융복합 산업 활성화

- 송도국제도시의 MICE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송도컨벤시아 3단계 확장사업을 진행한다.
- 지역주도형 관광 및 마이스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운영한다.
- ‘인천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인천시 미래산업지도



목표 2 인천형 바이오·헬스·항공·로봇산업 전문화 및 성장 모색

■ 전략 2-1.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통해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확대한다.
 - 기존 대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소부장 기업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한다.
-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통해 연구 중심 병원을 확대하고,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을 창출한다.

■ 전략 2-2.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 인천국제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지역의 경쟁력과 연계하여 첨단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도심 항공교통(UAM) 플랫폼,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여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통해 신선식품 수출 단지를 조성한다.

■ 전략 2-3. 영종국제도시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 영종국제도시에 글로벌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항공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항공정비 시장을 선도한다. 항공기업 인증획득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을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 전략 2-4. 청라 로봇 실증센터 지원 건립,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 유치를 견인한다.
- 청라국제도시에 수소 및 신산업(로봇·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업인력양성과 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로봇 실증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목표 3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nd 혁신역량 강화

■ 전략 3-1. 펀드 운용을 통한 투자 창업생태계 활성화

- 빅웨이브 모펀드(Big WAVE)를 통해 중견·중소 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여 투자 수혜기업과 창업투자 전문회사의 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모색한다.
- 성장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및 AI 분야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여 창업기업이 데스 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략 3-2. 맞춤형 성장단계별 기술 기반 창업 지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기반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인천 창업 플랫폼을 통해 윈스톱 창업정보를 제공한다.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역 대학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와 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 인천광역시-대학-기업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RISE모니터링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 인천시민대학 등 지역 대학캠퍼스 등을 활용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의식수준을 고양하고,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대응한 평생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전략 3-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발굴·육성 지원

- 벤처 및 스타트업,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인천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인천형 특화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고용의 양적 성장을 확대한다.

목표 4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촌·어촌 조성

■ 전략 4-1.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생산기반 구축

-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장·냉동시설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등 수산식품 및 어업 기반을 강화한다.
-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 전략 4-2. 어촌 및 어항 재생사업

- 어촌의 특색을 반영한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노후파손된 어촌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전략 4-3.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 온라인 유통 및 가공 등 수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업계를 지원한다.
- 어촌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전략 4-4.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 천혜 자원의 섬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 섬 명소화를 통해 섬 각각의 특성과 방문객의 니즈를 고려한 특색있는 개발과 정비를 모색하여 찾고싶은 인천 보물섬을 조성한다.
- 섬과 음악·문화를 접목한 ‘주섬주섬 음악회’를 통해 섬 관광을 활성화한다.

목표 5 기존산업의 위기극복과 스핀오프 역량 강화지원

■ 전략 5-1.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업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산업단지의 광장·공원 등 공공 공간을 특화하고 문화 프로그램, 콘텐츠 융합을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주는 일터로 활성화한다.



출처: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2025 경제산업국 업무계획)

■ 전략 5-2. 기업맞춤형 자금 지원 및 기업 경영안정 도모

-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한다. 기업맞춤형 자금지원 및 경영안정 자금, 구조고도화 자금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업황과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운동, ESG 경영지원, 산업보안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 전략 5-3.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기업 혁신성장을 견인

- 탄소중립 및 ESG와 같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경영 애로해소 지원 및 글로벌 산업 이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 물류·자율주행로봇, 모빌리티 소부장 등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융자지원, 스마트 공장 등 기술전환을 지원한다.

■ 전략 5-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한다.

■ 전략 5-5.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돕는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다양한 시제품 디자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5절 문화 및 관광

1) 개요

-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녹아드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 문화, 예술, 역사, 해양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 인천의 문화수요지수는 평균이상이나, 지역문화 공급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지역문화실태조사, 문체부, 2019)
- 시민들이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인구 100만명 당 문화시설 개수가 17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 수준
 - 군·구 간 문화격차가 전국 6위 수준으로 지역 내 문화 격차 해소 방안 필요함(중구는 모든 영역의 지역문화지수에서 전국 평균과 인천 평균을 상회하나, 동구·계양구·옹진군은 전 영역이 전국 평균과 인천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미추홀구와 남동구도 문화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

2) 주요 목표설정

매력 있는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도시

- 인천시의 문화 인프라를 통합하고 지역문화를 계승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 속 모두가 누리는 예술도시

- 예술 창작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축제를 구성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인천 시사편찬원을 설립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펜타포트라페스티벌(자료출처 : 인천관광공사)

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적 목표	주요 프로젝트
매력 있는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도시	● 문화 인프라 통합법인을 통해 문화시설을 통합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 ● 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문화도시' 조성 ● 생활SOC로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작은 도서관 확대 ● 공립박물관 활성화 및 신규 조성 ● 공공체육시설 균형적 확충
일상 속 모두가 누리는 예술도시	●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축제 거버넌스 구축 ●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소통과 공감을 통한 초일류 '음악도시' 조성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호 보존 ● 인천 시사편찬원 설립 ● 개항장 개항광장 역사산책 공간 특화 활성화
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 글로벌 해양도시 해양관광 기반 조성 ●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 ● 옹진군 섬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 해상교통(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3) 추진전략

목표 1 매력 있는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행복한 도시

- 매력 있는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생활문화 자원을 시민들이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배치하고, 지역 전체의 공간 질서에 맞춰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 전략 1-1.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

-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볼 및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문화주관을 운영하고 시민의 날과 연계해 인천 전역에서 시민과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 아트페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문통음악회 등 인천 고유의 예술행사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인천문화지표’는 자원, 기반, 인력, 산업, 활동, 정책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여 문화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인천의 문화적 위상을 검증하고 지역별 생활환경에 맞는 문화 수요를 파악한다.
-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여 청년 창작활동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청년문화축제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

■ 전략 1-2. 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문화도시 조성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의 특색 있는 영상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 디아스포라 영화제 확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인천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 군·구별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군구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거점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와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
- 시민들이 공감하는 종교 문화 행사와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 하늘문화축제, 인천연등축제, 글로벌 명상축제, 산사음악회, 삼량성역사문화축제, 바다의 별 문화축제 등 다양한 종교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축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등 계절별 테마축제를 확대하여 연말 시즌에도 시민 참여형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고, 원도심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도시공간의 활력을 동시에 높인다.

■ 전략 1-3.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SOC로서 도서관 서비스 강화

- 공공도서관을 혁신하여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서관 기능을 개선한다. 도서관을 은퇴자와 청년층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은퇴자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화 대응센터와 청년 사업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이벤트를 통해 독서 문화를 촉진하고, ‘인천 아트북페어’, ‘인천 독서대전’,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별 편차 없이 균형적인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신규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전략 1-4. 공립박물관 활성화 및 신규 조성

- 공립박물관을 활성화하고, 신규 조성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박물관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주와 이민의 역사를 수집·연구하는 공간으로, 전시 유물 확보 및 공간 확대 개편을 진행한다.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인천 뮤지엄파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 영종글로벌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및 원도심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한다.
- 작은 도서관은 학교 또는 주민센터와 중복·복합화하여 공급하고, 공원,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 전략 1-5. 문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 확충

- 원도심 및 신도시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주요 문화시설을 확대하여 지역 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공공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반다비 체육센터, 다목적훈련장,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천 FC 천연잔디구장,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요기조기음악회



자료 : 예술정책과

■ 목표 2 일상 속 모두가 누리는 예술도시

-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형 지역 축제를 통해 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

■ 전략 2-1.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프로젝트 및 지역 종합예술제를 육성한다.
- 예술인 종합검진 및 창작컨설팅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의 건강과 역량을 강화한다.
-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을 기반으로 지역종합예술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 생태계를 강화한다.

■ 전략 2-2.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축제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형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화도진축제, 수봉문화축제, 소래포구축제, 부평풍물축제, 함박마을축제, 생활문화축제, 제물포예술제, 배다리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지원한다.
- 지역축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 시민들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를 조성한다.

■ 서구 신현동 문화예술교육센터 서구 드림 아카데미



■ 전략 2-3.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움직이는 갤러리와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 소외지역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시민참여 문화공간을 신설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객석, 로비, 전시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하여 문화예술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 전략 2-4. 소통과 공감을 통한 초일류 ‘음악도시’ 조성

- 음악 도시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이벤트를 개최하고, 음악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INK 콘서트, 포크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축제를 통해 음악도시의 가치를 드높인다.
- 음악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부평 캠프마켓 내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음악대학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소통과 공감의 가득한 초일류 음악 도시로 발전시킨다.

■ 인천음악창작소(캠프마켓)



목표 3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전략 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 역사문화유산 보존지역의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 '개항장', '인천내항'과 '인천우체국' 등의 지정문화유산은 도시재생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한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과 주변지역 재생을 통해 개항장 일대의 재활성화를 추구하고, 문화유산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한다.

■ 전략 3-2.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보호 보존

-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목록화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장래 도시개발 패턴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구 인천우체국'을 보존 및 활용하여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이 지역의 특색 발전에 기여한다.

인천우체국



자료출처: 인천관광공사

■ 전략 3-3. 인천 시사편찬원 설립

- 시사편찬원은 시민제안공약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역사문화 자료를 관리하고, 인천시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 인천 시사편찬원을 설립하여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시사편찬원 설립 TF를 구성하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 전략 3-4. 개항장 개항광장 역사산책 공간 특화 활성화

- 개항장 일원을 근대 역사자원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1883 개항살롱'을 통해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개항광장 조성, 스마트 관광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개항장 근대 건축자산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의 집', '이음1977'과 연계하여 산책로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인천내항 1·8부두 내 '개항광장'을 조성하고, 각국 조계지 계단 및 최초 플라타너스길을 정비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제물포 구락부



자료출처: 인천관광공사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제물포 웨이브(J-Wave) 사업



문학산음악회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목표 4 해양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 해양 인프라를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킨다.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략 4-1.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을 조성하여 인천의 해양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인천 해양교육문화 협의회’를 운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한다.

■ 전략 4-2. 글로벌 해양도시 해양관광 기반 조성

-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고,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여 해양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하여 해운, 항만, 물류 등 국제 포럼을 통해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
- ‘왕산마리나’, ‘영종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덕적 서포리’, ‘골든하버’ 등의 마리나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영종도 일대는 국제관광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왕산마리나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안관광벨트를 육성한다.
- 송도 워터프린트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집중 호우 시 유수지 용량을 확보한다. 추후 마리나 시설, 수상 레저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 생태 도시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전략 4-3.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

-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국제 크루즈 카페리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로써 시드니와 같은 글로벌 미항으로 조성한다.

■ 전략 4-4. 옹진군 섬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가기 프로젝트’와 ‘가고 싶은 K 관광섬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옹진군의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주섬주섬 음악회’를 통해 섬과 음악을 접목하여 테마관광 상품화에도 주력한다.

■ 전략 4-5. 해상교통(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 해상교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여객선 운임 보조, 출항민 군장병 면회객 지원 등의 다양한 운임 지원 정책을 통해 해상 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제6절 건강 및 복지

1) 개요

-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기회의 확장, 지속가능한 보건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위생환경 개선, 아동·여성·고령자·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한다.
- 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주요 목표설정

포괄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기회의 확장

- 사회복지회관을 신축·이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복지 특화사업과 저소득층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환경 조성

- 인천의료원에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제2의료원 건설을 추진한다. 야간·휴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 사회적 위축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구축

-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안전관리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왕산마리나

아동·여성·고령자·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여성의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략적 목표	주요 프로젝트
포괄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기회의 확장	● 사회복지회관 신축 및 이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 저소득층 통합지원 및 복지 특화사업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환경 조성	● 시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인천의료원 필수 의료시설 확충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 ● 감염병 상시대응 강화 및 일상회복 지원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 사회적 위축 고위험군 지원 ●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구축	●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 확립 ●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 조성 ● 취약계층 맞춤형 급식관리 ● 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아동·여성·고령자·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 여성의 고용 유지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 인구정책 실행 기반 마련 및 초저출생 대응

3) 추진전략

목표 1 포괄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기회의 확장

■ 전략 1-1. 생활권별 균형적인 사회복지회관 신축

- 생활권별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거나 이전한다. 시설의 기능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거지역 중심으로 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복지 기반시설로서 열린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복합 커뮤니티 공간, 주민건강센터 등을 마련한다.

■ 전략 1-2.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강화하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 SOS를 통해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

■ 전략 1-3. 취약계층 생활보장 강화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SOS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보호 대응을 강화한다.

■ 전략 1-4. 저소득층 통합지원 및 복지 시범 특화사업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단가를 인상하고, 자활사업단을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촉진한다.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시범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은둔형 외톨이 심리상담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 대응한다. 약국과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목표 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환경 조성

■ 전략 2-1. 시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시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건강권 보장으로 건강수명연장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 전략 2-2. 인천의료원 필수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 인천의료원 후면부를 증축하고,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하여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의료원의 시설 현대화와 장비 구입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를 향상시키며, 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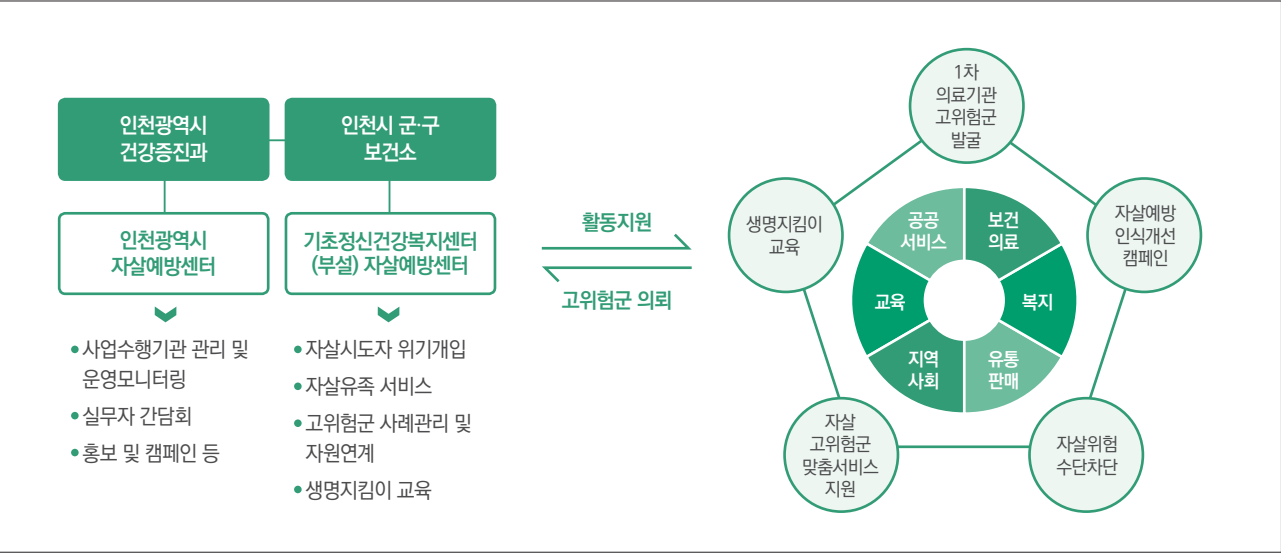
■ 전략 2-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시민건강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인천 제2의료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영종 국립대병원 분원을 유치한다.
-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 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전략 2-3.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운영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응급의료체계를 통해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Ⅰ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



목표 3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 전략 3-1. 사회적 위축 고위험군 지원

- 사회적 위축 고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돌봄기기 및 돌봄플러그를 활용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대응한다.

■ 전략 3-2.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단가 인상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촉진한다.

■ 전략 3-3. 장애인 고용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해 배움수당을 신설한다.
- 장애유형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 전략 3-4.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필요 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 등 전문 심리 상담을 확대한다.

목표 4 안심하고 신뢰하는 위생환경 구축

■ 전략 4-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위해식품 수거 및 검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중독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전략 4-2.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 조성

- 음식점 경영혁신 및 외식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외식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 4-3. 취약계층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확대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및 식단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 전략 4-4. 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식품산업육성 지원센터 운영

- 가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및 일반 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 현장 코칭, 유통 컨설팅, 기업체 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 전략 4-5. 생활밀접 위생업소 관리 강화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 및 등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미용업, 숙박, 목욕장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5 아동·여성·고령자·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 전략 5-1. 아동친화도시 조성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 조사, 대시민 참여토론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한다.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전략 5-2.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통해 범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전략 5-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수를 증가 시킨다.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운영하여 고령친화환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인상해 노인들의 소득을 증진시킨다.

■ 전략 5-4.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 청소년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행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전략 5-5. 인구정책 실행기반 마련 및 초저출생 대응

-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 인구포럼과 미래준비특별위원회 인구분과를 운영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강화군, 옹진군, 동구 등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IV

제4장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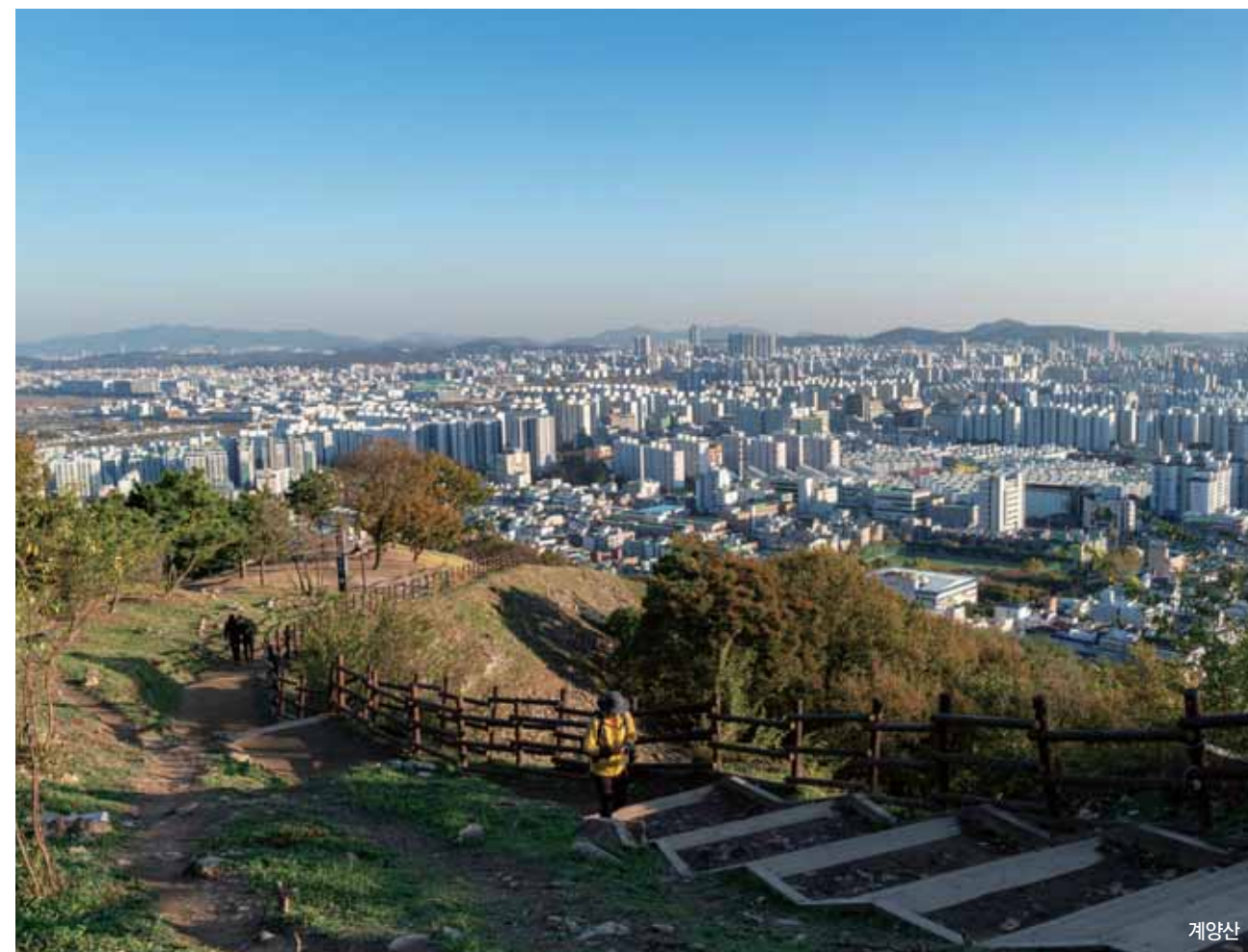
112 제1절 도시공간구조

118 제2절 주요 발전축 설정

제1절 도시공간구조

1. 개요

- 공간구조 설정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간구조를 구상, 도시확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공간구조 구상,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 맞춤형 특화 발전 구상, 주변도시와 연계된 공간구조 구상을 통한 광역연계거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 도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균형감있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하며, 국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 GTX기반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교통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며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유연한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였다.
- 대·내외적 정책 방향과 변화하는 도시형태를 반영하는 유연한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2. 기본방향

4도심·4부도심·9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 설정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

- 인천의 공간구조를 고려한 중심지 체계 구성은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에 도심기능을 부여하며, 부도심, 지역중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심지 체계를 설정하였다.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도심·5부도심·8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변경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도심 기능부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국토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분석한 중심지 특성과 변화 진단 결과를 반영한다.
- 인천의 중심지 기능 고도화는 중심지별로 특화된 기능,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확립된 중심지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질의 어메니티를 확보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간구조 구상

- 도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균형감있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한다.
- 국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 미래성장축, 미래 성장동력 창출, 신규 개발사업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한다.
- 도시의 개발과 보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공간체계를 마련한다.

도시확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공간구조 구상

- GTX기반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교통 및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한다.
-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재편한다.
- 인천대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로 파급될 원도심 활성화 공간전략을 마련한다.
- 대·내외적 정책 방향과 변화하는 도시형태를 반영하는 유연한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한다.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구조를 구상한다.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 맞춤형 특화 발전 구상

- 원도심 활성화와 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을 고려한 도시 기능 연계를 유도한다.
- 지역 특화발전 구상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 도심-지역중심-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지역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공간·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한다.
-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와 향후 도시성장 등을 고려한다.

주변도시와 연계된 공간구조를 구상하여 광역연계기점 형성

- 김포시와는 검단-김포 간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연계협력사업 추진과 검단일반산업단지와 김포 골드밸리와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
- 부천시와는 문화도시 중심과 미래산업성장 및 도시 활력 재생의 3개 축을 설정하여 지역 간 연계형 발전축을 설정한다.
- 시흥시와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 제고 및 남동·시화·반월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능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동인천~주안~부평~구로~신도림~용산을 잇는 경인선축 및 인천~정왕~안산~수원을 잇는 수인선축 등 광역철도 교통축의 핵심거점이자, 서울·수도권의 글로벌 관문으로서 역할을 형성한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3. 도심(4 도심)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강화

-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의 관리통제기능을 제고하고 세계 도시와의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다양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24시간 깨어 있는 도시로 조성한다.
- 구월 도시는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 환승 기능을 수행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심으로 조성한다.
- 부평 도시는 철도지하화, 광역교통, 군 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 중심 강화를 수행하는 도심으로 조성한다.
- 송도 도시는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국제업무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도심으로 조성한다.
- 동인천 도시는 역사, 문화, 관광, 국제업무·국제교류 기능을 특화하는 도심으로 조성한다.
 - 동인천 도시는 인천의 지역균형발전, 원도심의 활성화와 정체성 강화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 거점개발과 내항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
- 도심을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절지로 조성하여 중심지간 기능적 물리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를 통한 복합개발과 도심녹지 확보

- 토지용도, 용적률 기준 및 밀도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체계 유연화를 통한 공간혁신구역제도 적용과 동시에 공공기여 등 공적기능을 확보한다.
- 노후건축물 등으로 쇠퇴된 원도심에 양질의 어메니티를 제공하고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4도심 간 연계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내부 교통망 연계 및 이동수단 다양화

- 4도심 간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여 내부 도시의 영향력과 활력을 강화한다.
- 향후 새로운 교통 이동수단 등장을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연결 수단을 다양화한다.

4. 부도심(4 부도심)

지역별 특화기능 부여를 통한 발전 도모

-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기능부여를 통해 발전을 도모한다.
- 청라는 국제금융·업무, 문화기능을 특화하여 정주환경이 제고된 부도심으로 조성한다.
- 영종은 공항과 연계하여 글로벌과 로컬을 연계하는 결절(교차)지역을 부도심으로 조성하며 이와 연계된 항공산업을 특화하고 도시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특화한다.
- 검단은 서북부 문화,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어메니티를 제고하는 부도심으로 조성한다.
- 계양은 동북부 행정·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하여 정주환경을 제고시키고 첨단산업을 특화하는 부도심으로 조성한다.

수변공간과 보행로 연계를 통해 부도심의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

- 아라뱃길, 계양천 등과 보행로를 연결해 친수기능을 제고하고 영종의 경우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동 접근성을 강화한다.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추진과 보행친화적인 매력 도시로 조성

- 공항철도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점목해 부도심의 활력을 제고한다.
-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를 매개로 보행과 이동이 원활하도록 유도해 부도심을 보행중심지로 재구조화 한다.

5. 지역중심(9 지역중심)

상업·업무·주거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족성 강화

- 주안은 공유오피스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뷰티 산업을 특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소래/논현은 수산업 거점특화 및 관광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연수는 남부권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검암은 서북권 주거 및 업무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오류는 서북부 산업단지 종사자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계산은 동북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가정은 서북권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강화는 남북경협 중심 및 소통을 위한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 길상은 강화남단 국제 업무 상업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역중심으로 조성한다.

부도심과 연계하여 도시기능 집적과 지역주민의 고차 생활 서비스 유지

- 지역중심은 도심 및 부도심의 배후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을 위주로 설정하였으며, 인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해 자족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 지역중심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6. 지구중심(13지구중심 및 역세권)

시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근린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생활권 중심지로 기능

- 지구중심은 자치구 단위 혹은 자치구 내 생활권의 중심지이자 시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으로 관리한다.
- 역세권은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편의기능의 집적 지역으로서 생활권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상생활권 및 보행생활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구중심 및 역세권의 다기능 복합개발 추진

-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
- 지구중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의 콤팩트시티를 실현한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구분	중심지
4도심	구월, 송도, 부평, 동인천
4부도심	영종, 검단, 계양, 청라
9지역중심	주안, 소래·논현, 연수, 가정, 검암, 오류, 계산, 강화, 길상
13지구중심	송의, 옥련, 동춘, 남동, 만수, 간석, 갈산, 작전, 굴현, 가좌, 석남, 심곡, 영흥

7. 중심지별 특성화 방안 설정

- 중심지별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주변 중심지와의 상호연계성을 강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 도심의 경우, 구월은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환승 기능을 수행, 송도는 산학연 연계를 바탕으로 국제 업무 중심 강화, 부평은 입지/교통/군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중심 강화, 동인천은 역사/문화/관광/신산업 특화를 주요기능으로 설정하였다.
- 청라는 국제금융·업무/문화기능 특화, 영종은 해양레저관광과 항공 산업의 복합도시 조성, 검단은 서북부 문화, 교육 중심 공간 조성, 계양은 동북부 행정·업무·상업 기능을 강화한다.
- 주안 등 지역중심은 중심지별 상업·업무·주거의 기능강화를 중점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심곡 등 지구중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구분		중심지	주요기능
도심 (4)	지역균형 발전과 GTX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상업·업무 중심기능	구월	GTX 역사 중심의 공공행정 및 복합 환승 기능
		송도	산·학·연을 연계한 국제 업무 중심 강화
		부평	입지/교통/군 이전적지 개발과 연계한 상업 중심 강화
		동인천	역사 / 문화 / 관광 / 국제업무·국제교류 기능 특화
부도심 (4)	지역균형 발전과 GTX기반 광역교통 중심의 상업·업무 중심기능	청라	국제금융·업무/문화 기능 특화
		영종	해양레저관광과 항공 산업의 복합도시 조성
		검단	서북부 문화, 교육 중심 공간 조성
		계양	동북부 행정·업무·상업 기능 강화
지역 중심 (9)	상업·업무·주거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족성 강화	주안	공유오피스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뷰티산업 특화
		소래/논현	수산업 거점 및 관광중심지로 육성
		연수	남부권 상업·문화기능 강화
		검암	서북권 주거·업무 기능 강화
		오류	서북부 산업단지 종사자 주거 조성
		계산	동북부 행정·업무·주거 기능 강화
		가정	서북권 상업·업무 기능 강화
		강화	남북경협 중심 및 소통 거점
		길상	강화남단 국제·업무·상업 기능 강화
지구 중심 (13)	시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근린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 주거 및 생활SOC 등 일상생활 중심 기능 강화 및 관리	송의 / 옥련 / 동춘 / 남동 / 만수 / 간석 / 갈산 / 작전 / 굴현 / 가좌 / 석남 / 심곡 / 영흥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하여 콤팩트 시티로 조성 및 관리

제2절 주요 발전축 설정

1. 주요 발전축 설정

철도 및 광역도로 중심의 지역 연계를 위해 4개의 발전축을 설정

- 미래성장축 : 송도를 중심으로 동인천~청라~검단~고양, 구월~부평~계양~검단~김포로 이어지는 교차·순환형 미래성장축을 설정, 도시공간의 내·외부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 안산 ~ 송도국제도시 ~ 내항항만 ~ 청라국제도시 ~ 검단신도시 ~ 고양 ~ 남동국가산단 ~ 부평국가산단 ~ 계양테크노밸리 ~ 김포
- 국제기반축 : 인천의 입지적 강점 및 국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제금융·업무·문화 기능 강화 축을 설정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
 - 영종하늘도시 ~ 청라국제도시 ~ 검암역세권 ~ 계양테크노밸리 ~ 서울
- 도시재생축 : 경인선축(동인천~구월~부평~부천), 인천대로축(인천내항~주안~가정~서울)의 2개 재생축을 설정하여 도심 및 지역산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수도권 서부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
 - 동인천 원도심 ~ 주안국가산단 ~ 구월원도심 ~ 부평역세권 ~ 부천
 - 인천내항 ~ 인하대 일원 ~ 인천대로 ~ 서울
- 평화벨트축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송도~영종~강화~개성을 연결하는 축을 설정하고, 인천도심과 연결성을 확보하여 서해평화협력시대에 대응
 - 시흥~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영종하늘도시~서해남북평화철도/도로~강화교동 산단~개성



강화 교동도 망향대

1) 미래성장축

기본 방향

- 도시공간 중심지 체계를 내·외부를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송도를 중심으로 동인천-청라-검단-고양, 구월-부평-계양-검단-김포로 이어지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심기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내생적 도시성장을 도모한다.

추진방향

- 대중교통 연계 체계 강화를 통해 중심지 체계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부권 공간구조를 강화한다.
 - 중심지 내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중심지간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인접도시인 김포, 고양과 광역적으로 연계해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중심지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입지 경쟁력 확보한다.
 - 송도(바이오·반도체), 동인천(전통 뿌리산업), 청라(금융, 로봇), 부평-계양(AI·정보통신), 영종(바이오·반도체), 남동공단(바이오) 등 산업거점 육성과 미래성장축을 중심으로 산업벨트 형성을 추진한다.

2) 국제기반축

기본 방향

- 국제금융·업무·문화기능 강화 축을 설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 인천의 입지적 강점 및 국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추진 방향

- 공항경제권 형성의 주요한 축으로 기능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한다.
 - 청라 및 영종국제도시의 글로벌 기능을 구축하여 서울과의 광역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발전축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한 산업간 연계와 도시기능 고도화를 도모한다.
- 로봇 등 첨단산업 벨트 구축으로 국제기반축의 산업기능 강화한다.
 - 로봇-모빌리티-첨단의료 등 첨단·신산업 벨트구축으로 산업기능을 강화해 입지경쟁력을 제고한다.

3) 도시재생축

기본 방향

- 중심지 체계와 지역산업 자원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한다.
 - 경인선축, 인천대로축 두 재생축을 중심으로 도심 및 지역산업 등 도시재생을 통한 수도권 서부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함

중점 추진 방향

- 경인선축 및 인천대로축 중심 지역활성화 마련과 산업거점별 특화산업 육성한다.
 - 인천대로 주변 미래공간 조성과 경인선 중심 보행생활권 형성과 SOC 공급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한다.
 - 인천대로 주변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와 경인선축 주변 첨단산업 재편으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 중장기적으로 선형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지역 어메니티를 제고한다.
 - 인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오픈스페이스 창출과 양질의 어메니티를 제공하고 건축물 등과 연계 활용하여 도심재생지의 매력을 연출한다.

4) 평화벨트축

기본 방향

-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조성 마련을 통한 서해평화협력 시대에 대응한다.
 -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도심과 연결성을 확보하여 산업간 연계기능을 도모한다.

중점 추진 방향

- 중심지 연계 및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간 연계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 영종, 송도, 길상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지별 특화산업(영종 향, 송도 바이오 등) 간 연계 관계를 형성을 통해 입지경쟁력을 제고한다.
- 중심지 활성화 및 교통 편의 증진 위한 방안 마련
 - 송도, 영종, 길상 및 강화의 중심지 활성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접근성강화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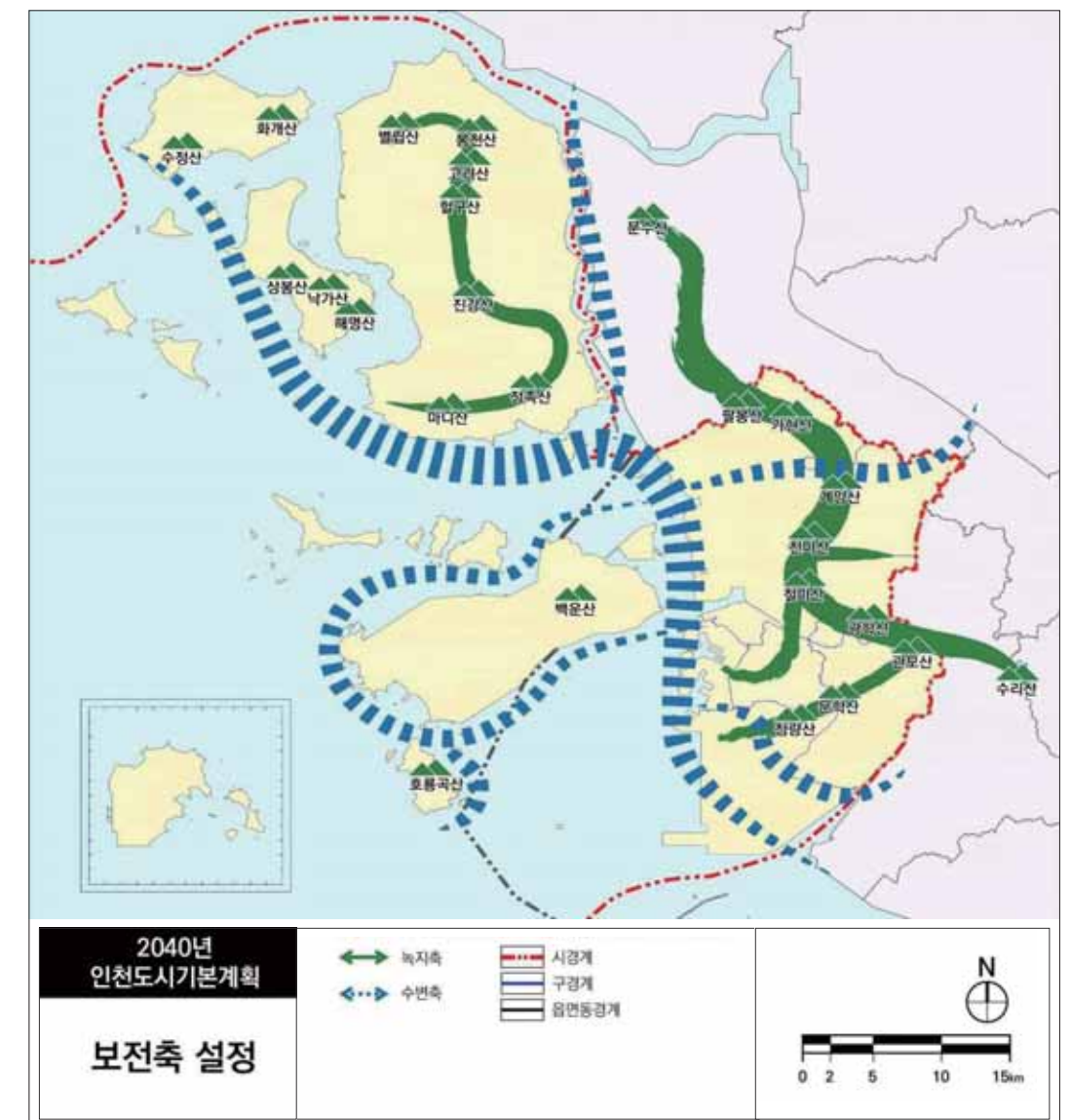
발전축 설정(변경)



2. 보전축 설정

- 녹지축 : 한남정맥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강화지역 산림과 관모산~청량산을 연결하는 2개의 부축과 인천대로 상부 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내 단절된 동서 녹지축을 강화하고, 생태·보전축 설정으로 단절 녹지 연결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한다.
 - 주축 : 한남정맥(문수산~필봉산~가현산~계양산~천마산~철마산~광학산~관모산~수리산)
 - 부축 : 강화지역 산림(별립산~봉천산~고려산~혈구산~진강산~정족산~마니산)관모산~문학산~청량산, 인천대로 ~ 경인고속도로 상부
- 수변축 : 서해안을 주축으로 하고 영종도 수변, 경인아라뱃길, 강화도 수변, 송도~소래, 무의도 및 교동도 수변 부축을 연결하여 수변의 보전 및 해양친수공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녹지-수변의 그린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주축 : 서해안
 - 부축 : 영종도 수변, 경인아라뱃길, 강화도 수변, 송도~소래, 무의도 및 교동도 수변

보전축 설정



제3절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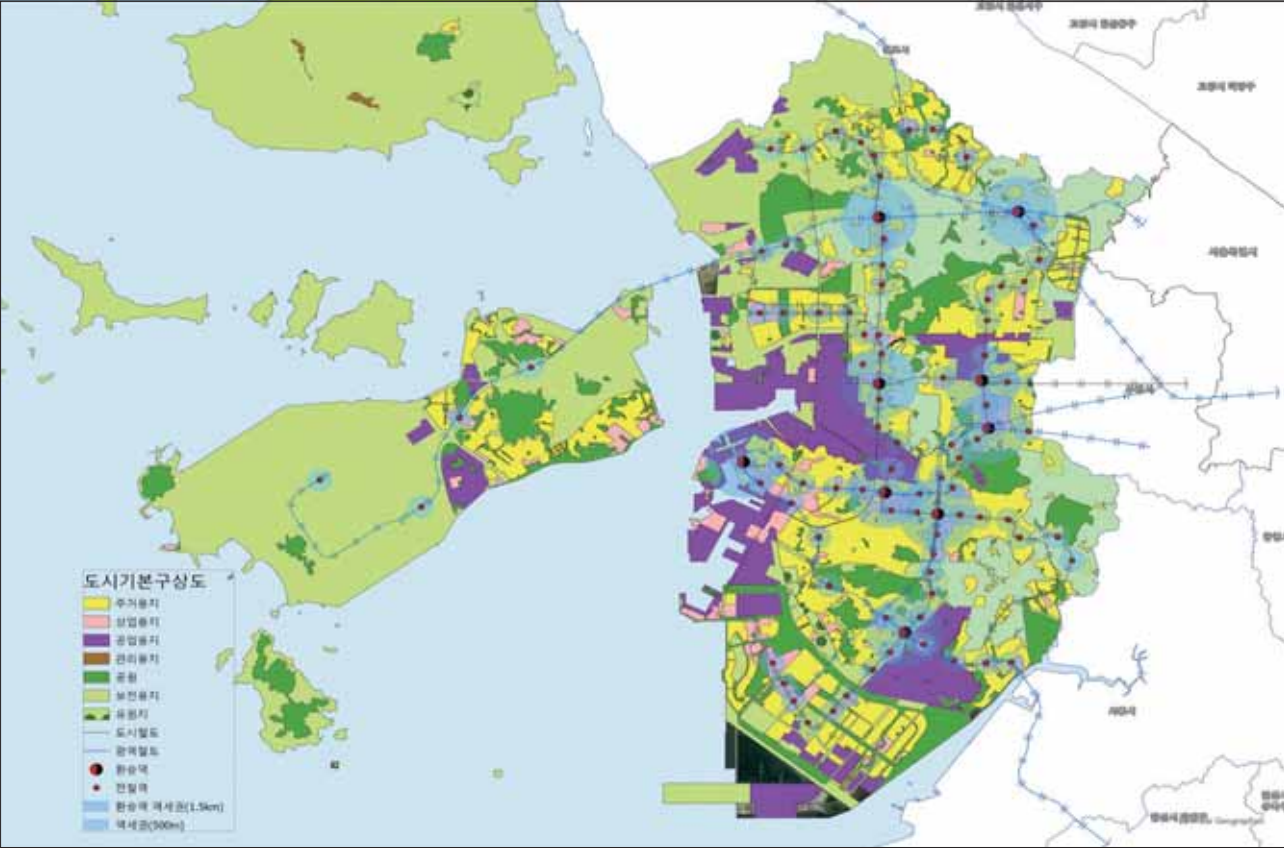
매력적인 국제 해양관광 도시의 위상 강화

- 인천내항 재개발 및 송도 워터프런트 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 가치를 제고한다.
 - 항만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앵커시설을 도입하고 원도심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 항만 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워터프런트 및 레저공간 조성
-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한다.
 - 인천내항 일원의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조성 및 송도 마리나시설 등 해양레저시설 마련
 - 섬 명소화 사업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고유의 정체성 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산업거점 및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한다.
 - 국제도시별 산업 전문화 및 산업·기술·문화를 융합한 차세대 산업 인프라 구축
 - 국제 수준의 항공·항만 인프라 확충 및 미래 모빌리티 기반 물류체계 구축
- 친환경적 토지이용으로 탄소중립 방재도시 구현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 화석발전의 무탄소 발전 전환 및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적 토지이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도모
 -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풍수해 대비를 위한 기후대응 인프라 마련

토지이용 및 철도 현황



원도심의 활력 회복 및 콤팩트시티로 도시공간 전환

- 원도심 역세권 공간의 재구조화를 도모한다.
 - 역세권 등 거점지역에 밀도 있는 입체·복합적 개발 유도를 통해 다양한 시설을 집적화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
- 원·신도심 균형발전 기반의 스마트도시구현으로 도심 기능회복과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 권역별 핵심거점을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인천대로 일반화, 고속도로 및 철도 지하화를 통한 공간구조 재편

도시공간 관리의 공공성 및 밀도관리 강화

-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주거 용지를 공급한다.
 - 민간개발 중심의 주택과잉공급 억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개발밀도 및 사업시기 설정
- 시가화에정용지 일몰제를 도입한다.
 - 사업시행자 및 투기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주택공급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적기 주택공급 유도

2. 용도구분 및 관리방안

용도구분

■ 시가화용지(기성시가지)

-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며,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시가화용지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 시가화에정용지

-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촉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계획물량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폭우재해나 해수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가급적 시가화에정용지 지정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시가화에정용지로 지정 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재해취약요소에 대한 대응 및 방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보전용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을 말한다.
-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 중 시가화에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에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제외)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 함양 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 용지로 계획한다.

시가화용지(기성시가지) 관리방안

■ 원도심 혁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인천내항과 주변지역의 거점 재생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 및 주거·문화·산업의 융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거점 개발과 토지이용 기능의 재편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 송도, 구월 및 부평 등 도심은 GTX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업무기능을 집적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고밀·복합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 도시공간 활용의 다각화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 등 공간혁신제도를 활용한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실현성을 도모한다.
- 거점 역세권 및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입체복합 개발로 새로운 지역중심을 육성하고 도시재생 선도 및 콤팩트시티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 지상철도와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로 인한 상부공간은 기반시설의 기능이 유지·개선되는 범위내에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수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보행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이용 증대와 공공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SOC 확충

-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도시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보행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복합기능을 집적하고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한다.
- 도시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해양 친수공간을 네트워크화하여 보행량 증가 및 도시활력을 유도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도시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사고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한다.

시가화에정용지(개발가능(예정)지역) 관리방안

■ 도시미래상 및 계획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가능지 확보

- 개발가능(예정)지역은 도시미래상 실현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용도별 물량으로 배분하여 단계별(4단계)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과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개발 잠재력, 균형발전 및 재정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한다.

■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시가화에정용지는 토지이용의 원칙과 주용도를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세부용도와 위치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정하고,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 주거형 시가화에정용지에 대해 민간 소유의 개발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적정선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으로 설치·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기준을 수립·운영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정책사업에 재투자를 유도한다.

■ 도시공간 확장에 대비한 공유수면 관리

- 항만기본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따라 매립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계획 및 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도의 토지이용계획(시가화에정용지)을 수립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상부 건축계획이나 투자유치 계획이 수립된 경우 주변지역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한다.
- 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생태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 대규모 개발가능(예정)지역의 관리

- 인천광역시의 경우 미개발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가능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군부대 등의 대규모 이전지 및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략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개발가능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지특성, 배후지역의 여건 및 도시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성장상 신규 개발수요에 대비한 시가화에정용지 운영 기준

- 시가화에정용지는 목표연도 인구규모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국가 및 지역 정책사업의 반영 또는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목표연도 총량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생활권별 시가화에정용지의 총량과 주용도는 부문별 정책이나 관련 계획 등에 우선하며,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개별 입지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다.
 -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별 소요면적 총량의 3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 시가화에정용지 물량의 신규 반영 또는 배분은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자연/인문환경, 개발사업 목적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사업추진 전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다.
 -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표-3]체크리스트 적정성 등을 통해 반영 여부 검토
-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규 반영을 불허한다.
 - 한남정맥 등 주요 녹지축의 단절, 양호한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역사문화 환경의 훼손을 초래하는 경우
 -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유해요소 입지로 인해 정주공간으로 부적합한 경우
 - 주변지역 개발추이, 주거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주택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경우
 - 사업목적, 토지사용, 시행자, 자원조달방안 등 사업 시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 실현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타 사업목적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내용과 불부합 하는 경우

-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반영된 주거형 시가화에정용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 상 해당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가화에정용지 물량은 차기(5년 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에정용지 물량 배분을 취소한다.
 -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등 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몰제에 따라 취소된 시가화에정용지 물량은 개별적으로 입지나 토지이용변경은 불가.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일몰제 제외

Ⅰ 공유수면 관리 방안 : 시차지역제



신규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구분		관련기준	상세 검토 방법	관련 법률
자연 환경	지형 지세	- 인천광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 표고 65m 이상(도시지역) - 경사도 17~20도 이상 - 생태자연도, 토지적성평가 등	- 개발행위허가 기준 총족여부 - 생태자연도 1등급 불허 - 토지적성평가 가, 나등급 편입여부	국토 계획법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 환경	녹지축의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친환경적 개발여부	한남정맥 녹지축, 도시공원 등 녹지의 단절 및 자연환경 보호 여부 등	기본계획 수립지침
	재해 위험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저감종합계획 고려	재해위험지역 여부 및 재해위험성 저감계획 수립 여부 검토	국토 계획법
인문 환경	토지 이용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 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보전목적의 지역 편입여부 - 농림, 보전/생산녹지, 보전산지, 문화재/수자원보호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지침
	주변 지역	정주공간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여부	- 수도권매립지, 공장밀집지역 등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유해요소 입지여부 - 진입도로 및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 여부	국토 계획법
개발 계획	사업 목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 안정적인 주택공급, 계획적 정비 필요성 및 공익성 등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반영여부 검토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및 계획방향 등과 정합성 여부	기본계획 수립지침
	관련 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	-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여부 검토 - 개발유형, 계획인구 및 사업시기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
	주택 수요	인구예측에 근거하여 주택 및 토지수요 검토	- 주거종합계획 등 주택공급 관련계획 검토 - 생활권별 계획인구 검토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밀도	인천광역시 특성과 주변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개발밀도 검토 - 신규 개발사업 : 200인/ha 이하	관리계획 수립지침
	추진 계획	사업 실현성 및 일정계획 검토	- 사업시행요건 충족 여부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및 사업시기 검토	관리계획 수립지침

- 안정적 주택공급을 도모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 반영된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 도시기본계획 상 해당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차기(5년 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분을 취소한다.
 -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등 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미 추진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몰제에 따라 취소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개별적으로 입지나 토지이용 변경은 불가.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일몰제 제외

보전용지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처음 지정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발제한 구역의 대체 지정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 원도심 내 위치하는 군부대 이전사업 등에 해당할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도시성장 관리 원칙을 강화한다.
 - 공익사업 추진 시에 도시권 내 가용지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 가급적 기존 시가지와 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도시성장관리개념 강화
 - 인천시의 도시자족기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주거, 문화 도시지원 등 융·복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억제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원도심내 분양시장 침체, 인구유출 가속화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 축발로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양
 -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확보, 민간참여 시 공공의 지배력 확보, 개발이익의 객관적인 측정·환수 시스템 마련 등 해제사업의 공공기여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 주체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은 해제 불허
- 개발제한구역의 가치 향상을 통한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도시용지 수요가 도시권의 외곽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측 지역의 가치 향상
-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환경을 복구한다.
 - 양호산 산림, 자연생태계 양호지역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필요한 소규모 훼손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여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 시설로 조성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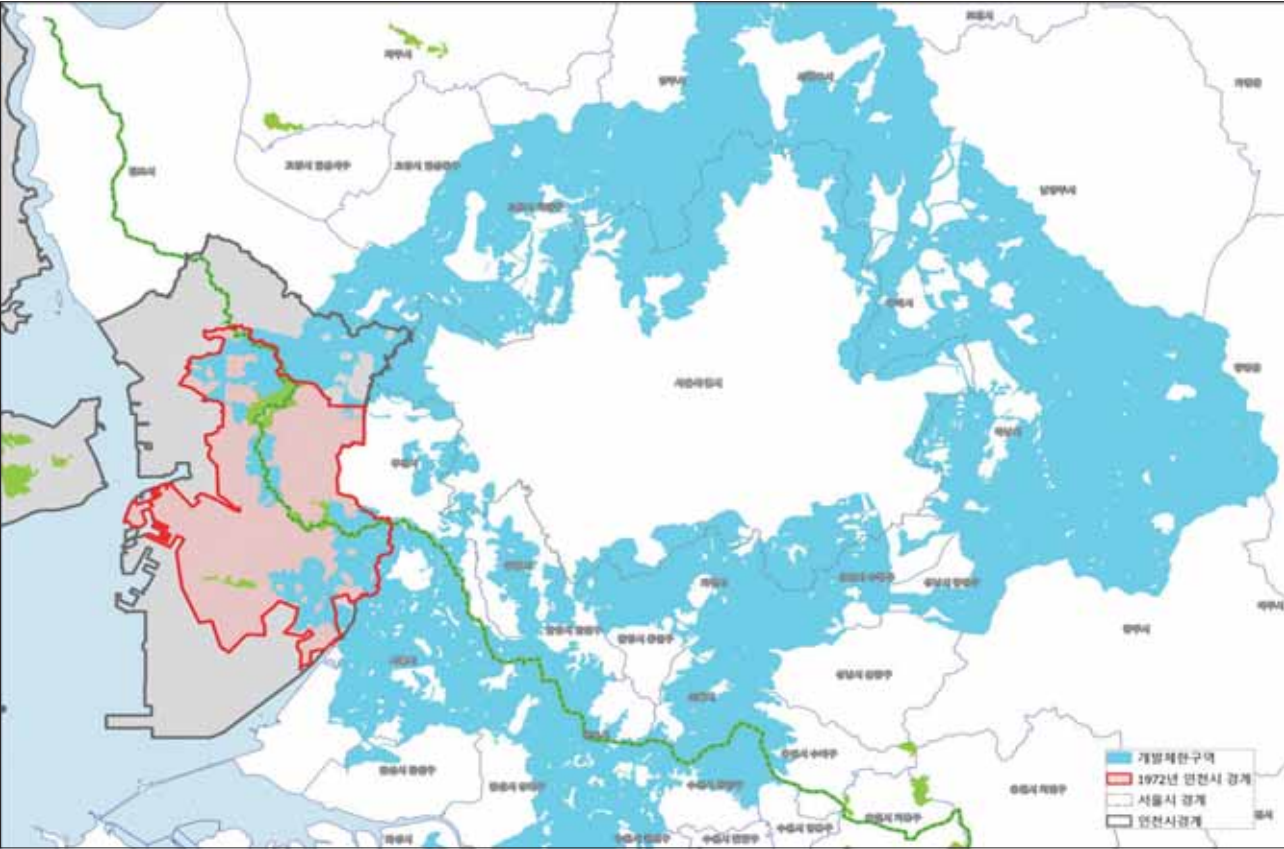
■ 공간적·기능적 단절된 녹지축의 연계성 강화

- 공원·녹지·해안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녹지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공원 및 녹지, 해안변 등 단절된 구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의 중요 녹지체계인 한남정맥(S자 녹지축)의 단절 및 훼손 지역의 복구를 통한 여가공간 조성
- 철도 및 도로의 지하화 구간, 용도 혼재지역의 기능분리(공업과 주거 등)를 위한 녹지대를 조성하고 생활권 공원 조성으로 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하여 광역적 녹지 연결을 강화한다.
-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트래킹코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체질의 공간 및 친환경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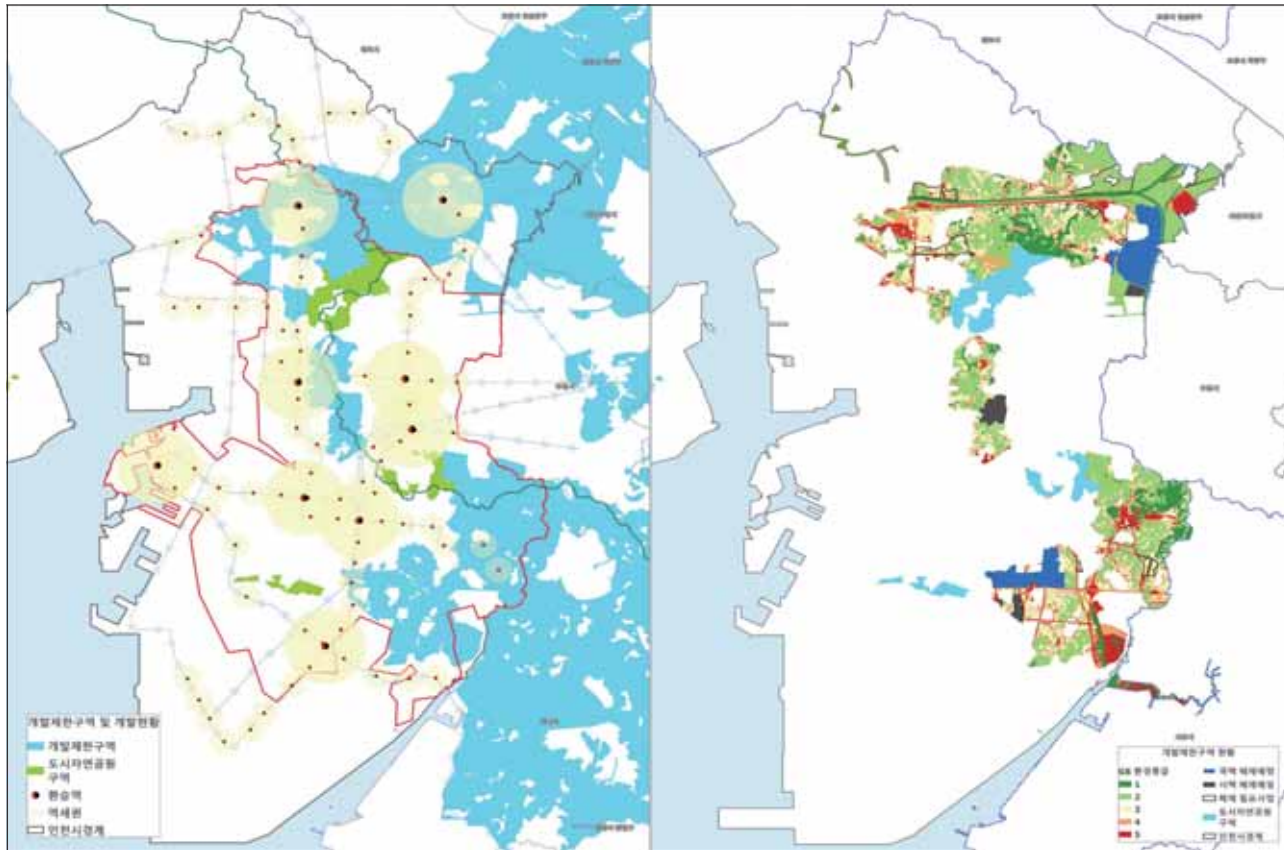
| 녹지축 연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 철도역 및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3.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용지

-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로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재생 등 국가 및 인천시 정책사업 반영
 -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가화에정용지와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
 -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 영흥화력발전소 공업용지 축소 등을 반영

| 시가화용지 변경내역

구분		면적 (k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시가화 용지	소계	269.581	감) 2.983	266.598	100.0
	주거용지	133.729	증) 0.118	133.847	50.2
	상업용지	25.752	증) 0.120	25.872	9.7
	공업용지	64.076	감) 3.574	60.502	22.7
	관리용지	2.139	증) 0.209	2.348	0.9
	공원	43.885	증) 0.144	44.029	16.5

시가화에정용지

- 시가화에정용지는 장래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간을 생활권별 총량과 주용도로 구분하여 계획
 - 구월2 공공주택지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정비예정구역 등 정책사업 반영
 - 백령공항 배후부지, 역세권 및 도서지역 관광거점 등
 - 장기 미추진 사업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시가화에정용지 물량 축소

| 시가화에정용지 총량

구분		면적 (k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9.589	감) 7.195	52.394	100.0
	주거형	22.178	감) 7.404	14.774	28.2
	상업형	10.065	감) 3.262	6.803	13.0
	공업형	25.137	증) 0.630	25.767	49.2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209	증) 2.841	5.050	9.6

Ⅰ 시가화예정용지 생활권별 배분내역

생활권	합계	시가화예정용지(k㎡)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k㎡)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	
합 계	52.394	14.774	6.803	25.767	5.050
중부생활권	0.359	-	0.355	0.004	-
영종생활권	6.643	1.488	5.155	-	-
서남생활권	12.397	0.422	0.040	11.935	-
동남생활권	2.514	2.239	0.002	0.273	-
동북생활권	2.602	1.475	0.221	0.906	-
서북생활권	14.889	8.660	1.030	5.199	-
강화생활권	4.194	0.490	-	3.500	0.204
옹진생활권	8.796	-	-	3.950	4.846

총괄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상 시가화용지는 266.598km²(19.3%), 시가화예정용지는 52.394km² (3.8%), 보전용지는 1,062.356km²(76.9%) 계획

Ⅰ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 (km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381.348	-	1,381.348	100.0
시가화 용지	소계	269.581	감) 2.983	266.598	19.3
	주거용지	133.729	증) 0.118	133.847	9.6
	상업용지	25.752	증) 0.120	25.872	1.9
	공업용지	64.076	감) 3.574	60.502	4.4
	관리용지	2.139	증) 0.209	2.348	0.2
	공 원	43.885	증) 0.144	44.029	3.2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9.589	감) 7.195	52.394	3.8
	주거형	22.178	감) 7.404	14.774	1.1
	상업형	10.065	감) 3.262	6.803	0.5
	공업형	25.137	증) 0.630	25.767	1.8
	비시가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209	증) 2.841	5.050	0.4
보전용지		1,052.178	증) 10.178	1,062.356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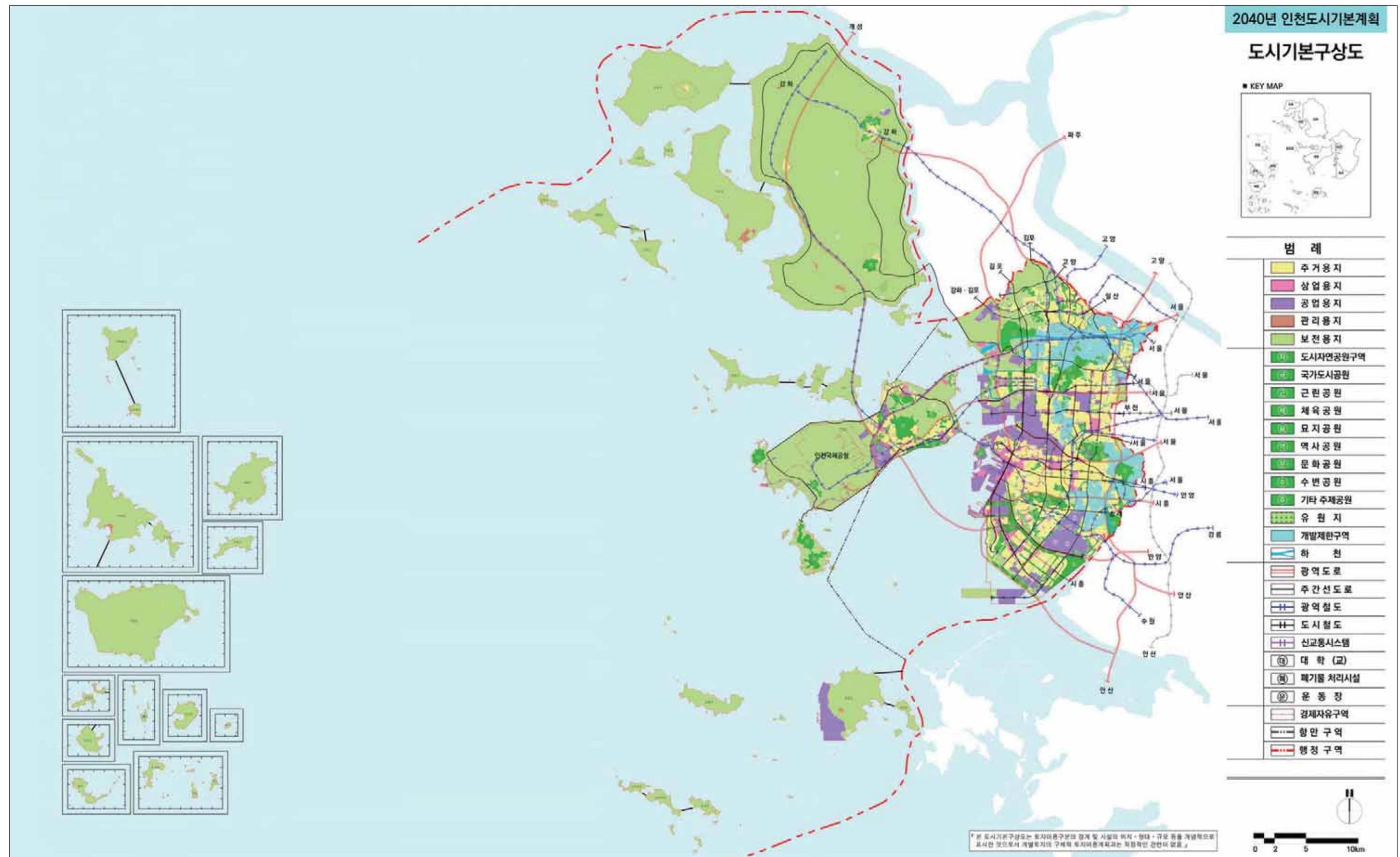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면적(㎢)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인천광역시	합계		187.999	18.865	148.445	13.790	6.899
	시가용지		135.605	15.158	114.008	6.439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2.394	3.707	34.437	7.351	6.899
		주거형	14.774	1.652	10.616	0.506	2.000
		상업형	6.803	0.654	1.897	4.252	-
		공업형	25.767	1.157	19.153	0.558	4.899
		지구단위계획구역	5.050	0.244	2.771	2.035	-
중부 생활권	소계		13.944	4.416	3.469	6.059	-
	시가화 용지	소계	13.585	4.408	3.118	6.059	-
		내항1·8부두, 주변지역재생	7.924	-	3.002	4.922	-
		북성동 주거환경	0.017	-	0.017	-	-
		인천역 역세권	0.011	0.011	-	-	-
		월미 근린공원	0.588	0.588	-	-	-
		용현·학익구역	2.693	2.693	-	-	-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1.137	-	-	1.137	-
		도화구역	0.882	0.882	-	-	-
		문학구역	0.083	0.083	-	-	-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사업	0.099	-	0.099	-	-
		도화역 인근	0.098	0.098	-	-	-
		인하대 인근 복합문화시설 개발	0.010	0.010	-	-	-
		미추홀구 청사 신축	0.043	0.043	-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0.359	0.008	0.351	-	-
		주거형	-	-	-	-	-
		상업형	0.355	0.008	0.347	-	-
		공업형	0.004	-	0.004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영종 생활권	소계		36.240	6.514	21.222	8.504
시가화 용지		소계	22.954	3.654	19.300	-	-
		영종하늘도시	19.300	-	19.300	-	-
		미단시티 조성사업	2.713	2.713	-	-	-
		용유 오션뷰	0.125	0.125	-	-	-
		오성 근린공원	0.816	0.816	-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6.643	1.430	0.961	4.252
주거형			1.488	0.826	0.662	-	-
상업형			5.155	0.604	0.299	4.252	-
공업형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구분			계	면적(km ²)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서남 생활권	소계		60.858	1.048	54.727	0.184	4.899
	시가화 용지	소계	48.461	0.529	47.932	-	-
		송도국제도시	47.040	-	47.040	-	-
		송도역세권구역	0.293	-	0.293	-	-
		동춘1구역	0.408	0.408	-	-	-
		대우자판부지	0.539	-	0.539	-	-
		무주골공원 민간특례사업	0.121	0.121	-	-	-
		송도2공원 민간특례사업	0.060	-	0.060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12.397	0.519	6.795	0.184	4.899
		주거형	0.422	0.038	0.384	-	-
		상업형	0.040	0.040	-	-	-
		공업형	11.935	0.441	6.411	0.184	4.899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동남 생활권	소계		8.250	2.707	5.543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736	2.666	3.070	-	-
		고잔2구역	0.118	0.118	-	-	-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0.296	0.296	-	-	-
		만수역 일원	0.018	-	0.018	-	-
		남동구청역 일원	0.013	-	0.013	-	-
		남동인더스파크역사 일원	0.073	0.073	-	-	-
		구월 근린공원	0.033	0.033	-	-	-
		인천대공원	2.146	2.146	-	-	-
		소래국가도시공원	3.039	-	3.039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2.514	0.041	2.473	-	-
		주거형	2.239	0.039	2.200	-	-
		상업형	0.002	0.002	-	-	-
		공업형	0.273	-	0.273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동북 생활권	소계		7.321	0.780	3.853	0.086	-
	시가화 용지	소계	4.719	0.780	3.853	0.086	-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사업	0.086	-	-	0.086	-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사업	0.053	-	0.053	-	-
		계양테크노밸리	3.332	-	3.332	-	-
		계양테크노밸리 훼손지복구사업	0.468	-	0.468	-	-
		방축구역	0.085	0.085	-	-	-
		효성구역	0.435	0.435	-	-	-
		풍산금속	0.079	0.079	-	-	-
		서운구역 인근	0.181	0.181	-	-	-
		소계	2.602	0.486	1.892	0.224	-
	시가화 예정 용지	주거형	1.475	0.124	1.351	-	-
		상업형	0.221	-	0.221	-	-
		공업형	0.906	0.362	0.320	0.224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구분			계	면적(km ²)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서북 생활권	소계		55.039	4.004	48.085	0.950	2.000
	시가화 용지	소 계	40.150	3.121	36.735	0.294	-
		청라국제도시	17.806	-	17.806	-	-
		검단신도시	11.181	-	11.181	-	-
		검단3구역	0.525	0.525	-	-	-
		루원시티	0.934	0.934	-	-	-
		가정2공공주택지구	0.263	0.263	-	-	-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0.810	-	0.810	-	-
		한들구역	0.520	0.520	-	-	-
		검단오류구역	0.204	-	0.204	-	-
		경서3구역	0.368	0.368	-	-	-
		I-FOOD PARK	0.281	0.281	-	-	-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0.056	-	0.056	-	-
		서구청 역세권	0.092	0.092	-	-	-
		가좌1동 일대	0.294	-	-	0.294	-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1.032	-	1.032	-	-
		검단16호공원 민간특례사업	0.138	0.138	-	-	-
		인천대로 상부도로 공원화	0.250	-	0.250	-	-
		수도권매립지	5.396	-	5.396	-	-
	시가화 예정 용지	소 계	14.889	0.883	11.350	0.656	2.000
		주거형	8.660	0.529	5.625	0.506	2.000
		상업형	1.030	-	1.030	-	-
		공업형	5.199	0.354	4.695	0.150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강화 생활권	소계		4.194	0.255	3.939	-	-
	시가화 예정 용지	주거형	0.490	0.096	0.394	-	-
		상업형	-	-	-	-	-
		공업형	3.500	-	3.500	-	-
		지구단위계획구역	0.204	0.159	0.045	-	-
웅진 생활권	소계		8.796	0.085	6.676	2.035	-
	시가화 예정 용지	주거형	-	-	-	-	-
		상업형	-	-	-	-	-
		공업형	3.950	-	3.950	-	-
		지구단위계획구역	4.846	0.085	2.726	2.035	-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구상도





제5장

생활권 구상

138	제1절 생활권 구상의 개요
140	제2절 생활권 구분 및 설정
142	제3절 생활권역별 구상

제1절 생활권 구상의 개요

1. 생활권계획의 개념 및 역할

생활권계획의 개념

- 생활권의 구분은 시대나 장소 및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권역생활권, 지역생활권,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한다.
 - 근린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소지역의 단위로서 1개 이상의 행정동 규모이다.
 - 권역 및 지역생활권은 일상의 패턴은 아니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공간으로 1개 이상의 군·구로, 광역시, 대도시에 적용가능한 생활권을 말한다.
- 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계층·문화적 특성에 따른 생산 및 생활 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생활권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며, 생활권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기초조사, 시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한다.

생활권계획의 역할

■ 도시기본계획상 비전, 공간구조 구상 등을 구체화하여 지역발전방향을 제시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및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공간구조 구상 등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하고 구체화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인천대교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군·구별 계획 또는 사업 등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 간 계획의 연계가 가능한 상호보완적인 발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의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및 계획 간 정합성 확보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계획추진 실현성을 제고시키고 도시 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및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일상생활 중심의 계획

- 해당 지역의 현황, 강점, 문제점 등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생활권 내 지역적 특성, 물리적 특성, 주민들의 생활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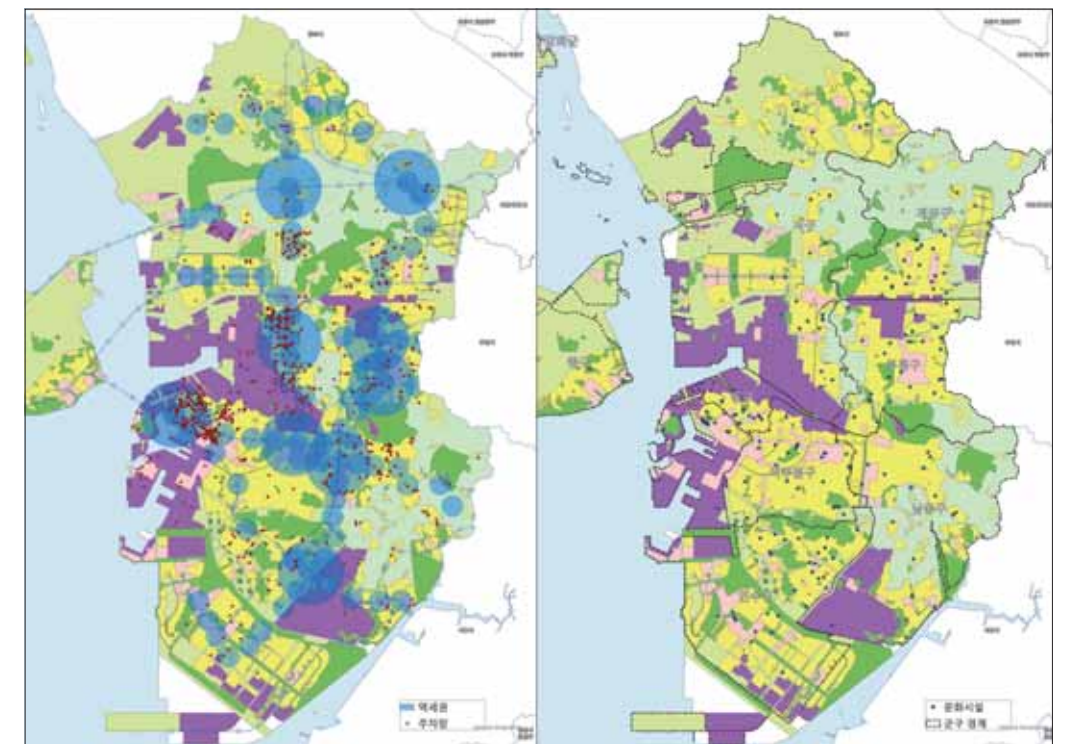
설정기준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 13지구중심의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를 공간 구조로 설정하여, 4도심 공간구조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또한,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의 공간구조 설정으로 지구 중심의 기능이 세부화·구체화될 수 있는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일상생활의 중심 지역을 반영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인구배분기준

- 인천광역시 생활권별 자연적 증가인구 및 타 시·도간 유입 인구인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활권별 장래인구추계에 최근 5년간 전출입구비율을 계산하여 자연적 증가인구를 추정한다.
 - 해당 생활권내 사업 유형별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사회적 증가인구(가능유발인구)를 추정한다.
- 원도심의 인구 유출 및 개발여건의 상대적 불리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생활권에 대해서 인접생활권 계획인구 일부를 조정 배분하여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 감소 최소화 및 균형발전 도모한다.

| 생활인프라시설 현황



제2절 생활권 구분 및 설정

생활권 구분 및 설정

- 생활권은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인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 13지구중심을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화 및 주요기능, 지정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8개 권역생활권으로 설정한다.
 - 권역생활권(대생활권)은 별도의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지역생활권 및 근린(일상)생활권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한다.
- 각 생활권별 미래상, 특화 전략 설정을 통해 생활권역별 특징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자료 취득의 용이함과 모니터링을 감안하여 기존의 자치구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별 인구배분 결과 2040년 계획인구는 중부권 56만 명, 영종권은 17만 명, 서남권 45만 명, 동남권 56만 명, 동북권 79만 명, 서북권 66만 명, 강화권 10만 명, 옹진권 2만 명으로 배분한다.
 - 최신 통계청 장래인구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
- 생활권별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배분계획을 조정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하도록 한다.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30% 이내에서 생활권 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생활권	2020년	계획인구(만인)								비고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95	302	312	327	324	330	330	330	330	-
중부권	52	52	53	54	54	55	56	55	56	증) 1
영종권	9	12	12	16	14	17	15	17	15	감) 2
서남권	37	43	39	46	42	46	45	46	45	감) 1
동남권	53	52	56	55	58	56	59	56	59	증) 3
동북권	81	80	84	83	83	82	81	82	80	감) 2
서북권	54	54	59	63	63	64	64	64	64	-
강화권	7	7	7	8	8	8	8	8	9	증) 1
옹진권	2	2	2	2	2	2	2	2	2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제3절 생활권역별 구상

1. 권역생활권별 발전방향

생활권 구분 및 설정

- 중부생활권은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친수공간 및 워터프런트 조성, 개항장과 연계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설정하고, 서남생활권은 GTX 중심의 국제·업무·관광·바이오 중심, 동남생활권은 구월 구도심과 남동산단 간 물리적 단절을 해소하고 제2경인선 철도와 연계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 동북생활권은 산업단지와 신도시 간 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북생활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국제도시 중심의 국제금융기능 강화 및 신규 개발지의 밀도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한다.
- 영종생활권은 항공산업의 거점 마련 및 국제관광·휴양기능을 특화하고, 강화생활권은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광역도로 연결성 확보를 통한 관광, 남북평화도시 조성, 옹진생활권은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생활권별 발전방향

생활권	발전 방향
중부생활권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한 시민개방형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조성 및 개항장과 연계한 인천의 역사문화 중심지 조성
영종생활권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거점 마련 및 국제관광·휴양 기능 특화
서남생활권	GTX-B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을 활용한 국제·업무·관광기능 강화 및 바이오 거점 확대 조성
동남생활권	구월 구도심과 남동산단 간 물리적 단절 해소 및 제2경인선 철도와 연계한 미래성장동력 마련
동북생활권	수도권과 접한 동북권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양신도시~계양산단~서운산단~부평산단으로 이어지는 지식산업벨트 구축
서북생활권	청라 중심지역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신개발지역의 밀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
강화생활권	강화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광역도로 연결성 확보를 통한 관광·평화도시 조성
옹진생활권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 강화

2. 권역별 구상

1) 중부권역

비행기 타고, 배타고 세계인이 어울리는 국제도시

■ Compact City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통하여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동인천역·인천역 주변의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인천대로 일반화를 통하여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 경인선철도 역세권 내 입체·복합화를 유도한다.

2) 영종권역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 영종도

■ 수변문화, 예술, 관광레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

-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 타운, 무의 LK, 을왕산 아이퍼스 힐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수변 문화&예술, 관광레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 공항 접근성 개선 및 관광 연계망 구축
 -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여 영종지역과 원도심(인천역)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영종 자기부상열차 및 영종지구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지역 내 입지한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 제3연륙교 건설을 통해 육지부와 접근성 제고 및 영종~강화~해주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 도로·철도를 건설하여 지역 간 소통하는 도로망체계 구축 및 통일시대를 대비
 - 도심항공교통(UAM)을 통한 도심 하늘길을 조성한다.



영종자기부상열차

■ 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역사·문화·관광 연계망 구축

- 제물포-연안부두, 부평-연안부두선 신교통수단 건설을 통해 인천 및 인천 내부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외부에서 인천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산 연장 추진을 통해 지역 간 교통이 완비된 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을 고려한 바람길 조성 및 수변네트워크 조성

- 경인선철도(동서3축), 제2경인고속도로변(동서4축)으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한 바람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 내항, 만석부두 등 바다와 인접한 공업용지는 수변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 수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경인전철은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공원화하여 중부생활권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한다.

■ 노후산업시설 정비 및 청년창업 육성

-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일반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 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 변화를 도모한다.

■ 해안개방 및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인천내항의 해안철책을 철거하여 해양친수공간을 확대하고 개항장, 차이나타운, 신평문화의거리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 복합문화 거점 구축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점점으로 활용한다.

■ 녹지와 천혜의 해양자원 보전

- 해안선 개방 및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해양친수환경을 조성한다.
- 백운산의 양호한 녹지를 보존하고, 왕산, 용유 등 천혜의 해변을 보전한다.

■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공항경제권 구축 및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단지를 조성하여 항공교육 훈련센터, 항공정비산업단지 도입
 - 리조트형 MICE조성으로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MICE중심 일자리 창출
- 영종국제도시 내 민자유치를 통한 첨단항공물류센터를 구축한다.

■ 관광·레저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추진한다.
- 을왕산 아이퍼스힐을 영상,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한다.



3) 서남권역

글로벌 감각의 교통, 문화, 교육, 해양레저가 어우러진 야경 있는 젊고 안전한 도시

■ 역세권 중심의 조화로운 개발

- GTX-B와 연계한 투모로우시티 복합환승센터 기능 도입 및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으로 역세권 중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 철도교통개선 및 송도국제도시 순환 교통망 확충

- GTX-B 건설, 수인선 청학역 신설, 인천1호선 국제여객 터미널 연장, 제2경인선, 신교통수단(송도-주안선, 송도-신교통, 인천신항선) 계획 등 철도교통체계를 개선한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 연장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외곽순환도로망을 완성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한다.

■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승기하수처리시설을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은 녹지축 연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 글로벌 창업 도시 조성

-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바이오벤처지원센터, 유전체 분석서비스 등을 도입한 세계적인 바이오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강화한다.
- AI 혁신 생태계 트리플 파크(스타트업파크, 테크노파크,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창업기반을 마련한다.

■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심형 복합 문화·관광도시

- 고품격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도 워터프런트,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하고 도심해양 관광 거점 조성 및 비즈니스형 MICE 거점을 구축한다.
- 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타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 등을 도입한다.

4) 동남권역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행복도시

■ 도심권의 낙후된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로 변화

- 간석동 일원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하여 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2경인선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로 변화한다.

■ 철도와 도로교통 연계체계 확립

- 시청 및 GTX-B 역사를 중심으로 공공행정업무 중심지 위상 강화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인천2호선의 KTX광명역 및 수인분당선 논현 연장, 제2경인선 건설 등을 통해 철도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하천 접근성 강화

- 제2경인고속도로변은 공원 및 녹지와 연계, 중저밀 개발 유도를 통해 바람길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습지복원 및 남동국가산단 해안 도로 철책제거를 통해 시민이용 친수공간을 확대한다.
- 한남정맥 보전을 통해 녹지축을 보존한다.

■ 노후 산업시설의 재생을 통한 정비

-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스마트혁신단지 확대 등의 추진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 지역자원(관광자원, 자연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천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장수천, 운연천, 송도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수변축을 조성한다.

5) 동북권역

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걷고 싶은 문화관광 미래도시

■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 개발

- 계양신도시는 일자리·주거·교통이 완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 부평구 산곡동, 부평동, 부개동 일원, 계양구 효성동, 작전동 일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 철도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GTX-B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통해 광역교통의 거점조성 및 부평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서울지하철 2·7호선 청라 연장, 부평-연안부두선 건설 등 철도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들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 굴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및 경인아라뱃길에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하여 도심 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하여 상부공간 부지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부족한 녹지 확충 및 바람길(경인고속도로변 동서2축)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부평구와 계양구의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한남정맥(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철마산, 거마산) 녹지축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 육성

- 계양테크노밸리, 서운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북부권 산업벨트 구축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및 계양테크노밸리 내 직주근접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IT, CT, NT, MICE 산업관련 앵커기업 및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신산업 관련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서운2산업단지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인고속도로변 주거·공업 혼재 지역은 지식기반산업으로 변경을 유도한다.

■ 문화 공간 활성화

- 부평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개발하여 도시 내 녹지 및 문화공간을 확충한다.
- 제3보급단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6) 서북권역

미래를 연결하는 아라뱃길, 즐거움을 함께하는 드림파크, 노을은 정서진으로, 역사와 미래세대가 어우러지는 나눔이 넘치는 서구

■ 규제 완화를 통한 원도심·신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검단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 서북부지역은 주변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중저밀의 배후도시기능을 도입하되 수도권매립지의 안정화, 검단신도시 등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

- 서울2·7호선 청라 연장 및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김포 연장 등 철도인프라를 확충하여 대중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 제3연륙교 건설을 통해 공항 및 원도심으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서구 만들기

-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후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태형 미래도시(힐링공간)를 건립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내 가로공원 조성을 통하여 동서로 단절된 지역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바람길(동서 2축)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 아라뱃길, 로봇랜드 등 해양인접공간 개발을 통해 시민 친수공간을 확보한다.
- 한남정맥 보전을 통한 녹지축을 강화한다.

■ 청년층 일자리 확보 및 창업지원, 미래 산업 공간 조성

-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청라국제도시 내 마켓컬리 쇼펍클러스터를 복합화(물류·판매·제조)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
- 김포시 산업단지와 연결한 지역은 첨단산업·환경산업의 생산·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대비한다.

- 청라 로봇랜드를 조성하여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청라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드론인증 센터)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도심항공교통(UAM) 거점을 조성한다.

■ 누구나 찾아오는 아름다운 아라뱃길

- 아라뱃길은 물류·여객 기능을 축소하고 접근체계를 개선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 캠핑장, 박물관, 생태체험관, 유람선 등 문화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아라타워

7) 강화권역

역사, 문화, 해양 관광의 남북평화 중심 도서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 성장관리

- 강화읍은 관광평화도시 거점으로, 교동면은 관광도시 거점으로 하여 도서지역의 체계적인 확장과 비도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한다.
-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공간인 교동평화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를 조성하여 강화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더불어 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인천도심과 사통발달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

- 김포에서 강화까지 지하철 추진하여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영종~강화~해주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철도 건설을 통해 인천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제적 평화·관광도시로 조성한다.

■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공원 및 통일을 대비하는 산업환경 조성

- 주변여건 및 지역특성, 인문·자연환경에 알맞은 특화 계획을 통해 생태순환로드를 조성한다.
- 교동평화산업단지~해주~개성을 연결하는 통일경제 특구를 조성한다.

■ 역사문화의 보고 복원으로 관광 중심도시

-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DMZ 평화 관광 테마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 관광과 농업의 유통 및 판매를 연계한 6차 산업을 육성한다.



덕진진

8) 용진권역

청정, 힐링의 섬

■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 도시재생, 경관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 활성화를 추진한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지방상수도 보급(장봉도), 대청·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 등

■ 해상교통망, 미래교통 확충

- 도서 간 해상교통 노선 확충 및 다양화를 통한 육지부 접근성 제고
- 백령도 공항 건설을 통해 해상교통망을 확충한다.
- 도서를 연결하는 미래형 개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도입하여 섬 접근성을 강화
- 덕적도~자월도~대이작도를 PAV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021.2.10.)

■ 청정, 힐링의 섬 조성

- 초지도 북쪽 해상, 굴업도 남서쪽 해상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 자월도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 연평도 매립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방지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클린도시 조성

■ 특화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경제 활성화 및 도서관광 확대

- 관광과 농업의 유통 및 판매를 연계하는 6차 산업 육성하여 지역주민경제를 활성화한다.
- 어촌 뉴딜300을 통한 항만정비로 수산업 지원 및 해양 관광 기능을 활성화 한다.
- 도서지역 레저 및 관광을 위한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한다.
 - 덕적면 소야리항, 자월면 대이작항에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20선석) 마리나 시설 설치
- 도서지역의 유희부지 공가 등을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검토, 주민과 관광객간의 거버넌스 구축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덕적도



자월도 목섬



백령도 두무진(자료 : 용진군)



소연평도 얼굴바위(자료 : 용진군)

VI

제6장 계획의 실현

152	제1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활용
153	제2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154	제3절	계획지표 설정
161	제4절	거버넌스 강화방안
161	제5절	단계별 실행전략

제1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활용

인천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간계획으로써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한다.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인천시의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정운영 및 하위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간적·비공간적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을 한다.

미래상 및 3대 목표, 9개 핵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역할 강화

- 인천의 미래상과 3대 목표, 9개 핵심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및 재정비 등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특정한 분야 및 지역의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 권역별 특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천시 내 추가적으로 수립되는 모든 공간계획 및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생활권계획의 필요성 및 성격 명확화

- 그 간의 도시기본계획 특성상 개념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아 구체적인 공간적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자연적·공간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획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공간구조, 토지이용, 생활환경,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생활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핵심전략 등 큰 틀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담아내고,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삶에 보다 밀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일상생활적 이슈와 전략을 담아내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제2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성 제도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시·군의 부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시행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제도화한다.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통한 시민 체감형 계획·정책 수립 유도

- 주택, 정비,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의 실현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도시의 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천 전체, 생활권별(권역생활권, 지역생활권, 일상생활권)로 주요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에 따른 계획 및 정책적 반응을 통해 시민체감형 계획과 정책 수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청라호수공원

제3절 계획지표 설정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실현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설정한 미래상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계획지표를 설정한다.

목표 1 “어디서나” 지역 간 원활한 연결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지표는 기반시설, 인구, 주택·정비, 환경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목표 2 “살기 좋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지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인 교통, 환경, 주거, 교육, 방재·안전,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목표 3 “글로벌 도시” 활기찬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지표는 경제적 발전 및 산업 창출과 연관이 있는 산업, 경제, 지역자산, 문화·관광 등과 관련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도시의 변화 및 계획 여건의 변화 진단 가능한 지표 설정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실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계획의 추진 진도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시적이며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UN-HABITAT &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United Nations) 등 세계 도시지표와 함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한다.

1) 인구지표

추정방법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도시의 미래상 및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척도로 토지이용 및 각종 기반시설 공급의 기준지표가 되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요 지표이다.
-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 요소로 주택·교통·환경·상하수도·공원·녹지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기에 관련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척도임에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인천광역시의 도시규모, 군·구별 인구변화 추이 및 지역별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을 고려하여 군·구별 자연적 증가인구를 산정을 통해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추정한다.
- 기정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별법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은 계획의 일관성 측면에서 새롭게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되, 계획인구 및 세대수, 인구밀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 시점과 개발 규모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등 국가 및 지역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계획인구의 적정규모를 감안하여 사회적증가인구를 반영한다.
-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및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외부유입률을 적용하고, 신규 개발 사업 시 총밀도 200인/ha 이하의 적정 개발밀도로 계획을 유도한다.
 - 단, 생활권계획,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지역별 별도의 개발밀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기본계획 상 사업별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관리방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목표연도 계획지표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목표연도 2040년 계획인구는 당초와 동일한 330만 명으로 산정한다.
 -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 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2023.12)에 따라 최신 통계청 장래인구를 반영하여 약 312만 명 적용
 - 사회적 증가인구는 국가 및 지역 정책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수요 등을 반영하고, 사업유형별 외부유입률 현실화 등을 통해 약 18만 명 적용

I 군·구별 자연적 증가인구 (단위 : 명)

행정구역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천광역시	2,951,030	3,058,301	3,097,645	3,122,875	3,121,546
중구	135,760	168,890	183,812	192,055	195,794
동구	61,753	57,203	55,529	55,672	55,799
미추홀구	413,692	413,764	432,061	444,619	448,646
연수구	371,997	484,651	464,671	457,222	451,153
남동구	534,924	501,961	488,547	478,001	468,654
부평구	505,577	277,431	267,573	262,339	258,242
계양구	294,626	649,860	698,051	721,101	729,422
서구	548,284	419,578	418,668	418,293	416,461
강화군	65,572	65,658	68,116	71,620	74,418
옹진군	18,845	19,305	20,617	21,953	22,957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2025년 9월 현재)

I 사업유형별 사회적 증가인구

구분	면적 (천㎡)	개소 수 (개소)	계획인구 (천인)	외부유입률 (%)	가능유발인구 (천인)	비고
계	152,435	117	1,181	-	178	-
경제자유구역	97,725	9	247	25	62	-
공공주택지구	6,606	4	106	20	21	-
택지개발사업	11,106	1	120	20	24	-
도시개발사업	19,306	39	347	10	35	-
노후계획도시	12,076	5	119	10	12	-
기타 ¹⁾	5,616	59	242	10	24	-

자료 : 인천광역시 및 군·구별 관련부서(유관기관) 검토자료

주1) 기타 : 도심 공공주택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46개소) 등

I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인구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현재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5	302	312	327	325	330	330	330	330	-
자연적 증가인구	-	284	306	288	310	289	312	288	312	증) 24
사회적 증가인구	-	18	6	39	15	41	18	42	18	감) 24

단계별 사회적 증가인구 세부내역

- 생활권별 개발사업의 계획적 개발유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자 사회적 증가인구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계	단계별 계획인구 ¹⁾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합계			1,181,151	395,872	564,444	186,731	34,104
중부 생활권	소계		234,083	44,742	113,247	71,615	4,479
	시가화 용지	소계	160,840	44,742	113,247	55,168	4,479
		계	73,387	-	13,734	55,168	4,479
		내항1·8부두	6,754	-	6,754	-	-
		내항2~7부두	18,125	-	-	18,125	-
		벤처하버파크	15,928	-	-	15,925	-
		마리나인시티	7,854	-	-	7,854	-
		인천역복합개발	1,460	-	1,460	-	-
		대한사이로	2,754	-	2,754	-	-
		SK정유단지	13,267	-	-	13,264	-
		동인천역복합개발	2,766	-	2,766	-	-
		동일방직	4,479	-	-	-	4,479
		주안 2·4 재정비촉진지구	26,663	3,329	6,893	16,441	-
		용현·학익구역	48,442	6,642	41,800	-	-
		도화구역	1,235	-	1,235	-	-
		문학구역	2,500	2,500	-	-	-
영종 생활권	시가화 용지	제물포역 인근도심 공공주택사업	8,540	-	8,540	-	-
		주택정비사업(19개소)	73,316	32,271	41,045	-	-
		소계	85,957	26,541	33,816	25,600	-
		소계	77,103	25,803	25,700	25,600	-
서남 생활권	시가화 용지	영종하늘도시	63,108	11,808	25,700	25,600	-
		미단시티 조성사업	13,995	13,995	-	-	-
		미단시티 조성사업	13,995	13,995	-	-	-
	시가화예정용지		8,854	738	8,116	-	-
	시가화 용지	소계	197,840	104,837	63,553	14,725	14,725
		소계	190,940	97,660	56,654	14,725	14,725
		송도국제도시	105,806	78,306	27,500	-	-
		동춘1구역	1,575	1,575	-	-	-
		송도역세권구역	8,921	71,77	1744	-	-
		대우자판부지	10,193	-	10,193	-	-
		무주골공원	2,500	2,500	-	-	-
		송도2공원	900	-	900	-	-
		연수 택지개발구역	58,900	14,725	14,725	14,725	14,725
		주택정비사업(2개소)	2,145	554	1,592	-	-
동남 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6,900	-	6,900	-	-
	시가화 용지	소계	103,608	16,757	69,751	8,550	8,550
		소계	59,608	16,757	25,751	8,550	8,550
		고잔2구역	5,800	-	5,800	-	-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1,126	1,126	-	-	-
		구월 택지개발구역	13,400	3,350	3,350	3,350	3,350

구분			계	단계별 계획인구 ¹⁾			
				1단계 (2021~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1~2035)	4단계 (2036~2040)
동남 생활권	시가화 용지	만수 택지개발구역	20,800	5,200	5,200	5,200	5,200
		구월 농산물시장	5,135	-	5,135	-	-
		구월 아트스퀘어	1,210	1,210	-	-	-
		주택정비사업(4개소)	12,138	5,872	6,266	-	-
	시가화예정용지		44,000	-	44,000	-	-
동북 생활권	소계		194,849	76,222	99,170	13,107	6,350
	시가화 용지	소계	165,549	62,222	83,870	12,346	6,350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5,996	-	-	5,996	-
		동암역 도심 공공주택	4,392	-	4,392	-	-
		방축구역	283	283	-	-	-
		효성구역	10,195	10,195	-	-	-
		풍산금속	3,277	3,277	-	-	-
		계양 테크노밸리	41,666	-	41,666	-	-
		삼산 택지개발구역	12,700	3,175	3,175	3,175	3,175
		계산 택지개발구역	12,700	3,175	3,175	3,175	3,175
		주택정비사업(19개소)	74,340	42,117	31,462	-	-
	시가화예정용지		29,300	14,000	15,300	-	-
서북 생활권	소계		363,049	125,008	184,907	53,134	-
	시가화 용지	소계	191,613	113,969	76,115	1,529	-
		청라국제도시	15,016	7,508	7,508	-	-
		검단신도시	120,135	60,000	60,135	-	-
		검단3구역	11,429	11,429	-	-	-
		루원시티	2,313	2,313	-	-	-
		가정2공공주택지구	4,262	4,262	-	-	-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16,183	16,183	-	-	-
		한들구역	12,274	12,274	-	-	-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3,400	-	3,400	-	-
		검단16호공원 민간특례사업	2,100	-	2,100	-	-
		주택정비사업(2개소)	4,501	-	2,972	1,529	-
	시가화예정용지		171,436	11,039	108,792	51,605	-
	강화 생활권	소계	1,406	1,406	-	-	-
	시가화예정용지		1,406	1,406	-	-	-
웅진 생활권	소계		359	359	-	-	-
	시가화예정용지		359	359	-	-	-

주1) 단계별 계획인구는 총 계획인구에서 기 입주 인구를 제외한 인구

2)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계획지표 설정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는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의 3가지 주요 목표인 “균형 발전, 삶의 질 제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지표		단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통계 연도/ 출처
			2020년	예측치	현황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계획인구		만명	295	299	301	302	327	330	330	’21
가구당 인구		인/가구	2.64	2.49	2.32	2.52	2.44	2.37	2.30	
주택·정비	공공임대주택비율	%	7.4	6.9	4.9	8.5	10.5	12.5	15.0	’22
기후·환경 (공원, 녹지 포함)	수질만족도	%	22.8	25.3	25.7	27.3	31.7	36.2	40.6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5.8	-	-	17.8	35.8	40	50	’19
	미세먼지농도 (PM2.5)	㎍/㎥	22	20	20	17	15	15	15	’23
	온실가스 감축율	%	4.1	-	-	11.5	33.1	52.7	76.7	’21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kg/일	0.99	1.03	0.99	0.83	0.8	0.78	0.75	’19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인	9.89	11.2	11.52	12.21	14.53	16.85	19.17	’19
	녹색교통분담률	%	50	-	51.1	60	70	75	80	’22
	주택가주차장 확보율	%	66.3	-	74.7	72.8	79.3	85.8	92.3	’22
교통·물류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	1.6	-	0.98	4.8	7	10	15	’21
	화물공영차고지 확충	면	774	-	540	1,253	2,823	3,512	4,425	’22
방재·안전	보행자 사망자	명/10만명	2.34	1.66	1.32	1.32	0.88	0.64	0.39	’21
사회·문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1	24.8	34.4	19	18	17	15	’22
	노인 일자리 규모	개	27,906	36,716	46,646	35,597	45,906	52,760	63,597	’23
	결혼이민자 일자리 수	개	105	-	-	400	434	468	500	’19
	외국인 관광객	천명	1,400	-	-	2,495	4,446	7,924	14,121	’19
	도서 관광객	천명	7,096	-	-	9,622	13,048	17,693	25,340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건	132	200	56	411	1,280	3,988	12,421	’23
	문화환경 만족도	점/5점	3.27	-	3.19	3.48	3.69	3.9	4.11	’23
	고용률	%	61.3	61.9	61.3	63.2	65	67	70	’21
경제·산업	1인당 개인소득	천원	20,083	21,851	21,170	24,301	29,404	35,578	43,050	’21

계획지표			단위	2025~2040	통계 연도/출처
주택 정비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국토교통부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총 조사대상가구 *100, 적정주거기준 공표시 지표 변경(감소 목표)	주거실태 조사
	중심성 강화	상위중심지 내 신축연면적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한 신축 허가 연면적과 전체 서울에서 중심지가 차지하는 비율(전체 신축 중 비율) (증가 목표)	건축물 허가대장
	직주균형	직주균형지수 (내부고용률)	%	대생활권별 취업자 수 대비 고용자 수(권역별 고용자 수/ 권역별 취업자 수×100)와 생활권별 고용자 중 지역 내부 통근자 비율(권역별 차등관리)	국가교통DB 또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 산업	신기술산업	지식산업 종사자 수	CO2eq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증가 목표)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기후 환경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m	건물·수송·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	기후환경 관련 부서 내부자료
	대기질 개선	초미세먼지 농도	%	인천시 대기 중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의 농도 (2040년 10㎍/m 목표치 설정)	인천시 대기환경정보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인	인천시 총 에너지보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2040년 21% 이상 목표치 설정)	한국 에너지공단
	수변공간 활성화	수변공원 이용객수	건	산책, 낚시, 자전거, 인라인, 운동·수상시설, 수영장, 행사 등을 위하여 인천시 내 수변공원을 이용한 이용객 수(증가 목표)	시 통계 정보시스템
안전 방재	범죄	5대범죄 발생건수	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범죄 건수(감소 목표)	인천통계
교통 물류	환승편의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지하철-지하철 간 평균 환승 소요 시간(감소 목표)	교통카드 자료 분석
사회 문화	복지안전망	빈곤율	개소/ 10만명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 인천시민의 비율(감소 목표)	시 자체 복지실태조사
	공공보건 인프라	인구 10만명당 지역 공공보건기관 수 (공공병원 병상 수)	병상 수	(1)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총 개소 수 / (인천시 총인구×100,000) (2) 공공병원(국·공립 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 병상 수)(증가 목표)	인천통계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통계
기타 (추가 지표 설정 검토 필요)		자살율	명/ 인구 10만명	전국 자살율 대비 인천시 자살율 추이 고려(감소 목표)	인천 자살예방 시행계획 통계
		부동산	0~1	인천시 공동주택 매매 및 전세 평균 실거래가의 지니계수 (감소 목표)	한국부동산원 통계

제4절 거버넌스 강화방안

지역적(시·군·구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집행의 주체인 시·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 인천시 및 자치구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계획 간 정합성 및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절 단계별 실행전략

우선 실행계획 설정 원칙

- 도시 미래상과 목표에 부합하며,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지를 고려한다.
- 지역숙원사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 여부를 고려한다.
- 도시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 사업 여부를 고려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연계되는 사업 여부를 고려한다.
-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 연계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한다.

단계별 실행계획의 기본방향

-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 결정에 의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민간참여의 확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의 다원화를 도모한다.
-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 시 및 강화·옹진 등 지역 내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관련이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 도시규모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계획]

발행처	인천광역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발간등록번호	54-6280000-100068-13

※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인 ComPlanAI를 활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all ways INCHEON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